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0월 3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20호 2016년 11월 2일 수요일

# 호스피스교육 포교원 인증 전문가 양성 새 전기 기대

2017년 8월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조계종이 불교계 전문인력 자격증 제도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병원전법단 연수 외에 (사)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교육도 종단 인증을 받게 될 예정이어서 전문인력 양성의 새 전기를 맞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최근 병원전법단 ·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와의 3자 논의를 통해 불교호스피스 전문가 자격을 제도화하고, 각 단체 수료자에게 자격증을 배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는 연명의료법 영적돌봄 분야서 성직자들을 위한 교육체계가 없다는 종교계 문제제기로부터 마련됐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종교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선 먼저 불교 내부 전문교육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 출가자 교육 선택 폭 '확대'

실제 병원전법단과 불교호스피스협회는 각 활동영역이 교집합을 이루고 있어 꽤 오랜 기간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어왔다. 그간 출가자의 임상지도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병원전법단 교육은 조계종 교육원 인증을 받은 반면, 출 · 재가와 무관하게 호스피스전문가를 길러내는 불교호스피스협회 교육은 종단 차원의 인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양 단체 교육을 포교원이 인증하고 전문자격증을 배부하면 출가자들의 교육 선택의 폭이 넓어짐과 동시에 일반사회의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건전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불교호스피스 질적 향상에도 긍정적이다.

포교원은 내년 법령제정을 위한 절차를 밟는 한편, 양 단체 교육프로그램을 정리해 보고할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호스피스協 · 병원전법단 논의**
**수료자에 자격증 배부 계획**
**내년 법령제정 목표로 추진**
**연명의료 불교대표성 확립도**

포교국장 성진 스님은 "단체 통합에 대한 의견도 있었지만 두 단체 성격에 차이가 있고, 각자 충분한 교육체계를 갖춘 상태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불교호스피스협회장 능행 스님은 "자격증이 현재 활동하는 돌봄가들에게 강한 동기부여가 되고, 소속감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병원전법단 사무국장 지인 스님은 "불교호스피스협회와 병원전법단이 오랫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교계 호스피스 제반이 한층 두터워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 영적돌봄 종교역할 기대

한편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불교계 과제로 연명의료법 영적돌봄에 대한 성직자 교육 필요성을 세간으로 확대하는 일을 꼽았다. 법률 시행까지 길지 않은 시간이 남은 만큼 종교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불교계가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영적돌봄은 환자에 대한 전인(全人)적 접근이 주 목적이어서 의료진 외에 사회복지사 · 성직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지만 성직자 교육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 역시 종교영역에 쉽사리 손댈 수 없어 이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그나마 정부의 체계적인 법률안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지난해 출범한 호스피스 · 완화의료국민본부(이하 국민본부)가 종교계 입장을 취합하고 있지만 교단 내 합의 도출이 우선과제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본부를 이끌고 있는 서이종 서울대 교수는 "최근까지 가톨릭을 제외하고 불교와 개신교가 교육체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해 보건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하기 어려웠다"며 "불교계에서 조계종이 대표성을 갖고 문제에 접근한다면 한결 풀어내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성진 스님은 "불교계의 단합된 모습을 바탕으로 두 호스피스 전문단체와 의견을 조율해 성직자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이 땅의 국민이 얼마나 더 죽어야하나"** 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부검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앞둔 10월 24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는 부검반대 및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실시했다. 행렬은 백남기 농민 추모의 뜻을 담은 백색등을 선두로 조계사 일주문을 나서 종로경찰서, 원당동로터리, 서울대병원까지 이어졌다. 이날 함께한 사회노동위원 스님 5명을 비롯한 사부대중 50여명은 '부검반대' '특검도입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우리가 백남기다' 등의 문구 피켓을 들고 머리와 두 팔, 두 다리를 땅에 닿게 하는 오체투지를 행했다. 글 · 사진= 박아름 기자

# "조계종 수계, 통과의례 돼서는 안된다"

**덕문 스님, 중승대 대학원**
**국제학술대회서 주장 '눈길'**

**정화 이후 '선교육 후득도' 制**
**〈사분율〉 공부 기회 축소해**
**청정 승가위해 계율 공부해야**



정화 이후 정착된 '선교육 후득도' 형식의 승가 교육제도가 계율 공부를 약화시키고, 수계를 통과의례로 여기는 경향을 만들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축율학승가대학장 덕문 스님〈사진〉은 10월 22일 중앙승가대 대학원이 주최한 '동아시아 불교에 있어서 수계의식의 형성과 변천'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스님은 발표 논문 '현대 한국불교의 수계 의식의 제 문제'에서 현재 한국불교의 수계 전통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고찰했다.

덕문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의 수계 전통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 문제는 수계 이후 지계 유지와 율장을 연구하는 스님들이 현저히 적다는 점이었다.

"수계를 통과의례 정도의 느낌으로 받는 종도들의 숫자가 적지 않은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힌 덕문 스님은 정화 이후 승가교육으로 정착된 '선교육 후득도' 제도가 율장에 대한 배움을 축소했다고 봤다.

스님은 "율장에서 권장한 제도는 '선득도 후교육' 제도"라면서 "최소한의 교육을 마치면 사미(니)계를 받고, 구족계 조건이 되면 이를 수지했다. 이후 5년의 중요 과정이 지나면 여법한 수행자로서 승가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계율을 공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선교육 후득도' 제도로 인해 종도들의 계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계율은 율사나 지키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덕문 스님은 "조계종도 가운데 소의율장인 〈사분율〉을 공부하는 기회를 가진 사람은 10%미만이다. 나머지는 구족계 수계산림 기간 9일동안 이뤄진 계율 공부가 전부"라면서 "이런 상황 때문에 조계종단의 수계는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득도 후교육 제도'로 바꾸고 계율 공부를 필수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승가의 도덕성을 확보하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청정한 교단을 만들어 내기는 불가능하다"며 "청규 · 종헌종법 등의 방법을 통해 청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기초가 부실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자랑 동국대 HK연구교수가 '중국불교에 있어서 수계의식의 변천'을, 박광연 동국대 HK연구교수가 '한국불교에 있어서 수계의식의 변천', 오카모토 잇페이(岡本 一平) 일본 게이오대 교수가 '보살계 수계의식의 특징-범망계를 중심으로'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제주불교 新 성지순례길 열린다

### 11월 6일 '선정의 길' 개통

**제주불교 '선정의 길' 코스**




2012년 지계의 길, 2013년 정진의 길, 2014년 보시의 길에 이어 새로운 제주성지순례길인 '선정의 길'이 개통된다.

제주불교신문과 제주관광공사는 11월 6일 약천사서 네 번째 성지순례길 '선정의 길'을 개통한다. 선정의 길은 '마음과 평화, 삶의 지혜를 사색할 수 있는 길'이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이 길은 서귀포 상효동 선덕사서 중문동에 이르는 총 42㎞ 코스다.

선정의 길은 △1코스(13㎞) 선덕사→법성사→관나암→신효동포제단→월라사→심우대→혜관정사 △2코스(9㎞) 혜관정사→제지기오름 절터→보문포구 옛 등대(도댓불)→소정방→정방사→무량정사→구룡사 △3코스(10㎞) 구룡사→이중섭 거리→서귀진성→황룡사→극락사→법장사→봉림사→정대교→연동연대→법환포구→법화사 △4코스(10㎞) 약천사→대포 본향당→대포 포구의 주춧돌→주상절리→제주국제컨벤션센터→중문 천제사로 구성돼 있다. 서귀포 중산간과 바닷가의 경관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최 측은 선정의 길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적극 홍보하고자 영어, 일어, 중국어로 번역된 안내표지판과 리플릿을 제작했다. 또한 성지순례길에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다.

윤호섭 기자



## 조계종, 대덕 · 혜덕 법계 품서식 봉행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고산)는 10월 25일 서울 조계사에서 '대덕 · 혜덕, 중덕 · 정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법계 품서식은 지난 10월 7~8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2016년도 2급 ·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계종은 2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비구 37명 · 비구니 14명에게 대덕 · 혜덕 법계를, 3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비구 125명 · 비구니 161명에게 중덕 · 정덕 법계를 품서했다.

종정 진제 스님은 법계위원장 고산 스님의 대독을 통해 "불조의 혜명을 잇고 요익중생에 앞장서야 한다. 초심으로 수행과 중생제도에 매진하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20여년 전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고 느낀 환희심과 출가원력을 되새겨 한국불교 중흥의 새바람 일으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계위원장 고산 스님은 이날 새로 법계를 품서 받은 스님들에게 가사를 전달했으며, 법계를 품서 받은 스님들은 가사 정대와 장궤 합장 후 불법 홍포를 서원했다. **김주일 기자**

# 1700년 한국불교문화 접한 佛, "존경" 극찬

### 조계종, 10월 26일 프랑스 파리서 사찰음식 리셉션 개최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스님들의 법고 소리가 울려퍼졌다. 이어진 사찰음식 향연에서는 프랑스 정치 · 문화계 인사들의 감탄사가 쏟아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등 50여 명의 한국불교 대표단은 10월 26일 프랑스 파리 '메종 드 라 뮈뛰알리떼' 극장에서 사찰음식 만찬 및 리셉션 행사를 개최했다.

'1700년 한국 전통산사와 수행자의 삶'을 주제로 열린 리셉션에는 300여 명이 참석해 한국불교를 체험했다.

리셉션은 조계종 의례 의원장 인묵 스님 등 20여 명의 스님들의 '산사의 하루' 공연으로 시작했다. 공연에서 법고, 범종, 목어, 운판 등 불교 사물 시연은 참석한 파리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산사의 하루'는 전통 사찰에서 행하는 일상 의례를 공연화 한 것으로 이번 행사에서 첫 선을 보였다. 스님들은 도량석과 부처님께 올리는 새벽예불, 참선, 울력, 발우공양 등을 직접 시연했다.

시연에 이어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이 세상 전쟁위협의 고통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고 테러로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과 더불어 부처님의 대자대비로 세계평화 이룩하자"고 축원했다.

공연 후에는 본격적인 사찰음식 만찬이 이어졌다. 연근 죽과 백김치, 두부 발효음식, 연밥 등 자연의 맛을 살린 20여 가지의 음식이 상에 오르자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 25~30일 한국불교 대표단 파견
#### 프랑스 정치 · 문화계 300명 참석
#### 세계적인 셰프, 사찰음식 높게 평가
#### 자승 스님 "불교문화 널리 알릴 것"

이날 사찰음식 만찬을 총괄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 전문위원 선재 스님은 "음식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하고 몸에 에너지를 깨워주는 음식이자, 자연의 모든 생명을 존중하게 하는 수행식"이라고 소개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설정 스님(사진 가운데)이 법문 표구를 프랑스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프랑스의 음식전문가들은 사찰음식에 대한 높은 평가를 내놓았다. 브노아 니콜라 패랑티 셰프는 "그동안 한국 음식이나 사찰음식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만든 이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나와 음식의 관계를 되새기게 됐다"고 말했다. 필립 오구를트 르꼬르동 셰프도 "불교의 사찰음식은 유기농과 자연주의를 따르는 전 세계적인 경향과 일맥상통하므로 결국 세계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한국 불교 수행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내 앞에 음식이 놓이기 위해 이뤄졌던 수많은 인연들을 떠올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기도를 한다"며 "음식을 먹는 것은 단지 나만의 건강과 욕망을 채우기보다 수많은 인연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 스님은 "지금 세계는 각자 처지와 입장만 내세워 갈등과 분열 양상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한국의 사찰음식을 함께 맛보며 이 세상 모든 존재와 인연들의 소중함을 공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모철민 주프랑스 한국 대사도 "이번 행사를 준비하신 자승 스님과 모든 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사찰음식 대가이신 선재 스님과 공연을 보여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날 리셉션에 앞서 25일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 한국불교문화전시회를 개최한 조계종 방문단은 27일 쟝 뱅상 뿔라세 국가개혁 장관 면담과 INALCO 대학에서 설정 스님의 한국불교 강연, 르 꼬르동 블루 조리학교에서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특강을 진행했다. 또 27일 저녁 유네스코 한국대표부 대사 주최 만찬을 진행했으며 28일부터 29일까지 사찰음식 특강과 한국불교문화 체험 행사를 이어갔다. **노덕현 기자**

## 천태종립 금강대 11월 총동문회 출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서 D등급을 받으며 학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천태종립 금강대가 개교 14년 만에 총동문회를 출범한다. 교원 · 동문회 · 재학생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난관을 헤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강대(총장 한광수)는 오는 11월 11일 오후 8시 대강당서 총동문회 출범식을 열고, 졸업생과 재학생 간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다. 행사에는 한광수 총장을 비롯해 법인 사무처장 도언 스님, 교수 및 졸업생 · 재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인 사무처장 도언 스님은 본지 인터뷰서 "진행과정에 있어 분명 아쉬운 점은 있다"며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금강대는 출범식 이후 교내 식당서 선후배간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졸업생 · 재학생 간담회를 연다. 아울러 총동문회와 협의를 통해 평의회 · 이사회 참여까지 개방할 예정이다. 학교의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윤호섭 기자**

## 직선제 · 황혼기 출가제 도입 관심

### 제207회 정기회서 처리 예정… 후반기 의장 원행 스님 추천

조계종 중앙종회 제207회 정기회가 11월 1일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가운데, 처리 법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정기회는 원 구성 직후 종헌 개정안, 종법 제 · 개정안,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 직영 · 특별분담사찰, 교구본사 및 주요 사찰 종정감사, 불기 2561(2017)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인사안을 다룬다.

가장 먼저 종헌종법 제 · 개정안은 총무원장선출제도와 관련한 2건의 종헌개정안이 접수됐다. 총무원장선출제혁신특위와 직선선출제특위가 올린 안건으로 총무원장선출제혁신특위가 제출한 안건은 제206회 임시회에서 이월된 일명 '염화미소법'인 추첨제다. 후보자 등록 후 갈마위원회를 거쳐 후보를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를 놓고 후보추천인단의 투표로 다수득표자 3명을 후보자로 확정한 뒤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 종정이 후보자 3인 가운데 무작위추첨으로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후보추천인단은 700여 명 안팎으로 복수투표로 3명의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직선선출제특위가 마련한 종헌 개정안은 법계 중 · 정덕 이상의 비구 · 비구니 8000여 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곳이 골자다. 총무원장선출법 제정안은 현재 입법 취지에 대한 종도 여론조사가 전문기관에 의해 진행 중에 있다. 종회 사무처에 따르면 10월 말 경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했다. 직선제 특위는 당초

#### 직선제 여론조사 자료 눈길
#### 은퇴자특별법 제정안 상정 예정

종회에 여론조사를 비롯한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공청회 등 절차가 남아있어 정기회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한다. 출가 특위는 비공식으로 10여 차례 회의를 갖고 특수출가제도 도입을 검토해왔다. 출가특위가 마련한 법안은 은퇴자들이 종단 내 수행 · 포교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승려가 되기 위한 수계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가특위는 10월 8~15일 7박 8일간 종단 최초로 진행된 '황혼기 단기출가학교'의 운영 상황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황혼기 단기출가학교에는 총 58명의 고령자들이 입소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월정사 연수국장 적엄 스님은 "평균연령이 65세이지만 새벽 4시 시작하는 행자생활을 빠짐없이 소화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계종 총무원이 설악산 봉정암을 특별분담사찰에서 해제하는 안을 의안으로 제출했으며, 204회 정기회서 이월된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 205회 임시회서 이월된 지방종정 개정안도 제출된 상태다.

한편, 이번 정기회는 개회 직후 새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회 구성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종회의원 최대 인원을 보유한 불교광장은 10월 18일 후반기 의장으로 원행 스님(중앙승가대 총장)을 추천키로 하는 등 인사안을 확정한바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전국비구니회, 내년 '복지' 위해 뛴다

### 10월 25일 운영위서 내년 사업계획 논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내년 '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비구니 스님들의 복지 증진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10월 25일 제2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 증원을 비롯해 비구니 종회의원 제명 후속조치, 비구니회 활성화 방안, 내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증여받은 자비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구니 근본도량으로 지정하고, 자비원 광명노인요양원장 도혜 스님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임명했다.

또한 비구니 스님들의 여성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 복지 사업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종단, 동국대 의료원과 함께 재정적 어려움으로 종합 검진 등을 받지 못하는 비구니 스님들을 우선적으로 검진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비구니회 관계자는 "여성 질환은 예방이 중요한 만큼 어려운 스님들을 중심으로 한 해 100명 정도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왕진 등은 장기적으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들과 협의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10대 운영위원장과 현 비구니 종회의원의 전원 제명 등을 결의한 9차 총회와 20차 운영위원회 결의를 재차 확인하고, "현 종회의원들은 결원 상태이므로 의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비구니회는 종단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향후 심판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비구니회 관계자는 "현 비구니 종회의원 문제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안이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차 운영위원회를 2017년 2월 21일에, 제10차 정기총회를 2017년 3월 22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 학 과 | 학 제 | 모집인원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
| 한의학과 | 5년 | 100명 | • 최종학력증명 1부<br>• 최종성적증명 1부<br>• 입학신청서 1부<br>• 여권용사진 10부 |
| 석사과정 | 3년 | 50명 | |
| 박사과정 | 3년 | 10명 | |
| 재경대학 | 4년 | 80명 |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11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 지뢰밭, 아이들 뛰노는 '생명의 땅'으로

##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 1차년도 지뢰제거 사업' 완수

지뢰로 가득했던 '공포의 땅'이 아이들이 자라나고 물이 샘솟는 '생명의 땅'으로 재탄생했다.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가 지난 2014년부터 캄보디아서 실시한 지뢰제거 사업의 뜻 깊은 결실이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3년간 추진한 캄보디아 1차년도 지뢰제거 사업을 10월 26일 완수했다.

지구촌공생회가 캄보디아 지뢰사업을 처음 실시한 것은 2013년. 이사장 월주 스님의 만해평화대상 수상 당시, 공동수상자인 캄보디아 지뢰제거전문가 아키라 씨를 통해 현지 지뢰의 심각성에 대해 접하면서부터다. 이후 지구촌공생회는 캄보디아 캄보디아지뢰제거연대(CSHD)와 협약을 맺고 3만 달러(한화 약 3,400만원)를 지원, 1만8000평 규모의 2개 마을 지뢰를 제거했다.

다음해인 2014년부터 지구촌공생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원을 받아 파죽지세로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2014년 9개 마을 7만2000여 평, 2015년 9개 마을 6만평, 2016년 9개 마을 12만여 평 지뢰를 제거한 것. 3년 간 총 27개 마을 25만2000여 평 지뢰를 제거하며, 첫 목표였던 15개 마을 13만6000여 평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로써 지구촌공생회가 현재까지 총 244기 지뢰와 1,061기 불발탄, 9만8,317개 폭발물 및 무기류를 제거, 2만2,755명에게 안전한 삶의 터를 제공했다.

지구촌공생회 측은 "캄보디아는 베트남전 및 내전 등 30년 간 전쟁으로 약 600만 개 지뢰와 불발탄이 매설된 것으로 추측된다. 캄보디아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뢰 및 불발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여 명이며, 지금도 매년 100명 이상 죽거나 절단장애를 입는다"며 "특히 지뢰 매설 지역은 농사를 짓거나 사회기반시설을 지을 수 없어 캄보디아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구촌공생회는 지뢰 제거가 완료된 지역에 교육 · 식수시설 등 건립하며, 낙후 지역을 빈곤층 주민들을 위한 거주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름하여 '공생평화마을'이다.

**2013년 CSHD와 협약 맺고 착수**
**2014년 코이카 지원받아 사업 확대**
**현재까지 25만2000평 지뢰제거**
**우수성 인정… 2차년도 계획 확정**

지구촌공생회가 자부담 2억5000여만 원 포함 5억 원을 들여 실시한 공생평화마을 조성사업에 따라 현재까지 △동통 수다라초교 △룸첵초교 △따떼우초교 △찌리우공생 유치원 등 교육시설과 6기 생명의 우물이 건립됐다. 특히 전기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동통 수다라초교와 룸첵초교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지구촌공생회는 지뢰가 제거되지 않은 국경지역 초등학교 대상 사고 예방 교육도 20차례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뢰제거사업 기간 중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수, 현지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지구촌공생회가 2014년부터 실시한 캄보디아 1차년도 지뢰제거 사업이 완수됐다. 사진은 지구촌공생회 지뢰제거활동가들 모습.

**캄보디아 1차년도(2014~2016) 지뢰제거사업 경과**

| | |
|---|---|
| 2013 | 2개 마을, 1만8000여 평 지뢰 제거 |
| 2014 | 9개 마을, 7만2000여 평 지뢰 제거 |
| 2015 | 9개 마을, 6만여 평 지뢰 제거<br>동통 수다라 · 룸첵 · 따떼우 초교, 찌리우공생 유치원 등 4개 건립<br>생명의 우물 3기 건립 |
| 2016 | 9개 마을, 12만여 평 지뢰 제거<br>동통 수다라 · 룸첵 초교에 태양광 시설 건립(진행 중)<br>생명의 우물 3기 건립 |

11살 때 지뢰사고로 오른팔과 오른쪽 눈을 잃었으나 현재 지구촌공생회 지뢰제거활동가로 참여 중인 앤 포이(28 · 남) 씨는 "어린 시절엔 오른손을 쓸 수 없어 '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낙담했지만, 지금은 캄보디아 국민들을 위해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감사히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뢰제거사업은 사업 효과성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7~2019년 한국국제협력단 지원으로 지뢰제거 2차년도 사업 진행이 확정됐다. 지원규모는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3년간 2억5000여만 원이다. 이와 관련 지구촌공생회 측은 "지뢰제거사업 자체가 생명평화사상을 바탕으로 한 평화운동이란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 밝혔다.

한편 2003년 10월 30일 창립한 지구촌공생회는 올해 13주년을 맞았다. 현재 캄보디아 · 라오스 · 몽골 · 케냐 · 미얀마 · 네팔 총 6개 지부를 설립하고 빈곤국가 주민들을 위한 교육 · 식수 · 지역개발 · 아동후원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4년 캄보디아 지부를 설립한 이래 지뢰제거사업, 교육시설 건립, 생명의 우물 건립 및 사후관리, 아동결연 후원 등 실시했다.

박아름 기자

# "법난기념사업 본격 시작, 오욕의 역사 치유할 것"

## 조계종 10 · 27법난 희생자 천도재 최초 봉행

10 · 27법난 당시 희생당한 이들의 극락왕생과 명예회복을 기원하는 천도재가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0월 2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10 · 27법난 천도재 및 3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법난 당시 숨진 희생자 영가를 달래는 천도재가 최초로 진행됐다.

10 · 27법난위원회는 6월 20일까지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문체부 소속으로 7월 1일부터 법난 기념사업을 준비해왔다. 이번 천도재는 기념사업의 첫 행사로 희생자뿐만 아니라 그 유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기획됐다.

그런 까닭에 이날 천도재에는 피해자인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을 비롯한 피해자와 유가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원행 스님은 천도재 전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야 법률이 제정돼 스님과 불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어렵게 마련된 만큼 기념관 건립을 비롯한 기념사업들이 여법하게 진행되길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법난위원회 위원장 지현 스님의 대독을 통해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종단에서 앞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천도재 후 참석대중들이 위패 소지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자승 스님은 "조계종은 올해 6월까지 피해자 인정, 의료지원금 지원, 기념관 건립 지원 등의 사업을 벌여왔다. 기념관 건립은 모든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회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남한산성 의승군, 잊지 않겠습니다

## 장경사, 11월 6일 의승군문화제 개최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내 전통문화 복원 불사를 진행해온 장경사가 남한산성을 축성 · 수리 · 방어한 의승군을 추모하는 행사를 연다.

장경사(주지 진광)는 11월 6일 경내에서 제5회 의승군문화제를 개최한다. 오전9시 남한산성에서 몸 바친 의승군을 추모하는 수륙대재와 오후 1시 수륙무차대법회가 연이어 진행된다.

**조선 중 · 후기 수륙재 전통 복원**
**"남한산성 승국사찰 복원계기로"**

이번 수륙대재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미등 스님이 도감과 장엄 · 설단을 맡고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이 어산어장으로 참여해 전통수륙무차평등의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선 중 · 후기 남한산성을 지켜온 의승군을 위한 수륙재의 전통을 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않다.

남한산성은 전국 팔도에서 모인 의승군과 관군이 각각 구역을 나누어 축성한 이래 1894년 승군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산성 내 9개 사찰에 의승군이 머물며 축성, 수리, 방어해온 곳이다.

남한산성 내 9개 사찰은 구한말 의병운동의 본거지가 됐다는 이유로 일제에 의해 강제 폐사되고 불태워졌다. 그러나 장경사만이 화마로부터 일부 전각이 남아 폐사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해왔다. 장경사는 남한산성의 불교와 불교문화를 올곧이 계승하며 유일하게 조계종 공찰로 남아 있다.

장경사 주지 진광 스님은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성 내 전통문화와 불교문화 복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장경사는 남한산성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의승군 추모 수륙재를 비롯해 산성내 불교문화를 복원하고 계승함으로써 남한산성과 전통문화의 가치를 높이는데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031)743-6547 · 6548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기독교인 불자와 불자 기독교인이 만나면?

## 아카마지, 11월 10일 종교다원주의 토크쇼

지난 9월 세 명의 불교학자들과 한국불교 교리논쟁의 장을 펼친 아카마지(대표 김현진)가 '종교다원주의'를 주제로 한 두 번째 모임을 연다.

아카마지는 11월 8일 오후 7시 서울 방배동 채식전문점 마지 2층 아카마지홀서 '기독교인 불자와 불자 기독교인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토크쇼를 연다. 이번 모임은 다종교시대서 국내 대표적인 제도권 종교인 그리스도교와 불교 간 대화를 통해 '삶 속 종교'를 논할 예정이다.

**정현경 美 유니온 신학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각각 발제**

이 자리에는 불교적 여성주의 신학자인 정현경 미국 유니온 신학대 교수와 '기독교인 불자'를 자처하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참여한다. 각각 '불교적 기독교인의 신앙과 종교' '기독교적 불자의 믿음과 종교'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 명예교수가 총평하며, 청중과의 전체토론이 진행된다. 사회는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가 맡는다.

행사를 기획한 김현진 대표는 "크리스천-부디스트, 부디스트-크리스천은 우리나라서 낯선 표현이지만 서양에선 이미 일반화된 것이다. 이번 행사는 다종교시대에 종교의 경계를 넘어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우희종 교수는 "종교의 역사와 형태 등은 매우 다르지만 지향하는 바는 결국 진리로, 사랑으로, 평화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서로 다른 조직이 가슴을 열고 함께 나아갈 때 사회발전이 이뤄지듯 종교적 가치 아래서 이를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병기 교수는 "제도종교가 점차 축소되는 반면 종교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두 분의 대화가 제도종교에 속한 이에겐 다른 종교의 시각을, 종교가 없는 이에겐 종교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카마지는 9월 시작된 이 모임이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후 모임은 '종교와 종교권력' '불교 안 재가불교운동' '제도종교 속 평신도 연대' 등을 주제로 이어진다.

우 교수는 "모임은 우리사회서 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각 종교계 평신도들이 서로 다른 연대를 통해 변화의 단초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모임 취지를 설명했다. (02)536-5228

윤호섭 기자


지구촌공생회 Good Hands



지구촌공생회 창립 13주년!

天地與我同根 萬物與我一體

천지여아동근 만물여아일체 : 천지가 나와 한 뿌리요, 만물이 나와 한 몸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사상을 바탕으로 지구촌 이웃 모두가 한 생명, 한 가족이라는 세계일화(世界一花)의 신념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발고여락(拔苦與樂)의 자비를 실천해 온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가 지난 10월 30일 설립 1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념과 종교, 민족의 경계를 넘어 지구촌 이웃 모두를 남이 아닌 나와 한 몸으로 생각하며 보편적 인류애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사)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송월주


깨끗한 물을 만드는 생명의 손
5개국 총 2,328 기 식수시설 건립 및 사후관리


미래를 꿈꾸는 희망의 손
8개국 총 59개 교육시설 건립 및 운영지원


변화를 일궈내는 자립의 손
10곳의 자립농장 및 사업장 운영


생명을 사랑하는 평화의 손
캄보디아 지뢰제거 사업(29개 마을, 27만여 평)

■ 후원문의 02.3409.0303
■ 후원계좌 국민은행 337101-04-019295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
농 협 100026-55-003657 (사)지구촌공생회
우리은행 1005-501-776078 (사)지구촌공생회
신한은행 100-027-705267 사단법인지구촌공생회

(사)지구촌공생회는 너와 나 그리고 세상이 하나임을 깨달아 종교, 민족, 이념의 경계를 넘는 보편적 인류애를 실현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2003년 前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창립한 국제개발협력 NGO입니다. 11개 빈곤국가 주민들을 위해 식수지원, 교육지원, 지역개발사업, 긴급구호 등의 국제개발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 정기 후원, 홀몸어르신 식사대접, 어르신 생신잔치 등 국내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 함께하는 분들
이 사 장: 송월주(前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금산사 · 영화사 조실) 이 사: 도영(금산사 회주), 성타(조계종 호계원장), 설송(희방사 주지), 도원(학림사 회주), 평상(백련사 주지), 지홍(조계종 포교원장), 선묵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원행(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지현 (조계사 주지), 정념(월정사 주지), 성우(금산사 주지), 월우(대흥사 주지) 감 사: 화평(서울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도연(상주사 주지) 사무총장: 원광(심원암 주지) 사무처장: 덕림(관음사 주지) 자문위원회 : 송재준, 김영하(자문위원) 미국서부지부(지부장 현철스님), 전북지부(지부장 원광스님), 대전지부(지부장 광진스님), 대구지부(지부장 선지스님), 창원지회(지회장 정인스님), 대전1지회(지부장 도일스님), 충북지회(지회장 현진스님), 울산지회(지회장 황산스님), 서울서부지회(지회장 송재봉), 익산지회(지회장 양연옥), 군산지회(지회장 박순호), 강원영동지회(지회장 권동용) 그리고 18,000여명의 후원회원과 함께합니다. www.goodhands.or.kr

월주 큰스님의 80년 인생과 60년 수행의 향기를 담은 3권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거북털 토끼뿔
송월주 회고록
정가 30,000원
송월주 지음 / 조계종 출판사


太空
태공 송월주 대종사 사진집
정가 35,000원
송월주 지음 / 대종사 사진집 간행위원회 (엮음) 조계종출판사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
태공 월주 큰스님 법문집
정가 16,500원
송월주 지음 / 민족사

## 일 주 문



**호국사자사 낙성법회**

정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스님은 11월 5일 오전 10시 30분 이천 특수전사령부 호국사자사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2016 전문포교사 연수**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11월 5~6일 화성 신흥사 수련원서 '2016 전문포교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자 위로법회**

박순 불교여성개발원장은 11월 4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스스로 떠난 이를 위한 위로법회'를 봉행한다.



**한국출판공로상 수상**

김명환 불광출판사 제작부장은 10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서 열린 '제30회 책의날 기념식'서 한국출판공로상을 수상했다.



## 캄보디아에 통학용 자전거 선물

### 로터스월드 · 세상을향기롭게, 10월 24일 기증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와 세상을향기롭게(이사장 정여)는 10월 24일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아동센터서 통학용 자전거 기증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세상을향기롭게가 자전거 후원 의사를 밝히며 로터스월드에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 로터스월드가 자전거 300대를 마련하며 성사됐다.

성관 스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과 자비, 즉 베푸는 행동이다. 이를 통해 서로 무한한 기쁨을 느끼며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할 방향"이라며 "몸소 베풂을 실천해 준 세상을향기롭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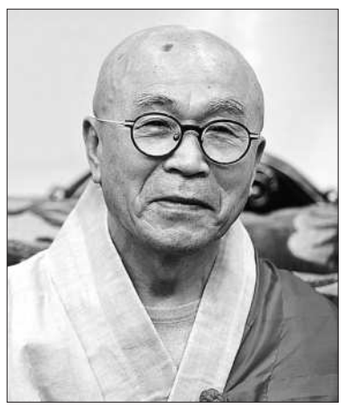
또한 정여 스님은 "성관 스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이나마 돕게 돼 기쁘다. 지역사회 아동들이 조금이나마 쉽게 통학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기증하게 됐다"며 "아이들이 더욱 학업에 집중해 이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자전거 수혜 대상자인 스은 트라는 "자전거가 없어서 학교에 가려면 1시간을 걸어야 했다. 지금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준 로터스월드와 자전거를 선물해 준 세상을향기롭게에 정말 감사하다"며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남겼다. **박아름 기자**

# "승가 참회, 화합 종단 만들 터"

Interview

### 태고종 원융포럼 회장 혜일 스님



**10월 25일 창립…100명 동참**

**승가청정 · 좌표 제시 기치**

**매월 한 차례 대중공사 개최**

"종단의 승가청정 운동을 전개하고 현실에 맞는 발전방향을 연구 ·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태고종 스님들과 종도로 구성된 '원융포럼'이 10월 25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창립됐다. 원융포럼은 태고종 종단 사태의 아픔을 극복하고 종단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모임이다.

원융포럼 회장 혜일 스님〈사진〉은 포럼 창립 배경에 대해 "최근 사회 전반에 걸친 어지러움과 종단의 어리석음을 살피고, 지금의 사태가 왜 생겼는지 고뇌했다"며 "그 해결책은 승가청정이라는데 뜻을 같이하는 스님들이 모여 승가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951년 제주에서 태어난 혜일 스님은 서귀포 구룡사서 출가해 덕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71년 서울 법륜사서 정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고, 1975년 서울 봉원사서 묵담 스님을 계사로 대승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태고종 총무원 재무부장과 중앙선관위원장 등 종단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님에게 태고종 폭력사태는 포럼을 구상하게 된 하나의 계기였다. 태고종은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종단 폭력 사건과 총무원장 구속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은 바 있다.

혜일 스님은 이 같은 사태의 근본원인이 '불통'이라고 봤다. 스님은 "그동안 종단사태는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했다. 모든 지도자들은 소통에 앞장서야 한다. 스님들도 지도자"라며 "항상 수행정진하며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점에서 태고종 내 참회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잘못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종단 좌표를 만드는 데 스님과 신도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융포럼은 향후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종단정책 연구 작업과 토론회 등을 매월 한차례씩 연다는 계획이다.

"중생들의 고통을 치유해야할 승가의 모습조차도 속세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모습임을 우리는 압니다."

혜일 스님은 "우리가 초래한 위험과 잘못을 알기에 뼈를 깎는 참회 속에 출가수행의 결연한 의지를 굳건히 다진다"며 "청정한 범행 실천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원로의장 덕화 스님을 비롯해 부회장 성오, 탄해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 "소외계층 주목하는 매체로"

### 불교공뉴스 6주년 맞은 혜철 스님



"지난 6년의 세월 간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전국의 미담을 발굴하고, 사회 소외계층을 주목하는 기사를 양산하는 매체로 거듭나겠습니다."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 · 사진)가 주축이 된 인터넷신문 '불교공뉴스'가 창간 6주년을 맞아 10월 28일 옥천군 명가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불교공뉴스는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종합 인터넷신문이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혜철 스님은 "인터넷매체의 범람 속에 특화된 신문을 만들기 위해 현장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서민들의 작은 이야기를 소중하게 취급하고, 도농교류 및 먹거리 홍보, 종교화합 등에 앞장서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최근의 트렌드는 독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영훈의료재단, 대전선병원, 옥천성모병원 등에 상호봉사 및 회원 혜택 등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이익을 돌려주는 방법을 모색했다"며 "앞으로도 구인구직 홍보 무료대행 등 다양한 역할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불교공뉴스는 이날 기념식에서 불교공뉴스TV를 정식으로 개국했다. 불교공뉴스TV는 2011년부터 5년간 시험방송을 해왔다. 불교공뉴스TV에는 혜철 스님과 전문작가, 카메라 감독이 불자 가정을 방문해 상담하는 프로그램인 '힐링 대담'이 방영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중앙 · 지역 청년불자 화합 앞장"

### 제29대 대불청 중앙회장 김성권 씨 당선



"지역서 오랫동안 청년불자로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역을 두루 아우르겠습니다."

제29대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에 김성권 前전북지구회장(46 · 흥법 · 사진)이 당선됐다. 김 씨는 10월 23일 열린 대불청 제66차 임시 대의원총회서 54표 중 52표를 얻어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김 당선자는 정책공약으로 △중앙과 지역을 두루 아우르는 중앙회장 △미래세대위원회 발족 △중앙집권적 리더십에서 분권적 리더십으로 △교육 · 신행 강화 △대불청 100주년 사업회 △만해문학관 설립을 내세웠다.

김 당선자는 신행결사와 발전기금 모연에 대해 "첫 해는 전 회원 대상으로 CMS를 확충하면서 새로운 사업동력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겠다. 또한 신행팀과 교육팀을 조직해 회원들의 불교소양 확대를 이끌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불청 미래세대위원회는 조계종단이 구상 중인 것과는 별개임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현재 대불청 주축과 20대 회원 간의 연령대 차이로 인해 융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대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행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성권 회장은 금산상업고 · 전주비전대를 졸업하고, 1995년부터 대불청에 입회했다. 전북지구 전주지회장(1999 · 2001 · 2012) · 전북지구회장(2013~2016)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 캄보디아 대학 장학생 선발

### 천호월서희망재단, 4년 등록금 전액 지원



천호월서희망재단(이사장 월서)은 국제NGO '자비를나르는수레꾼' 장학사업 일환으로 10월 17일 캄보디아 대학 장학생 20명을 선발, 장학금을 전달했다. 프놈펜 왕립대, 프놈펜 국립 농과대 등서 선발된 학생들은 4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연 6회 정기세미나 참석 기회가 주어진다. **윤호섭 기자**

## 시민행복 위한 무등산 산신제

### 10월 23일, 무등산 장불재서 300명 참여



광주동구불교협의회(회장 무등)는 10월 23일 무등산 장불재에서 '자연환경보호와 시민행복을 위한 무등산 산신대제'를 봉행했다. 올해로 8회째 맞는 무등산 산신제는 태고종 원로의원 지암 스님, 동원사 회주 지각 스님, 동구불교협의회 부회장 증현 스님을 비롯한 동구지역 사암스님과 김성환 동구청장, 등산객, 불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동국대 경주캠, 실크로드 현장학습

### 9박10일간 육로 4,171km 답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코리아 실크로드 연구소(소장 김미정)는 10월 8~19일 '실크로드 해외 탐방대' 문명교류 현장 실습을 실시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주관한 이번 탐방은 연구소가 운영하는 코리아 실크로드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탐방대는 9박 10일간 우루무치에서 시안까지 동쪽으로 거슬러 육로 4,171km를 답사했다. **신성민 기자**

본 지면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월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봉행 했던 '世界佛教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大法會'를 회향하며

# 감히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노승이 한 말씀 올립니다

한국 불교의 기둥이시며 중생들의 정신적 스승이신
400여 종단 큰스님!
한국 불교를 이끌어 가시는 제방의 모든 불제자 여러분....

한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오늘날의 한국불교 현실에서
한국불교 역사상 이렇게 큰스님들을 모시고 금강계단을
봉행한 적이 없는 대작 불사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고통과
인욕의 나날이었지만 여법하고 장엄하게 대법회를 회향하였습니다.
자아를 버리고 오로지 불교의 위상과 부처님 세상을 위해
헌신한 스님들의 공덕으로 찬란한 연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합장 삼배를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러한 대작불사를 회향하며 보잘것 없는 노승이 한마디 조언 하고자 합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타종교와 부딪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타종교의 훼방이 아니라 같은 불교집안에서 집요할 정도로 방해하는 경우가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습니다. 불교의 위상을 고려해서라도 박수를 치며 격려하고 감사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자체를 무산시키려는 무지막지한 방해를 끊임없이 시도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골목 작패들이나 할 못된 짓을 하고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곳곳에 지속적인 항의 전화 등을 한다면 그런 항의를 받는 유관단체에서는 그 종단이나 단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불교 언론 이사장님과 사장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불교행사에 군소종단들은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방영이 됩니다. 어느 종단 행사는 초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취재하고 방영하고 알아서 착착 진행합니다. 그 종단이 아닌 다른 종단이나 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아무리 거대한 국제적인 행사라도 방영 신청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불교뉴스 몇초 조차 나오지 않는 현실을 운영자들은 알고 계십니까? 불교관련 일부 매체는 어느 종단이 싫어하면 눈길조차 보내지 않습니다. 비용만 주면 불교정법에 반하는 내용도 서슴없이 방영하면서 군소종단이나 불교단체의 행사가 아무리 방대하고 장엄한 행사라도 지상파 방송에서 조차 뉴스로 내보내는 행사인데도 불교집안에서는 눈먼 봉사요 모 종단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그 방송국들 및 뉴스 매체들은 모 종단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불교집안의 방송매체나 뉴스신문이 아닌 그 종단에 귀속된 그 종단의 매체인지 되묻고 싶으며 진정 그렇다면 운영상 불합리하고 포교에 불합리한 행사내용을 방영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불교행사 주최 측에서 요청해야만 취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불교행사는 스스로 찾아 취재하는 그런 시스템이 언제나 이루어 질까요. 포교현장이나 수행 현장을 찾아 취재하고 방영하는 운영체제가 아쉽기만 합니다. 운영자금은 군소종단들의 도움으로 일조하고 방영은 모 종단들의 내용으로 채워진다면 과연 발전하는 불교의 내일이 있겠습니까? 한국불교의 반쪽도 아닌 한쪽 구석의 모습만 보게 될 것입니다.

요사이 불교계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반대의 목소리나 행동에도 배척만 하지 말고 타당성과 긍정적인 깊은 뜻이 있음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독자나 불자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내용, 그것이 그것인 내용, 입만 열면 화합을 강조하고 자비심을 들먹이면서 편협으로 다양성이 실종되어 버린 그 어느 곳에서 부처님을 찾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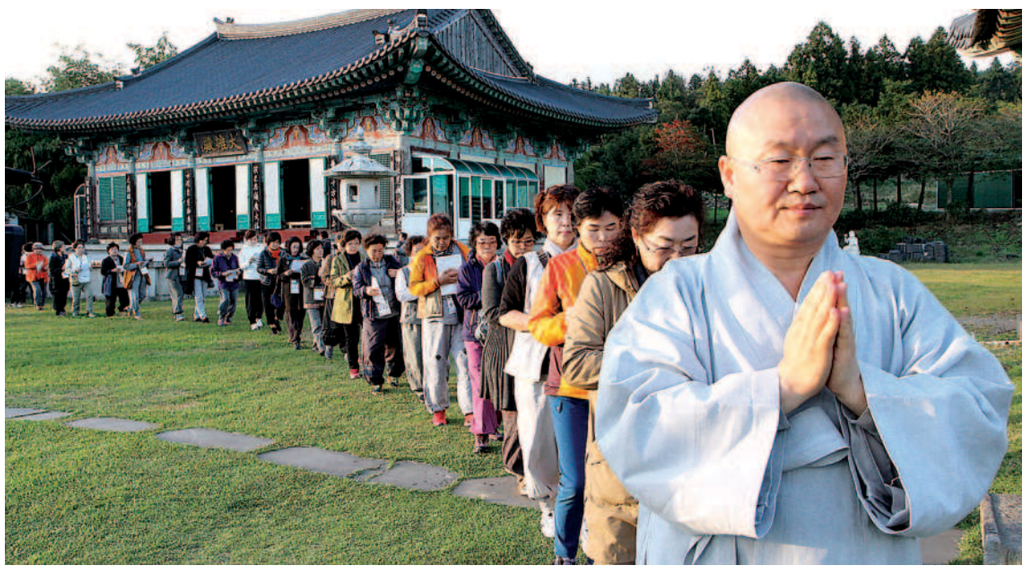
더 이상 이런 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큰 안목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교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종단이 아닌 한국불교 전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불교의 기본을 우리가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일불제자의 자세로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노승이 드리는 호소입니다.

불법을 외호하고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항상 정진의 노력을 다하시는 많은 분들께 두손모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만 가름할까 합니다

2016년 11월

노승 목탁 합장


제주 법화사에서 대중들이 걷기명상을 하고 있다.


제주 천광사로 이동하는 순례단. 제주불교 신앙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 ‘힐링의 섬’ 제주서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되다

## BTN 제주불교 성지순례 현장을 가다

“이제 서로를 안아주세요. 7초간만. 토닥이지도 말고, 그냥 안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돌아면서 서로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손을 잡아주면서.”

제주 서귀포시 법화사 대웅전 앞에 원을 두르고 서 있는 사부대중들은 스님의 지시에 움직였다. 옆에 있는 사람을 안았고, 교차로 깍지를 낀 상태로 서로의 배를 두드렸다. 돌아가며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몇몇 참가자들은 감정에 복받친 듯 울음을 터뜨렸다. 울고 웃고 서로를 안아주며, 대중들은 서로가 전하는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 세상만사 스님 4인방과 함께

BTN 인기 토크쇼 ‘세상만사’에 출연하고 있는 심산 스님(부산 홍법사 주지), 하림 스님(미타선원 주지), 만초 스님(울산 해남사 주지), 주석 스님(함양 대운사 주지)이 제주도를 힐링시켰다.

BTN불교TV(사장 구본일, 이하 BTN)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절로 가는 길’ 제주불교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제주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절로 가는 길’의 순례 여정을 조금 더 특별하게 해준 것은 세상만사 지도법사 스님들이었다.

이번 순례는 ‘세상만사’ 시즌1을 마무리하며, 시청자들에게 출연진 스님들과 함께 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순례의 시작은 제주불교계가 만든 ‘절로 가는 길’ 중 ‘지계의 길’의 시작점인 관음정사에서 이뤄졌다. 순례단은 관음정사 대웅전에서 입재식을 봉행하고 순례의 원만 회향을 기원했다.

심산 스님은 “오늘 이 자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찾고자 하는 행복을 찾아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만초 스님은 “순례는 여행과 다르다. 순례는 보고 듣고 맛보는 것을 넘어서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며 “2박 3일동안 120명 도반들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정과 행복을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 흐린 하늘에 광명이 ‘활짝’

입재식을 마친 순례단은 관음사, 천왕사, 존자암, 법화사 등 사찰을 순례했다. 제주불교 신앙의 단면을 알 수 있는 곳은 천왕사와 존자암이었다. 모두 소원성취와 구세를 바라는 나한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천왕사는 한라산 99곡 중 가장 신비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주지 지오 스님은


천왕사에서 합장하고 있는 세상만사 스님들.

“인도의 16대 아라한 발타라 존자가 제주에 주석했다는 설화가 있다. 창건주인 비룡 스님은 이를 알고 진정한 나한도량을 만들기 위해 천왕사를 창건했다. 전국에서 산신기도를 드리기 위해 천왕사를 많이 찾는다”라고 설명했다.

사실, 발타라 존자에 대한 설화의 해당 사찰은 존자암이다. 존자암은 ‘오백나한에게 빌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믿었던 제주 불자들의 영험한 기도처였고, 제주 삼성(三性)이 일어났던 탐라국 시절에 이미 불교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역사적 도량이기도 하다.

존자암까지 오르는 길은 산길을 약 20여 분 꼬박 올라야 한다. 가파르지 않지만, 제법 숨이 찼다. 구름이 많은 하늘이 언제 비를 뿌릴지 몰라 걸음을 재촉한 탓도 있었다. 존자암 대웅전 앞에서 자리한 순례단은 만초, 하림 스님의 지도에 따라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단체 명상을 진행했다.

주석 스님은 참가 대중에게 관음보살 목걸이를 나눠줬고, 받아든 대중들은 ‘참회진언’을 독송했다. 참회진언이 한라산 자락을 얼마나 울렸을까. 이내 하늘의 먹구름은 사라지고, 환한 햇살이 존자암을 비췄다. 순례 대중은 일제히 탄성을 질렀다. 진언은 이내 ‘광명진언’으로 바뀌었다.

해상왕 장보고가 건립한 법화사에서는 서로에게 기대어 웃고 우는 단체 프로그램이 만초 스님의 주도로 열렸다.

### “마음 내려놓고 힐링했어요”

순례는 메이즈랜드를 마지막으로 회향했다. 미로 테마파크인 메이즈랜드는 독실한 불자인 이동한 대표가 불심으로 하나하나 만들어낸 곳으로, 108개 갈림길과 팔정도를 의미하는 미로 등 불교가 곳곳에 녹아있다.

순례단은 메이즈랜드를 체험하고 회향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주석 스님은 “조금의 부족함이 있어도 가슴 깊이 가져가면 두고두고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이라며 “순례를 함께 해 행복했다. 일상에 돌아가서도 순례의 기억이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림 스님은 “아침에 거울을 봤더니 수염이 자랐다. 2년동안 같이 있었던 것 같다. 언젠가 다시 만난다면 이번에 느낀 감정을 서로에게 상기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만초 스님은 대중에게 숙제를 냈다. 스님은 “2박 3일의 아름다운 이벤트를 조금 더 호들갑스럽게 주위 10명의 사람에게 전해라. 그러면 그 자랑은 나뿐만 아니라 주위를 향기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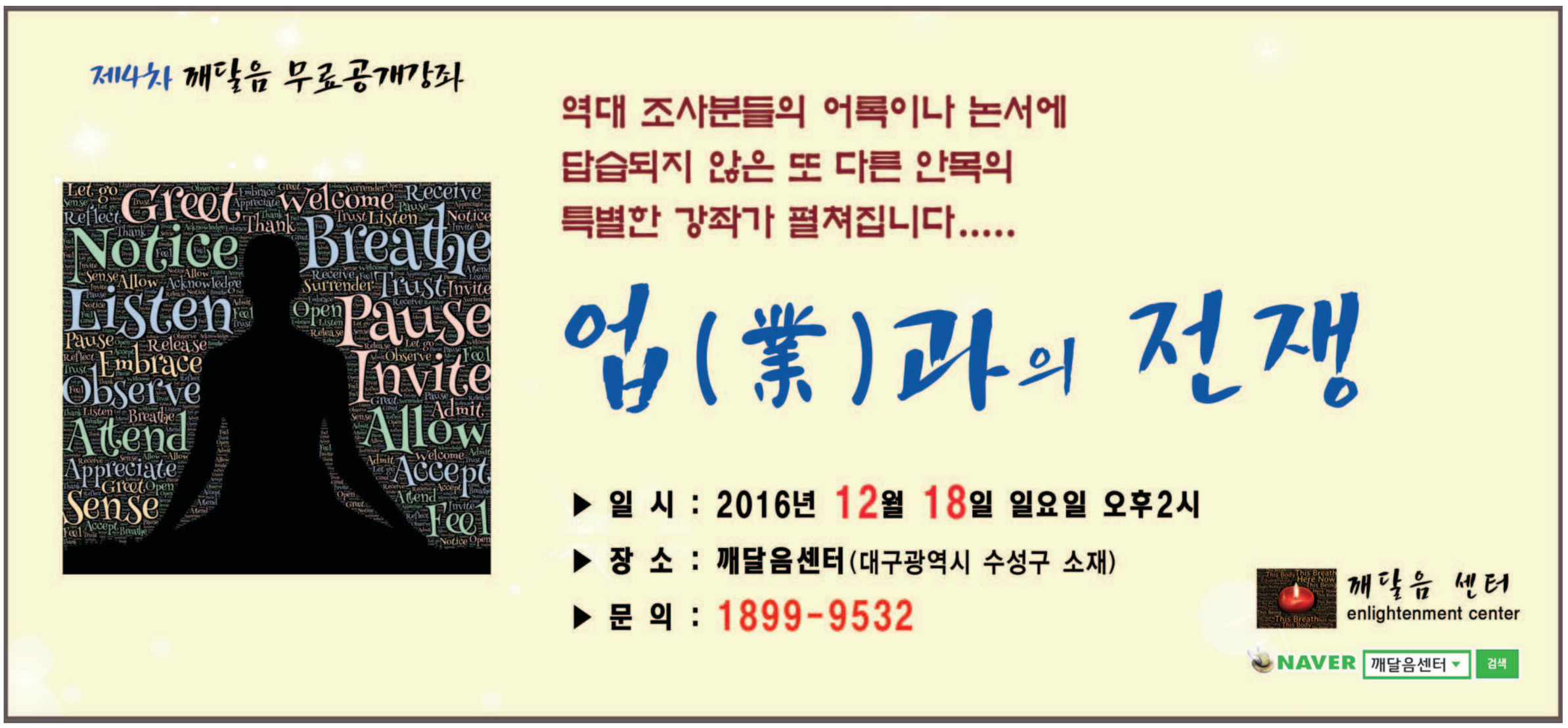
심산 스님은 “순례는 성지와 리더, 대중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상상이상의 기회였고, 행복했다. 모두 행복한 기억을 오래 간직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가 대중들은 스님들과 함께 만든 ‘행복’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순례를 회향했다. 손자 손녀와 함께 참석한 이삼순(69 · 수원) 씨는 “스님과 함께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성지 순례 프로그램에 꼭 참석할 것”이라 밝혔다. 손자 조일성(정자초 3) 군과 손녀 조시은(이목중 1) 양도 “순례라고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 같았다. 즐거웠다”고 말했다.

문길순(53 · 김해) 씨는 “순례를 통해 부처님 정법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조경수(58 · 부산) 씨는 “평소 BTN 세상만사를 꼭 본다. 순례뿐만 아니라 스님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마음이 힐링됐다”고 했다.

제주= 신성민 기자


제주 법화사에서 손을 맞잡은 대중들. 만초 스님이 진행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은 울고 웃으며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 청소년포교 산실 청교련, 百年大計 꿈꾸다

## 11월 8일, AW컨벤션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 문화공연 더불어 비전 발표로 미래 50년 다짐

**1966년 범종단 지도자 모여**
**'소년교화연합회'로 첫 출발**
**지도자 등 3만8천명 활동**
**"청소년 인재 양성에 진력"**

불교계 청소년포교의 산실인 (사)청소년교화연합회가 창립 5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맞는다. 청교련은 '한국불교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있다'는 설립 목적에 따라 앞으로의 50년을 꿈꾸면서 청소년들에게 진리와 자비의 근본정신을 심어줄 계획이다.

청소년교화연합회(총재 현성)는 1966년 4월 어린이 · 청소년 교화를 위해 석주 스님, 운문 스님, 안병호 거사, 황해진 변호사 등이 뜻을 모아 세운 '소년교화연합회'로 출발했다. 당시 18개 종단 스님과 불자들이 함께 참여해 1969년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로 승격됐다. 초대총재 이대의 스님과 초대회장 안병호 거사는 전국 사찰단위 어린이법회와 중고등학생법회를 실시하며, 청소년불자들의 신행을 장려했다.

1970년대에는 일반학교단위 불교학생회와 전국연합회 조직을 활성화하는 한편, 문화공보부에 등록해 사찰어린이법회지도자 · 중고교생지도자 강습회를 열어 명실상부한 불교청소년단체로 거듭났다. 이후 현 총재인 현성 스님이 연합회를 1989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2011년 청소년교화연합회로 명칭 변경했다. 1994년 문화체육부장관 표창, 1996년 대한민국 최우수청소년단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 2013년에는 교육부 청소년단체활동 인증 학생 생활기록부 등재 단체로 승인받아 활동하고 있다.

청교련은 그동안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총 29회) 등을 비롯한 문화사업, 체험 · 봉사활동, 사회복지사업, 국제교류, 자살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16개 지부와 4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초 · 중 · 고교생 및 지도자 등 3만8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아울러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인 '그린비'를 통해 각종 청소년정책 및 활동사항을 평가하고, 연합회 사업 등을 직접 모니터링한다. 부설기관 및 지부 · 지회 운영시설로 서울 구로청소년수련관과 성북2동청소년공부방, 각종 어린이집, 청소년쉼터, 자원봉사센터, 유해환경감시단 등이 있다. 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가입해 여러 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총재 현성 스님은 청교련이 50년이란 세월 동안 불교계 대표 청소년단체로 입지를 다지며 청소년 교화 원력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선사들의 당부'를 꼽았다. 현성 스님은 "前 총재이신 석주 스님과 은사이신 청담 스님께서 청소년을 아끼는 마음이 지극하셨다. 청소년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바르게 클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늘 당부하셨다"며 "지금까지 이끌어온 원력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교련은 미래 50년을 새로 다지기 위해 11월 8일 오후 5시 서울 AW컨벤션센터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강춘기 초대 사진전 '한국의 야생화와 연꽃' △50주년 기념식 및 비전 발표 △후원의 시간 △힐링 멘토 마가 스님, 명상음악가 나왕케촉, 불자가수 김흥국 씨의 강연 및 문화공연 등이 펼쳐진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청소년교화연합회가 걸어온 길**

1966 소년교화연합회 창립
1969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승격
1989 사단법인 등록
1996 최우수청소년단체 대통령 표창
2011 청소년교화연합회 명칭 변경
2013 교육부 청소년단체활동 인증



지난 5월 청교련이 주최한 '청소년 전통예술 경연대회'.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하고, 값진 노력을 격려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29회째 이어졌다.

# 따뜻함 나누는 슈퍼영웅 '아이연탄맨'

## 아름다운동행, 연탄기부
## 캠페인 '아이연탄맨' 시작

올 겨울 유난히 큰 추위와 폭설이 예상된 가운데 쪽방촌은 벌써부터 겨울나기 걱정이 태산이다. 이에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 쪽방촌의 따뜻한 겨울을 위한 연탄지원 사업에 나선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쪽방촌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기부 캠페인 '아이연탄맨'을 시작한다. 올해 3회째 진행되는 아이연탄맨은 전화 한 통에 3천원으로 연탄 5장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름다운동행 측은 "현재 전국 16만 8473가구가 연탄으로 겨울을 난다. 그 중 10만여 가구는 저소득 가정이며, 특히 2만 가구 이상이 정부지원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이연탄맨 캠페인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할 계획"이라 밝혔다.



성남 장안사(주지 각평) 신도 및 어린이들은 지난 4월 아이연탄맨 캠페인에 동참했다.

한 가구가 겨울을 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연탄수는 600장이다. 이에 아름다운동행은 올해 50가정 지원을 목표로 삼고, 연탄 3만장 모연 계획을 발표했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저소득 가정의 경우 정부 지원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도 벅차다. 또한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 연탄을 떼야하기 때문에 난방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그동안 많은 슈퍼영웅들 덕분에 온기를 전할 수 있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의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후원은 ARS 060-700-0011(한 통화 3천원, 연탄 5장 기부) 또는 농협 301-0191-0387-11 및 국민은행 023501-04-236593으로 가능하다. 전화문의 (02)737-9595

한편 아이연탄맨은 지금까지 2,200여 명이 참여, 누적 합계 1만6000장 연탄이 쪽방촌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내 기증으로 누군가 살 수 있다면"

## 조혁수 씨, (사)생명나눔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난치성 혈액암 환자를 위해 생명나눔을 실천한 한 대학생의 사연이 훈훈함을 전했다.

대학생 조혁수〈사진〉 씨는 2015년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 희망걷기대회에 참여해 생명나눔 캠페인에 동참,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해 알게 됐다.

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해 기증희망자 등록을 주저 없이 택한 조 씨는 마침내 지난 7월,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하는 난치성 혈액암 환자가 나타났단 소식을 들었다.

이에 조 씨는 조혈모세포 이식 시 타인과 유전적으로 일치할 확률이 수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조혈모세포 기증 의사를 밝혔다.

"기증이 결정된 후 건강검진 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체중을 줄이고 체력단련에도 힘썼다"는 조 씨는 "나의 기증으로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 이처럼 기쁘고 뜻 깊은 일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조 씨는 재기증 의사에 대해 "조혈모세포 일치자가 나타나는 행운이 겹친다면 언제든 기증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생명나눔 측에 전했다"며 "장기기증희망등록도 이미 한 상태다. 특히 조혈모세포 기증의 경우 수혈 채취와 방식도 같아 부담이 덜해 주변에 적극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생명나눔은 10월 19일 조 씨에게 '생명나눔유공장'을 수여했다. 생명나눔은 올해 조혈모세포 실기증자 43명에도 같은 상을 수여한 바 있다.

한편 조혈모세포는 혈액을 구성하는 적혈구 · 백혈구 · 혈소판을 만드는 줄기세포로, 기능 장애시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혈액암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발병시킨다. 이 때 항암제, 방사선 등으로 병든 조혈모세포 소멸 후 건강한 세포를 이식받으면 완치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와 기증자 간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할 확률이 매우 낮아, 부모와 자식이 5%, 형제자매 간은 25% 내외, 타인과는 수만 분의 1 확률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 "서원 실천이 곧 청소년 인성교육"

## 김권태 교법사, 불교행복수업 프로그램 소개

"성공과 행복은 남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각자 새롭게 정의하고 추구해야 한다. 청소년기의 서원 실천이 이 같은 인성교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 불리는 사춘기 청소년에게 서원 실천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함께 구체적 교육프로그램이 발표됐다. 김권태 동대부중 교법사〈사진〉는 10월 21일 동대부중서 불교교육연합회가 주최한 '제46회 교학연구발표회'서 불교적 행복수업 연수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김 교법사는 교육프로그램의 대주제를 '서원(성취)' '감사(지족)' '명상(초월)'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된 불교명구와 이야기를 제시, 행복의 의미를 차근차근 확장해 음미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서원하기'는 〈태장계생기〉의 '상구보리 하화중생 자리이타'를 제시하고, 〈관음본연경〉 속 관세음보살의 서원 이야기로 이어진다. 소원과 서원을 구별하면서 사홍서원을 바탕으로 각자 이루고 싶은 것, 나의 성취로 함께 이로워지는 것 등을 나열한다.



'감사하기'는 〈대장엄론경〉의 문구와 함께 〈백유경〉 속 '꿀을 달이는 사람' 일화를 소개했다. 지족과 관련된 문장 사경 · 행복액자 만들기 · 연기법적 시쓰기 등의 방편을 제시했다. '명상하기'는 묘비명 쓰기, 다양한 명상법, 대화법 등으로 활동지를 적도록 안내한다.

김 교법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라 자기만의 서원을 찾아 작은 것부터 실현해 나가는 '성취', 현재의 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아는 '지족',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초월'은 성인도 평생 가꾸어야할 주제"라며 "행복의 개념은 자아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중학생 시절부터 미리 탐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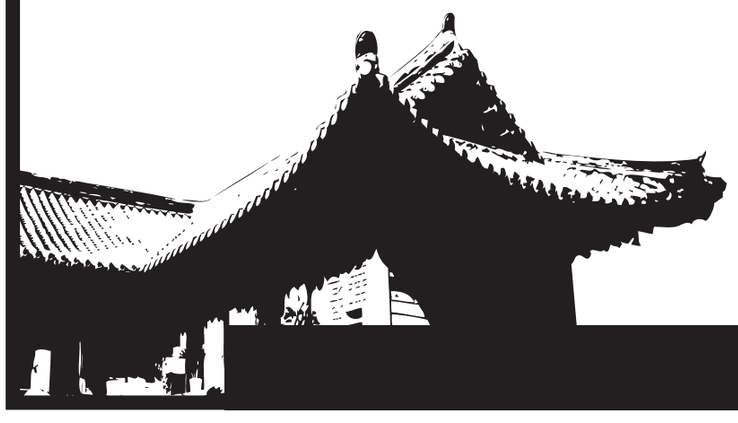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연기수행, 괴로움 떨칠 불교 정신 치료법

## 참불선원 인문학강좌… 정신과 의사가 보는 선정(禪定)

전현수 정신과 전문의

불교에서는 흔히 '있는 그대로 보라' 고 강조했다. 무엇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일까? 호흡하며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명상의 시작이다. 그리고 괴로움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 선정에 든다. 이를 정신치료에 접목할 순 없을까? 전현수 정신과 전문의는 10월 24일 서울 참불선원 인문학강좌서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연기수행을 익히면 인간 중심, 현생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죽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면서 "이는 곧 우리 스스로 괴로움을 짓지 않게 하는 효과적 정신치료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리=이승희 기자



**전현수 정신과 전문의**는… 경남고를 졸업하고 부산대서 의학 학사를 받았다. 한양대 대학원서 의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으며, 1990년부터 전현수신경정신과의원 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법원행정처장 감사장을 받은 바 있다.

### 부처님 가르침 핵심 '사성제'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전인 1985년에 초기불교경전 〈니까야〉를 읽고 부처님 가르침이 진리임을 확신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경험하고 공유하고자 한 보편적 진리에 대한 확신을 토대로 불교심리치료 방법을 연구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수행에 돌입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들에 있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3종외도, 6사 외도 등 '어쩔 수 없는 일들' 에 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성행했습니다. 이들은 잘 아시다시피 전지전능한 신이 세상을 관장한다는 '존우론' ,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숙명론' , 세상 모든 일은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는 '무인무연론' 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가만히 사정을 들여다보면 모든 일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 란 개념도 우리 몸과 마음이 모두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서 설하신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사성제(四聖諦)입니다. 부처님은 처음 깨달음을 얻고 난 직후 설법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법도와 반대인 자신의 깨달음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범천이 간곡히 설법을 청하자 맘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첫 법문서 '내가 사성제를 확실히 깨달았기에 모든 이에게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다' '내가 사성제를 몰랐기에 끝없는 고통을 받았다' 고 말하셨습니다. 부처님과 가장 비슷한 경지에 오른 제자 사리불도 코끼리 발자국을 빌어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 안에 들어가듯 사성제에는 모든 법이 다 포함된다' 고 말할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사성제를 확실히 알아야 성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수행은 정확히 말해 '알고, 보는 것' 입니다. 수행을 했다면 모든 게 명확히 눈에 보여야 합니다. 사성제도 마찬가지로 직접 알고, 보는 수행입니다. 사성제에는 고성제(苦聖諦), 집성제(集聖諦), 멸성제(滅聖諦), 도성제(道聖諦)가 있습니다.

먼저 고성제란 괴로움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피할 수 없는 존재란 사실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불교 공부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괴롭지 않으면 절대 수행하려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괴로움에 대해 잘 느끼고 인간으로서 고통을 벗어나겠단 생각을 가져야 비로소 수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고통에 대한 이해만큼 불교를 이해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통이란 구체적으로 생 · 노 · 병 · 사 4고와 원증회고(怨憎會苦,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고통) · 애별리고(愛別離苦,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 구부득고(求不得苦, 생각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고통) · 오온성고(五蘊盛苦, 자기중심적 집착서 생기는 고통)를 합한 8고를 말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뿌리는 색(色) · 수(受) · 상(想) · 행(行) · 식(識)의 5온입니다. 이는 갈애로부터 형성됩니다.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을 이 갈애로 봅니다. 갈애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결핍을 뜻하며 12연기 사슬의 원인이 됩니다. 12연기는 무명(無明)→행(行)→식(識)→명색(名色)→육입(六入)→촉(觸)→수(受)→애(愛, 갈애)→취(取)→유(有)→생(生)→노사(老死)의 십이지(十二支)로 이루어진 윤회의 사슬이며 이들 과정을 정확히 관찰하면 집성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관찰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정과 위빠사나를 수행하다보면 괴로움이 없는 경지가 오는데, 무명이 완전히 없어진 이 경지가 멸성제입니다. 도성제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정견(正見) · 정사유(正思惟) · 정어(正語) · 정업(正業) · 정명(正命) · 정념(正念) · 정정진(正精進) · 정정(正定)의 팔정도를 제시합니다.

### 선정으로 지혜의 눈 뜨자

부처님 진리를 깨닫기 위한 선정에 대해 들었을 때 처음엔 '난 할 수 없어. 선정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투자하면 누구든 선정을 경험할 수 있단 말에 꾸준히 시간을 들여 선정을 경험했습니다.

선정의 핵심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마음은 본질상 한 번에 한 곳에 놓입니다. 다른 곳에 놓인 마음을 선정 훈련을 통해 한 곳에 완전히 모으면 선정 상태에 든 겁니다. 부처님은 이 선정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이 보편적 진리인지 연구하시며 수행하셨습니다. 전 지극히 지혜로우신 부처님께선 중생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어떤 것도 권하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선정에 임했습니다.

선정을 닦으면 지혜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 육안으로 본 세상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선정으로 현미경을 선물하신 겁니다. 우리가 선정에 든 상태를 흔히 삼매라고 표현하는데 삼매엔 3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순간삼매, 근접삼매, 본삼매로 선정은 본삼매의 경지입니다.

> "괴로운 삶을 사는 이들에게 선정으로 연기법 이해시키면 고통의 원리 알고 받아들여 극단적 선택 단념하는 효과"

수행을 하면서 스승님께 삼매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니 '삼매의 목적은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 이라고 답변하시더군요. 선정을 닦은 후 바라본 세상은 물질의 궁극적 형태는 물론 정신의 궁극적 형태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생, 미래생도 보고, 궁극적으로 세상이 매번 사라짐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과학으로 따진다면 현대물리학적 관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주 미세한 세계와 거시적 세계를 통찰할 수 있습니다.

수행지침서 〈청정도론〉엔 선정을 닦는 방법으로 40가지를 소개합니다. 저는 그 중 특히 '아나빠나사띠(들숨날숨 마음챙김 수행)' 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대념처경〉서 부처님이 호흡 알아차리는 법을 중요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일단, 숨을 길게 들이쉬고 내쉬면 숨을 길게 들이쉬고 내쉰다고 압니다. 또 숨을 짧게 들이쉬고 내쉬면 숨을 짧게 들이쉬고 내쉰다고 압니다. 이렇게 숨의 전 과정을 알면서 숨을 들이쉬려고 노력하고, 숨의 전 과정을 알면서 내쉬려고 노력합니다.

이후 미세한 숨이 되게 하면서 숨을 들이쉬려고 노력하고, 미세한 숨이 되게 하면서 내쉬려고 노력합니다. 숨이 잦아들다가 없어진 곳에 빛이 보이게 되는데 그땐 이 빛에 집중합니다. 선정은 이러한 단계를 무수히 밟아 자동으로 집중 상태에 드는 경지를 가리킵니다.

이외 선정을 경험하는 방법으론 몸의 32상 알아차리기, 까시나 수행, 무색계 선정 수행, 4범주, 4보호 명상, 사대수행 등이 있습니다. 물질수행을 위해 사대수행을 하면 물질의 28가지 구성체(구체적 물질 18개, 추상적 물질 10개)가 보입니다. 처음에 사대수행을 할 땐 지 · 수 · 화 · 풍 성질을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지' 는 단순히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질의 특성이나 에너지로, 땅에 깃든 단단함, 거침, 부드러움, 매끄러움, 무거움, 가벼움의 6가지 성질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선정에 들어 마음의 눈으로 몸의 32상 전체를 떠올리다 단단함을 떠올리면 정확히 그 성질을 찾아들어 갑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 전 지혜의 눈을 믿을 수 있겠단 확신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깔라빠를 보는 단계인데, 깔라빠란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빛 덩어리라도 깔라빠 단위로 깨지면 개개의 깔라빠들로 구별되면서 더 큰 빛이 방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깔라빠 내에서 또 지수화풍의 성질을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를 순간삼매로 봅니다.

### 선정, 존재의 진실 알려

저는 이러한 수행 과정을 거치며 불교 정신치료의 핵심으로 연기수행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존재는 언제나 원인과 결과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들 의지나 생각이란 이유 없이 불쑥 혹은 단독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기수행법으론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맛지마 니까야 38번째 경인 〈갈애멸진의 긴 경〉서 말하는 4가지 방법과 사리불 존자가 말한 수행체계 논서 〈빠띠삼비다막가(무애해도,無 u解道)〉가 그것들입니다. 파욱 사야도 큰스님은 마지막 방법으로 연기를 식별할 때 5온으로 식별해야 한다고 방법을 말해주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무명, 갈애, 취착, 행, 업 등의 이유서 미래의 식, 정신-물질, 6가지 감각장소, 접촉, 느낌 등 결과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궁극적 실재인 정신이 아닌 사람이란 물질로 바라보는 시각이 '무명' 입니다. 불교 공부하는 사람의 삶에 애착을 가지는 '갈애' 서 다음 마음 연결 물질이 나옵니다. 이런 갈애가 계속되면 '취착' 으로 변하며 취착의 업에서 생긴 물질이 '행' 을 일으킵니다. 행이 일어나므로 업이 일어나게 돼 여러 가지 마음부수가 결과로 나타납니다. 선정에 들면 이들을 과정마다 식별하고, 또 이들이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연기수행이 우리 삶의 태도에 주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뭘 봐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모든 것을 현생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며, 죽음을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고통으로 인해 자살이란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괴로움이 불가피하단 이유를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럴만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선정수행을 통한 정신치료는 우리 스스로 괴로움을 짓지 않게 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지면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권 재창출의 眞과 邪"

■ 眞(진 / 참됨) : 자신도 복되고 국민과 나라에 행복을 안겨줌.

산승이 시시비비에 관여하고 싶진 않지만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개헌 논의를 착수하신다니. 대통령 연임과 함께 국회의원[정족수 절반(150석 이하)으로 줄이기 / 보좌관 줄이기(3/1이하) / 특권 거침없이 내려놓기 / 세비절반으로 줄이기 ], 불법집회 집단에 대한 피해보상과 함께 법적 책임지기를 제안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근면 성실함은 세계가 알아줌이라, 국가지도자들께서 사견을 떠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지혜를 모아주었다면 최상의 선진국반열에 있을 것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머리 숙이다가 당선 뒤엔 이권 챙기기에 귀하신 몸들이라 국민위에 군림하며 부와 명예마저 거머쥐고자, 온갖 특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정권 제 창출인양 격투기를 연출하고 있음은 국민들까지 위험 속으로 끌고 가려 함을 잊고 계신 것은 아닌지? 상기 개헌사항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 대통령 꿈을 가지신다면 산승이 세속에 뛰어들어서라도 필승하도록 돕겠습니다.

■ 邪(사 / 삿됨) : 자신의 부귀를 위해 국민 · 국가에 해악을 입힘.

나라 살림 잘 챙기라고 표를 주었더니 왕의 자리 탈취, 사드배치반대, 국정 발목 잡기, 진실 왜곡하기, 다수의 힘으로 불의를 정당화하기, 북한 편들기, 기득권 쟁탈 등등에 국력을 소모시키고 있으니 어찌 국민들 가슴속이 멍들지 않겠어요.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상승세를 타고 있건만 삿된 욕심에 가로막혀 현명한 분들이 격투기를 벌이고 있음을 많은 국민들이 근심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집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점이라 어리석은 행위에 박수치고 있음에도 일부 지도자들의 삿된 욕심이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조차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 邪 : 지난 간 세월, 국력을 소모시킨 사안들을 몇 가지 들추어 볼까요. 세만금방조제건설, 제주도해군기지건설, 밀양송전탑설치 등 국책사업과 연평해전, 광우병소동, 세월호참사에 유언비어를 퍼트려 나라를 혼란하게 만든 정치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불법집회단체들이 반대만을 위한 선동투쟁으로 조국에 해악을 끼친 사안들, 인적 물적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숫자임을 지도자들께서 잊고 있지는 않으신지? 더더욱 국가의 안위가 걸린 사드배치에 또다시 반대세력들까지 가세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음은 나라를 위험 속으로 몰아가는 행위임을 모른다는 것인지? 알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 속에 자신들의 이권만을 차지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군요.

■ 邪 :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과거를 들추어 볼까요. 국방력 강화를 소홀히 한 죄업으로 7년의 전화 속에서 강산이 초토화 되고 광야에 버려진 죄 없는 수백만 백성들의 시신과 함께 산하대지가 피로 물든 참상을 겪어야만 했던 전철을, 또다시 밟으려하는 반대자들의 작금의 상황이 오백여년 전, 당파싸움만 하다 임진왜란을 불러일으킨 조선왕조 정국과 유사한 점이 있음을 우리 모두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젠 사드배치와 함께 국방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정면 돌파만이 북한의 도발야욕을 분쇄하여 이 땅에 평화와 함께 통일을 이룰 수 있음이라 산승이 사드배치지역 울타리 안 초옥에서 북한정권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 까지 기도 하면서 전자파가 안전하다는 것을 밝혀주고자 합니다.

※ 국방력강화와 민생을 소홀히 한 왕과 대신들이 피난길에 오른 후, 죄 없는 백성들만 전화 속에서 생존을 위해 인육까지 먹어야 했던 참상은 누구의 죄인가?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약 63,000곳), 사찰(9,000여곳). 성당(1,600여곳)과 그 외 여러 종파의 지도자들께서 국민의 화합과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나라가 안정된 평화 속에서만이 자유로운 종교 활동이 가능합니다. 반세기(66년)전 권력욕에 집착한 김일성집단이 외세를 등에 업고 조국산하를 피로물들인 동족상잔의 참상을 일으킨 전범들 때문에 전선에서 조국을 지키다 적의 총탄포화에 산화한 수많은 영영들이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며 호곡하는 소리가 산승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작금, 대통령 행보를 보면 외교는 잘하고 계시나 내치에 허점이 들어나면서 지지도추락과 함께 경기침체에 따른 민심의 이반이 심화되고 있음을 주변의 가신들이 숨기고 계신지? 아니면 아집과 교만에 독단까지 더해가는 대통령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시길!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겠지만 회복할 시간은 있음이라 잘못이 있는 가신들 내치시고 인재를 대통령 머리 밖에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불통의 아집 때문에 친박/비박하며 격투를 벌이는 형제 난까지 불신을 키움이라, 모두를 내려놓으시고 대화의 장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변복으로 민정을 살펴 국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자 고뇌하셨던 선친의 아름다운 선정과 함께 딸 또한 훌륭한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길이길이 기억되길 산승 기도합니다.

6.25전쟁도 당시 남한 내(권력욕에 휩싸인 정치인들과 무뢰배들의 난동)에 북한을 옹호하는 지지자들이 많다고 생각한 김일성집단의 오판이 빚어낸 참극이 무서운 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내 조국, 반세기에 이룩한 아름다운 산하를 파괴하려는 내부 불만세력들과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막아야 합니다. 붉은 화로에 떨어지는 눈송이와 같이 사라지는 세월! 해가고 달 가듯이 100년의 인생살이도 풀잎에 맺힌 이슬이라 부귀공명 또한 이와 같음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아무 것도 가져갈 순 없지만 지은 업장만은 따라감이라 삿됨 버리시고 국가의 안위와 번영을 위하여 국가지도자들께서 지혜의 힘을 모아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나라사랑연합협의회 산하 관음사 송 몽 합장 (010-2124-1171)

## 영규 대사와 800의승 역사적 진면목 조명

### 11월 4일, 세미나 개최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와 윤상현 국회의원실은 11월 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영규대사와 800의승-그 역사와 가치를 조명한다' 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의병장 조헌과 700의병에 비해 조명을 받지 못하는 영규대사와 의승군들의 활약과 호국정신을 조명하기 위해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양은용 원광대 명예교수가 '임진왜란 시기 의승의 활동과 역할' 을,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영규대사와 의승의 청주성 · 금산전투' 를, 김상영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가 '임진왜란 참전 의승의 공적과 추념사업' 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윤용출 부산대 역사교육과 교수, 손성필 한국고전번역원 선임연구원,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가 참여한다.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는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영규대사와 의승군들을 다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불연 이기영 20주기 국제학술행사 열린다

### 한국불교硏, 11월 5일 개최

한국 불교학 1세대인 불연 이기영 박사 20주기를 맞아 국제학술행사가 열린다.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태승)은 11월 5일 오전 10시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보살-대승불교 수행자의 이상' 을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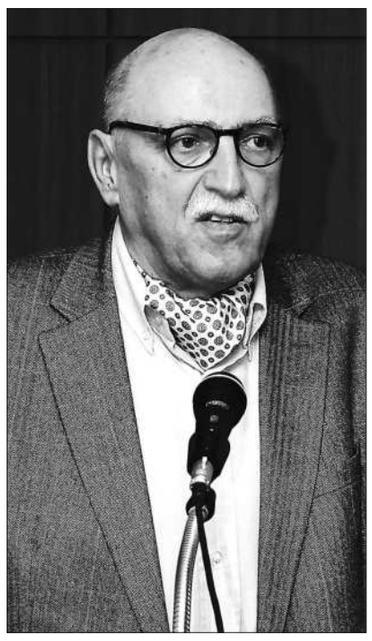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안성두 서울대 교수가 '유가행파의 보살 : 무착의 전기에 보이는 공성의 통찰과 대비심' 을, 크리스티나 셰러 숍 로잔느 대학 교수가 '샨티데바의 승천 : 인습을 초월한 철학자 보살' 을, 권탄준 금강대 명예교수가 '삼계교 신행 스님의 보살행과 사회적 실천' 을, 남동신 서울대 교수가 '원효, 성속불이의 거사불교' 를, 베르나르 포르 컬럼비아대학 교수가 '보살에 대한 인식 변화 : 중국과 일본의 경우' 를, 정호영 충북대 교수가 '보살 그는 누구인가 : 불연 이기영 선생의 보살관' 을 발표한다.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이어 오후 5시부터는 이기영 박사 20주기 기념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02)762-5624

신성민 기자

# 세계 석학들 인도 · 초기 불교 흐름 말하다

## (재)리앤원, 10월 21 · 22일 '인도 고대불교 찾아서' 워크숍 · 강연



하리 팔크 독일 베를린대 명예교수

"아쇼카王 이전 석조물 없어 석조 조각 · 명문 등 '혁신' 이뤄 불교 숭앙… 미신 배척 문구도"

인도불교사와 불교문헌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하리 팔크(Harry Falk) 독일 베를린대 명예교수와 리처드 살로몬(Richard Salomon) 미국 워싱턴대 교수가 방한했다.

이들은 (재)리앤원이 10월 21~22일 '인도 고대불교를 찾아서' 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워크숍 · 강연회에 참석해 인도와 초기불교 연구 현황 등을 대중들에게 소개했다.

특히 불자와 일반 시민들을 위해 10월 22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는 아쇼카왕 이후의 인도 종교 변화와 간다라 지역에서 나온 불경 필사본에 대한 연구를 각각 강연했다.

'돌에 새긴 제왕의 말: 아쇼카와 당대 인도 종교의 흐름' 을 주제로 강연한 팔크 교수는 아쇼카왕이 인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팔크 교수에 따르면 석주 칙령으로 대표되는 아쇼카왕 이전에는 인도에서는 석조 건물이나 조각이 없었다. 무속이나 미신 등 전통 종교들이 민간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불교를 숭앙했던 아쇼카왕은 처음부터 석주를 세우지 않았고, 암석에 자신의 메시지를 새겼다.

이에 대해 팔크 교수는 "아쇼카는 암석에 새긴 명문에서 신과 합일을 이르려면 승가에 귀의할 것을 비롯해 이전의 전통 종교와 무속, 동물 공양 등의 저급함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쇼카로 인해 비로소 석조 조각과 석각 명문 관습이 시작되고 브라흐미 문자도 고안됐다는 게 팔크 교수의 설명이다. 석각과 석주 유적들은 이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팔크 교수는 "아쇼카는 인도 문자의 발명자이자 창시자"라면서 "4면 사자상 석주는 이오니아 석공들이 인도로 넘어와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전 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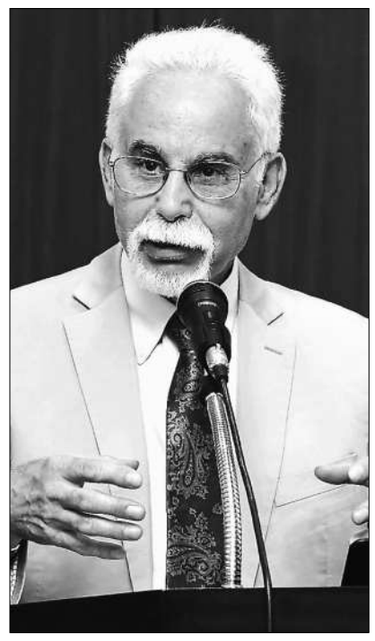
살로몬 교수는 '초기 불교경전 필사본 연구의 성과와 전망' 을 통해 1994년 영국박물관에서 발견한 간다리어 불경 필사본을 소개했다.

간다리어는 인도 서북지역의 방언으로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 불교 문헌에 사용된 주요 언어 중 하나였다. 간다리어는 중기 인도-아리아 언어군에 속하는 것으로 산스크리트어에서 파생돼 팔리어 등과는 자매관계에 있다는 게 살로몬 교수의 설명이다.

살로몬 교수는 "1990년대 이전까지는 간다리어 필사본은 하나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몇 가지가 더 발견됐다"면서 "이에 따라 팔리어로 기술된 상좌부 대장경이 가장 오랜 불교 경전이라는 학계의 추정들이 재고하게끔 됐다. 실제 북방 전통 문헌 중 일부는 가장 이른 시기의 팔리어 필사본보다 연대가 훨씬 올라간다"고 밝혔다.

살로몬 교수는 필사본 연구가 '많은 불교(Many Buddhism)' 을 알 수 있게 하는 단초라고 했다. 그는 "현재 발굴된 간다리어 필사본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들 필사본은 '많은 불교' 가 존재했고, 우리가 아는 불교는 극히 일부라는 것을 보여준다. 초기 불교 전래 당시에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불교 분파와 문학, 교리 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리처드 살로몬 미국 워싱턴대 교수

"1994년 간다리어 필사본 분석 다양한 언어로 경전 필사됐을 것 생각보다 많은 형태의 불교 존재"

## '대장경' 비편, 흥전리사지 면모 실마리 되나

### 불교문화재硏, 유물 공개… 신라왕경 동급 유물 확인

지난 5월 완전한 형태의 국보급 통일신라 청동정병이 출토된 강원도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대장경'(大藏經)' 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비석 조각이 나왔다. 이는 흥전리사지의 면모를 푸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일감)와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10월 25일 삼척 흥전리사지 발굴 현장에서 '대장경' 비편과 방곽 아궁이를 갖춘 대형 온돌 건물지 발굴 성과 등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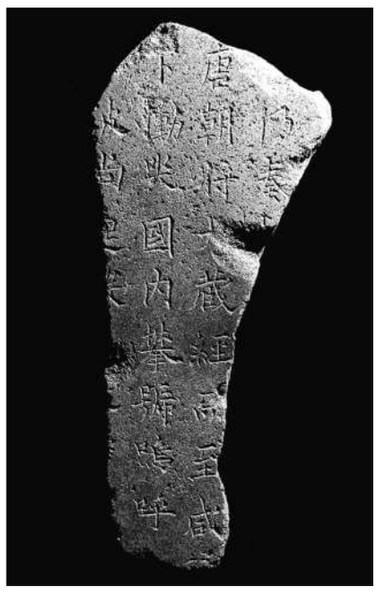
지난 8월 9일 착수한 이번 발굴 조사는 청동정병이 출토된 동원 1호 건물지의 서편과 서원 탑지 주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유구로는 방곽 아궁이를 갖춘 대형 온돌 건물지와 남북으로 긴 측면 1칸의 건물지 1동, 담장, 지정시설 등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흥전리사지에 주석했던 스님에 대한 실마리를 보여주는 '당조장대장경이지함(唐朝將大藏經而至咸)' 이 새겨진 비편과 귀면와(鬼面瓦), 가릉빈가상수막새 등 통일신라 시대 유물이 다량 출토됐다. 이 유물들은 제작기법이나 조형적인 면에서 매우 완성도가 높아서 신라왕경(경주 지역)에서 장인이 파견돼 제작됐다는 게 불교문화재연구소의 판단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비조각들을 통해 흥전리사지에 주석했던 스님은 김씨 성으로 신라왕경의 명문집안 출신으로 추정된다. 그는 당나라에 유학했으며, 당나라 대장경과도 접촉했고, 신라 최고 승정 지위인 국통(國統)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귀족 김氏 스님 주석 추정돼**
**동아시아 불교 교류 중요단초**

불교문화재연구소는 "현존하는 통일신라 시대 비문 중에서 '대장경' 이 언급된 것은 '대안사적인선사조륜청정탑비' 뿐"이라며 "이번에 출토된 비문 등을 통해 당시 선진문물인 당나라의 대장경에 대한 통일신라 승려들의 접촉과 연구가 지속해서 있어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발견된 '대장경' 글귀가 새겨진 비 조각. 흥전리사지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초다.

동원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통일신라 시대 온돌시설이 확인됐다. 이번에 조사한 2호 건물지에서는 판석으로 만든 방곽 아궁이와 'ㄷ자' 형의 불길과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는 구들이 조사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흥전리사지는 창건 초기부터 폐사까지 기간이 짧은 탓에 유구가 중복되는 등 변형이 적어 통일신라 시대 건물지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미 발견된 '국통' 비조각과 섬세하고 화려한 장식의 금동번, 통일신라 청동정병 등을 통해 흥천리사지가 통일신라시기 위세 높은 사찰였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문화재연구소와 삼척시는 흥전리사지의 성격 규명과 올바른 정비 방안 도출을 위한 학술대회를 내년에 개최하며, 현장에 방치돼 있던 삼층석탑과 귀부(龜趺), 석등 같은 문화재들에 대한 복원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문화재 전담수사관 전문 교육 첫 시행

### 전통문화교육원, 10월 24~28일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류춘규)은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소속 문화재 전담수사관 24명을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문화재 전담수사관 연수 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전담수사관의 문화재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번 연수 과정에서는 고서, 회화 등 동산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에 관한 이해와 문화재 관련 법령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론 수업이 진행됐으며, 수사관들이 동산문화재의 관리와 보관 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실무 중심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유적 답사도 이뤄졌다.

이번 연수에 대해 전통문화교육원은 "앞으로도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문화재 전담수사관 연수 과정을 마련해 문화재 범죄의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4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 |
|---|---|
| 기본과정 (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 (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 신행과정 ( 1 년 )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특수작법 ( 1 년 )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11월 30일까지

◆ 강의일시 :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사)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불기2560(2016)년 병신년 동안거 재가안거 수행**

(사)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에서는 재가불자들의 신심증장과 수행풍토조성을 위해 재가안거 수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안거부터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실천수행을 강조하고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재가불자들에게 수행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가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기 간 : 동안거 기간과 동일
**2016년 11월 14일**(월, 음 10. 15) ~ **2017년 2월 11일**(토, 음 1. 15)

■ 동참금 : 2만원

**입 재 식**

● 일 시 : **11월 8일 (화) 오후 2시**
● 장 소 : **홍 법 사**
● 법 문 : **지홍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 재가안거 수행프로그램을 회향하신 분들에게 수여되는 안거증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인정을 받게 됩니다.

■ 참여한 재가자들에 한해 수행록 제공.

**(사)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사무국 ☎ 051)501-7554

# 울산 해남사, 민족불교도량 역사 재조명

## 10월 26일 개산 105주년 영산재 봉행

**한일합방 후 1911년 구하 스님 창건**
**자료 없어 1935년으로 기록 오류**
**영산재 통해 '개산 105주년' 천명**
**울산 수해 지역 복구 기원 기금 마련**
**동국 유치원 및 문화회관건립 추진**


울산 해남사는 10월 26일 경내에서 '울산 재해극복과 무사안녕을 위한 영산재'를 봉행했다.

울산 해남사(주지 남현)가 개산 105주년을 맞아 영산재를 봉행하고 창건 역사를 재조명하며 '민족불교도량'임을 선포했다. 아울러 수해 피해 지역민을 위한 회향의 자리로, 울산 재해극복과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영산재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불자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피해복구를 위한 의지에 동참해 더욱 의미가 깊다.

해남사는 10월 26일 법당 앞마당서 개산 제105주년 '울산 재해극복과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영산재'를 개최했다.

영산재에 앞서 10월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서 주지 남현 스님은 "해남사는 일제 시대 민족교육장으로 창건된 도량이다.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영산재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남현 스님은 "해남사는 구하 스님이 통도사 포교당 가운데 제일 먼저 창건한 곳이다. 1911년 10월 통도사 울산 포교당으로 창건됐으나 일제시기 기록물이 남아 있지 않아 현재까지 창건일이 1935년으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이어 스님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 창건 이념을 되살리고, 앞으로 동국 유치원 재개원 및 문화 회관 설립을 추진해 도심포교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서원했다.

이를 위해 남현 스님은 〈포교구현황 일람표〉(조선불교월보, 1913년 8월)서 '1911년 10월'이 해남사 개산일임을 발견해 자료로 제시했다.

남현 스님은 "1910년에 한일합방 후 이를 안타깝게 여긴 구하 스님께서 1911년에 울산에 민족불교도량으로 해남사를 창건하셨다. 이 후 불교 소년단, 야학원, 고등강습회, 해영학원, 유치원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설립해 민족교육장으로 활동했다"며 "구하 스님과 이곳서 활동하며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재를 올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전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영산재는 오후 2시 까지 총 5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대북, 태평소, 아쟁, 대금 등이 어우러진 태평무 속에 육법공양으로 작법이 시작됐다. 무형문화재 영산재 이수자인 상묵 스님의 범패로 상단불공과 신중 작법이 시작됐으며 부산시립무용단 부수석 장례훈 외 무용단이 펼치는 바라춤과 나비춤, 관음무, 선비춤이 이어져 박수를 받았다. 이어 관음시식에서 살풀이춤과 극락무가 재현됐으며, 영가봉송에선 부모은중경, 회심곡에 따라 연(가마)에 영가들을 태우고 봉송과 소대를 끝으로 회향했다.

남현 스님은 "오늘 이 자리 영산회장에 참여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동국 유치원을 재건하고 문화회관을 불사해 앞으로 여기 서 있는 땅 모두가 부처님의 도량이 될 때 까지 울산 포교당 주지로서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동국 유치원은 2009년에 80년 역사를 잇지 못하고 휴원해 울산 불자들의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다. 울산 시민의 문화공간이자 포교 공간으로 구상하고 있는 문화회관 건립도 원만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한편 해남사는 10월 22일 설법보전에서 거사림회 '유마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초대 회장에 박소흠 한국중고농구연맹회장이 임명됐다.

하성미 기자

# 부처님 향한 하모니의 향연 펼치다

##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11월 15일 합창제 개최



2016년 부산불교합창제 포스터

깊어가는 가을,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부산 불교합창단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박화자 · 이하 합창단)는 '2016년 부산불교합창제'를 11월 15일 오후 5시 부산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서 개최한다. '생명 · 사랑 · 나눔 · 보시'를 주제로 여는 이번 합창제는 범어사, 문수사, 동명불원 등 부산에 위치한 사찰 18개 소속의 합창단들이 연합으로 참가하며, 80여명의 단원들이 하나가 돼 불심을 노래하는 장엄한 무대다.

합창단은 먼저 귀에 익숙한 가요 '내가 만일'을 편곡해 선보이며 '영겁을 하루 같이', '아름다운 나라' 등 다채로운 곡을 준비한다. 가장 주목할 곡은 피날레를 장식할 이찬우 작곡가의 '어느 암자의 사계절'이다. 이 곡은 고즈넉한 산사의 계절을 묘사하며 어느 노 스님과 동자 스님 간 대화로 구성된 총 14분의 대곡이다. 또한 기승전결 스토리가 담겨 서정적이고 장엄한 곡으로 알려져 있다.

합창제는 개회식과 1부 특별공연, 2부 합창단의 무대로 이어진다. 먼저 부산 대원사 선재 어린이합창단의 무대로 문을 열어 각 내빈의 축사가 진행된다.

특별 공연에는 범어사 합창단, 불교BTN 남성중창단, 통도사 우담바라합창단, 서울 제니스합창단, 그리고 독창으로 바리톤 유용준 성악가가 특별 출연한다. 유용준 바리톤은 이탈리아 밀라노 G.Verdi 국립 음악원에서 오페라를 전공하고, 이탈리아 밀라노 G.Donizetti 아카데미서 합창 지휘와 뮤지컬 등을 전공한 재원이다.

아울러 이번 부산불교합창제를 계기로 '로터스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단장 정희보)가 새롭게 결성됐다. 43인조 관현악단으로 구성된 이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합창 중심으로 이어진 불교음성포교에 관현악 선율을 더해 풍성함을 꾀한단 계획이다.

한편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1999년 2월 창단해 매년 합창제를 개최한다. 2001년 12월 '전국불교합창제를 시작으로 2002년 3월 이태리 '리바델 가루다 국제합창제'에 참가해 Silver 9상을 수상했다. 이후 2002년 10월 세계합창올림픽에서 동메달, 2004년 9월 독일 브레멘에서 열린 제3회 세계합창올림픽대회에서 종교음악 불교부문 동메달을 수상했다.

박화자 단장은 "이번 합창제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오랫동안 닦아온 지극한 수행력과 음성포교의 원력을 펼치는 자리"라며 "공연을 통해 단원들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새로운 발심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합창제는 무료로 진행되며 화환 대신 받은 쌀과 후원금은 모두 부산시청에 전달, 소외이웃에게 회향될 예정이다. (051)867-0501

하성미 기자

# 대구 금정사, 개원법회 및 점안식


대구 금정사 주지 도성 스님은 10월 22일 개원법회 및 점안식을 봉행했다.

대구 금정사 주지 도성 스님은 10월 22일 개원법회 및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용주사 문중 본원 스님, 홍법 스님, 만도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주지 도성 스님은 "부처님 인연으로 함께 불사해 준 신도들과 문중 스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원이차인연공덕으로 세세생생 무량복덕 지으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용주사 본원 스님은 "불교는 과학적인 고등종교, 위대한 종교"라며 "자기를 찾는 가르침이 반야심경과 팔정도에 다 있으니, 오늘 모인 사부대중이 육바라밀을 실천해 불성을 일깨워 바라는 대로 이뤄질 수 있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제2회 해운정사 불조심인전등다례재

## 불조의 뜻 이어 국태민안 및 세계 평화 발원


부산 해운정사는 10월 23일 불심인조사전 앞에서 '제2회 불조심인전등 다례대재'를 개최했다.

108명의 불조 전등, 심인법의 주인공들을 추모하는 특별한 다례재가 봉행됐다.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가 주석하는 부산 해운정사는 10월 23일 불심인조사전 앞에서 '제2회 불조심인전등 다례대재'를 개최했다. '불조심인전등 다례대재'는 불조(佛祖)의 정맥을 되새기고 불교의 전통문화와 도심 선포교, 선의 세계화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엔 진제 대종사를 비롯해 원로회의장 밀운 스님, 서병수 부산시장 등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진제 스님은 "전통 심인법이 한국에 남아 세월이 흘러도 그 열매가 풍성하다"며 "앞으로 부처님의 정통심인법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며 부처님의 염화미소가 면면히 이어지길 발원한다"고 설법했다.

원로 의장 밀운 스님은 "작금의 사바는 국가는 국가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폭풍우 치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쪽배처럼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렸다"며 "이러한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는 중생들의 삶에 등불이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 팔공산 지장선원, 당산제 및 효도잔치


팔공산 지장선원은 10월 23일 제2회 산신7일기도 회향 당산제 및 효도잔치를 개최했다.

팔공산 지장선원(선원장 지공)은 10월 23일 제2회 산신7일기도 회향 당산제 및 효도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천사 소소 스님, 자광사 송광 스님, 무량사 지원 스님, 보현암 선진 스님, 지역단체장, 홍사단 애기애타 웃음봉사단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선원장 지공 스님은 "산신7일기도 회향을 맞아 마을의 고유 민속문화인 당산제를 개최, 지역어르신들과 소통 · 화합 · 단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안락한 행복을 기원하는 잔치에 함께 해준 어르신과 대중들에게 깊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울산 정토사, '독도의 날' 기념식 열어

## 사)독도중앙연맹 이수광 총재 강연 진행

울릉도 · 독도수호박어둔선양회(회장 덕진 · 이하 박어둔선양회)는 10월 27일 정토사 대웅전 앞서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사)독도중앙연맹 이수광 총재의 특별 강연을 마련했다.

이수광 총재는 독도를 알려야 한다는 신념으로 40여년 동안 독도 사랑의 외길을 걷는 장본인이다.

이 총재는 독도수호를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를 피해야 한다며 "영토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국제사법 재판소는 일본이 연간 재정의 3분의 2를 지원하고 있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 또한 영토문제에 대해 양국 합의화를 종용한다"며 "우리 영토인데 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냐"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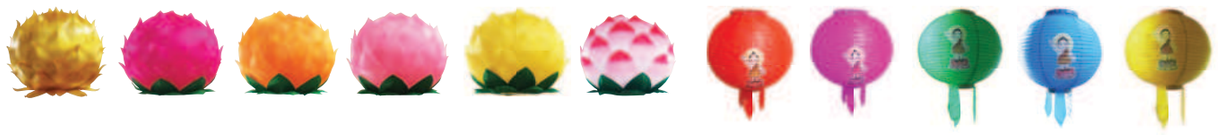
이어 "독도는 현재 경찰이 국토를 수호한다. 영토는 군이 지켜야 하는 것이다. 군인이 주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토사는 제5회 전통음식문화 한마당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정토사 전통음식연구회원들의 사찰음식 및 약선요리 100여점이 선보였으며, 음식 전시 외 각종 차 시음 및 꽃차 전시회 등 다양한 체험 코너도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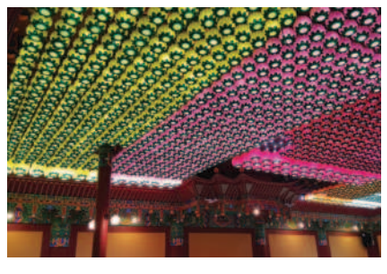
하성미 기자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뛰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2017 카렌다 주문 접수
카렌다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 “국태민안 · 전법도생 위해 정진”

### 김제 금산사, 10월 22일 1417주년 개산대재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미륵도량인 김제 금산사가 개산 1417주년을 맞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금산사(주지 성우)는 10월 22일 백제 법왕원년(599년) 왕실의 자복사찰로 창건된 이래 조사스님들이 중생 구제를 위해 진력한 위법망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고귀한 유지를 계승하는 개산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개산대재는 역대 금산사에서 수행한 조사스님들에 대한 다례재와 부도전 참배에 이어 개산 1417주년 기념예참, 육법공양, 기념대법회 순으로 진행됐다.

개산대재에는 조실 월주 스님,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본말사 대중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정동영 · 이춘석 · 유성엽 국회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건식 김제시장 등 정관계 인사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세계는 물론 종교간, 남북간, 지역간, 집단간, 개인간의 반목은 정체성을 바탕으로 상호불신에 의한 혼란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불교인들은 한결같이 4불괴정, 4불괴신으로 대표되는 불퇴전의 신심으로 난국을 극복하고 세상을 선도해 왔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금산사 개산 이래 역대 고승과 선덕께서는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불조의 혜명을 받들고 법등을 면면히 밝혀왔다”며 “개산대재 참석 대중도 역대 조사스님들의 유훈을 계승하고 사불괴정과 동체대비심을 실천해 국태민안과 전법도생에 정진하자”고 설했다.

이어 오후에는 보살계 수계식이 봉행됐으며 가수 신계행, 김용진, 박성환 밴드가 출연하는 축하공연과 가을 문화한마당이 펼쳐졌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량에는 개산 1417주년을 축하하는 형형색색의 만등이 불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전북 문화재 영산작법 한옥마을서 시연

### 전주시 무형문화재 주간 맞아 대중에 선봬

우리나라 3대 소리로 일컬어지는 어산을 비롯한 불교전통문화예술인 영산작법을 일반대중에게 선보이는 시연회가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렸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18호 전북영산작법보존회(회장 혜정)는 10월 22일 전주 한옥마을 문화재전수 공연장에서 영산작법 시연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시연회에는 회장 혜정 스님, 부회장 혜안 스님(익산 태봉사), 교육원장 지산 스님(마음머무는 절), 도정 스님(도인사)을 비롯한 20여 명의 전수자와 이수자 스님들이 동참해 불교의 전통예술인 영산작법을 선보였다.

전주시 무형문화재 주간을 맞아 열린 시연은 불교의 전통의식에 따라 신중작법, 복청게, 천수바라, 헌좌게, 다게작법, 기성가지, 사홍서원 순으로 정중하면서도 엄숙하게 진행돼 수많은 관람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혜정 스님은 “많은 불교 전통문화 중에서 영산작법이라는 어산과 착복은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며 “한옥마을에서 전주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고유의 불교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통의 맥을 이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영산작법보존회의 시연을 지켜본 한 관광객은 “영산작법이 전주 소리축제와 한옥마을과 잘 어울리고, 스님들의 소리와 춤사위는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장중한 느낌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초의선사 뜻 이어 차문화 확산 주력”

### 대흥사 · 해남다인회, 제25회 초의문화제



해남 대흥사와 해남다인회는 10월 15~23일 대흥사 일원서 한국 차문화 중흥조인 초의선사를 기리는 ‘초의문화제’를 봉행했다.

전국 차(茶)인들이 바다와 맞닿은 남도 끝 해남에 모였다.

해남 대흥사(주지 월우)와 (사)해남다인회는 10월 15~23일 대흥사 및 해남일원서 ‘제25회 초의문화제’를 봉행했다.

한국 전통차의 중흥조인 초의선사는 차와 선이 하나라는 ‘다선일미(茶禪一味)’ 사상을 바탕으로 다도의 이론을 정리하고 차를 만들어 차문화를 확산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초의문화제는 이런 초의선사의 다도정신을 선양하고 계승 · 발전시키고자 대흥사에서 1992년부터 매년 여는 행사다.

이번 초의문화제는 17일 초의주간 선포에 이어 ‘초의 조선의 차를 말하다’ 좌담회, 초의 차 퍼포먼스 등이 해남문화원에서 진행됐다. 또 해남다인회 주관 아래 22일까지 해남지역 중고등학교서 ‘초의란 누구’ 주제로 단체 강연이 열렸고, 10여개 초등학교서 다도체험이 이뤄져 초의선사와 전통차를 알리는 역할을 했다.

본 행사가 열린 22일 대흥사에서는 회주 보선 스님, 주지 월우 스님을 비롯한 교구 본말사 스님들, 이낙연 전남도지사, 박지원 국회의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등 정관계인사와 신도 1000여 명이 참여했다.

한듬어린이집 원아들의 ‘아름다운 찻자리 시연’에 이어 차학술 논문 발표, 육법공양, 인드라 스님의 산사음악회, 초의문화제 기념식, 도올 김용옥 선생 초청강연이 펼쳐졌다. 특히 권위 있는 차

**10월 15~23일 초의주간 선포**
**청소년 위한 다도체험 · 강연과**
**다도시연 및 전통체험 펼쳐져**

문화 예술인상인 ‘초의상’은 올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시상식에 앞서 주지 월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현대인들은 물질적 만족에 매달리면서 정신적 가치를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최근 우리 차(茶)를 사랑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차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다”며 “차의 성지인 대흥사는 우리 차를 육성하고 보급하는 거점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회의원은 “차(茶)와 선(禪)을 주창하셨던 초의선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초의문화제가 차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본 행사 외에 행사장 주변에는 지역 다인회의 차 시음회와 부채 · 다포 그리기, 한지공예, 황토염색, 꽃차체험, 도자기 빚기, 도자기 및 차상품 판매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돼 참가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대흥사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재일교포 동강 하정웅 선생, 10월 4일 장만채 전남교육감, 10월 11일 조정래 작가, 10월 19일 동국선원장 정찬 스님 특강에 이어 11월 4일 황금 십자패 복원 세미나, 11월 16일 김병조 교수 〈명심보감〉 특강, 11월 29일 중앙승가대학 보각 스님 특강이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韓 · 美 장병들, 한국불교문화 ‘Good’

### 고창 선운사서 템플라이프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 미군 장병들이 고즈넉한 산사서 다양한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보냈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10월 22일 미 8공군 전투비행단(단장 도지어 대령)과 공군 제38비행전대(전대장 이성복 대령)를 대상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템플라이프를 개최했다.

미 8공군 전투비행단 소속 미국인 17명과 38전투비행단 소속 한국인 19명 등 37명이 참가한 이번 템플라이프는 공군부대 군법당에서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산 김윤봉 거사의 주선으로 마련됐다.

선운사에 도착해 사찰에 대한 안내와 간단한 사찰예절을 배운 이들은 선운사 포교국장 원정 스님의 지도 아래 걷기명상, 다도, 좌선, 범종 타종 등 다양한



스님과의 차담서 전통차를 즐기는 양국 장병들.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한국의 문화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미 공군 병사들은 사찰의 사물에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개인별로 직접 범종을 쳐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미군 병사들은 처음 접하는 사찰음식과 저녁예불, 걷기 명상시간에는 진지한 표정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인솔한 여산 김윤봉 거사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미군 병사들에게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과 사찰, 불교전통문화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한국과 미군 병사들이 함께 어울리며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하고, 한국의 자연과 불교문화를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간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광주 한마음선원, 쌀 2000kg 전달

어려운 이웃에게 사찰 신도들이 정성을 모은 쌀을 전달해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10월 25일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쌀 2000kg을 광주전남불교 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에 기탁,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김용섭 신도회장이 참여한 이날 전달식에서 10kg 200개 포대의 쌀은 서구지역 18개동 200세대 독거노인 세대를 포함한 기초수급자 세대에 전달돼 겨울을 나는 식량으로 사용된다.

김용섭 회장은 전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늘 봄과 가을에 신도들의 마음을 모아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 겨울에도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가족에게 전달돼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지역은 다른 구에 비해 비교적 복지여건이 좋은 곳으로 평가받지만, 1만6천여 명의 기초수급자중 5% 정도가 독거노인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17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달력 가격 대폭 인하해 드립니다.

12절 258㎜×265㎜

100부 이상 @1,000원

3천부 이상 @800원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 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H.P 010-3554-2988, 070-7425-051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달력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 121068-56-042256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 무엇인가 알았다고 날뛰는 마음, 바로 '마군'!



성태용 교수의
## 손오공이 기가 막혀

### ⑦⓪ 제새국에 도달한 현장법사 일행

물과 불의 기운 조화를 이루게 하고 잘못된 공에 대한 이해도 바로잡으니 이제 큰 고비는 넘긴 셈이로구나. 그 앞길에 작은 장애는 있을지언정 참으로 넘기 힘든 고개는 없을 것이로다.

지금까지 왔던 길이 오르막길이라면 이제 슬슬 내려가는 길로 접어들었다고나 할까?

그렇지만 내리막길에 사고 없다는 보장없다. 오르막길은 참으로 깔딱깔딱 숨이 넘어가는 깔딱고개가 많아 힘들지만 그래도 큰 사고는 없는 법이지.

오히려 하산 길에 방심하다 큰 사고 치르는 일도 많아!

이제 천축국도 웬만큼 가까워져 조금 편하게 되는 여정이지만 그 편함이 재앙을 불러오기도 하는 법이거든.

자, 그럼 그 조금 편해진 여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주욱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

우마왕 물리치고 도착한 나라는 제새국(祭賽國). 스님들이 노예 상태로 학대를 당하고 있네. 신앙심 깊은 현장법사, 그냥 지나갈 수 있나?

사정을 알아보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 제새국이 이웃 나라들의 존중을 받게 하던 보배. 금광사라는 절의 보배가 도난당한 책임을 스님들이 뒤집어쓰고 이리 학대를 당한다네.

원인 조사에 나선 손오공 일행, 만성용왕이라는 용왕 패거리와 그의 사위 머리 아홉 달린 요괴, 구두귀(九頭鬼) 물리치고 스님들의 고난 해결하고 국가의 위상도 회복시키니, 현장법사 일행의 초상까지 그려서 그들을 기렸다네.

큰 덕을 쌓고 찬양을 받으며 나아가는 길 앞에 뇌음사(雷音寺)라는 현판이 걸려 있어, 현장법사 부처님 계신 영취산 대뇌음사로 알고 환희작약 기뻐하는데, 자세히 보니 작을 소(小)자 한자가 더 붙어 있어 소뇌음사(小雷音寺)라네.

이름 비슷하여 사람을 홀리는 데 그치지 않고 여기 황미대왕이란 아주 고약한 요괴 있어 손오공 죽을 고생을 한다.

신묘한 법기, 금으로 만든 바라가 있어, 그 속에 모든 존재를 가두는데, 손오공도 한번 갇히면 빠져 나오기 힘들고.

그것만 있나? 이상한 주머니도 있어 휙하고 하늘에 던지면 모두를 그 속에 삼켜버린다.

도와주러 왔던 천신들도 감당을 못하는데 결국 미륵부처님이 오셔서 잡아주신다.

알고 보니 미륵부처님 곁에서 종치던 시종! 이상한 바라나 주머니, 모두 미륵부처님의 보배들! 왜 불보살님들은 집안 단속을 잘 못하여 매번 이렇게 일행을 고생시키시나!

다 전생의 업연이거나 현장 일행을 올바르게 단련시키기 위한 시련이란다!

애고고! 불보살님이 갑(甲)이니 을(乙)의 비애를 어디 하소연할까나.

겨우 잡아놓은 요괴 다시 풀어주기 몇 번이런가! 그래도 이런 공덕이 쌓이고 쌓여야 불경을 가져올 자격이 생긴다니 그 때에서야 을의 비애를 벗어날까?

장탄식하는 것과 갈 길 가는 것은 별개의 일? 주자국(朱紫國)이라는 나라에 도착했구나. 통행증에 도장 받으려 간 현장법사, 불법을 숭상하는 왕이 융숭히 대접하는데 그 왕의 신색이 매우 좋지 않다.

병색이 완연하여 며칠 못 살 사람 같고 국왕의 병을 고칠 명의를 구한다는 방이 내걸려 있어 손오공이 의원으로 나선다. 알고 보니 국왕의 병은 상사병이라….

요괴에게 사랑하던 왕비를 빼앗겨 얻은 상사병!

병의 원인을 밝혔으니 치료까지 해줘야지.

손오공이 요괴 잡이에 나서는데 이 요괴도 비보통 요괴. 기린산(麒麟山) 해시동 새태세(賽太歲)라는 요괴란다. 이 요괴, 신기한 금방울 세 개가 있어 불과 연기와 모래바람을 일으켜 손오공을 고생시키지만 잡혀가 있던 왕비와 내통하여 방울을 훔쳐 요괴를 물리치고, 여의봉 한방으로 보내버리려는 참!

역시나…이번엔 관세음보살 등장.

손오공! 잠깐 참아라!

그 녀석 내가 타던 금모후(金毛侯)니라!




그림 · 최주현

**소뇌음사를 뇌음사로 착각**
**보배 도난으로 승려 학대**
**깨달음의 방종에 대한 경계**

국왕이 공작대명왕보살(孔雀大明王菩薩)의 새끼 한 마리를 해쳐 보살 마음을 아프게 한 업보로 왕비를 잃어 3년간 상사병을 앓게 된 것이니라!

"애고고! 업보를 받은 것이라니 어쩌겠소!"

"너무 탄식하지 말아라. 그 업보를 풀어준 것은 다 공덕이 되어 생활기록부, 아니 수행기록부에 등재 되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보살님과 손오공 사이에 오갔다는 것이 삼쾌선생이 쓴 〈서유기 뒷이야기〉에 있다 하지? 어엇? 아직 출간이 안되었네.

아무튼 공덕 쌓는 일을 계속하며 나가는 길!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장애가 또 나타난다.

일곱 거미요괴, 그것도 암놈 거미요괴! 숫거미 잡아먹는 암커미 요괴!

예쁜 여자로 분장하고 나타나 삼장법사 홀려 불노장생 만고의 영약 성승(聖僧)의 고기 맛보려 하네. 손오공의 활약이야 늘 있는 일이지만 이번엔 저팔계가 맹활약!

여섯 미녀 목욕하는 온천에 난입하여 메기로 변신! 물속에서 미녀들 다리 사이로! (어헛! 검열 삭제됨)

거미요괴들 동문사형인 지네요괴에게 구원요청. 저팔계의 음행 고발! 지네요괴 등장!

지네 독에 모두들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비람파보살님이 도와주시네.

알고 보니 수탉의 현신인 묘일성관의 어머니, 아들이 준 보배로운 침으로 지네를 제압하시네. 역시 벌레의 천적은 닭이려니! 어둠을 깨뜨리는 "꼬끼요!" 소리로 미망(迷妄)을 깨뜨리고 진리의 길로 힘차게 나가누나!

앞의 요약 글에서 말씀 드렸듯이 화염산에서 우마왕 물리치는 대목은 서유기에서도 가장 험난한 장애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도가의 수행에서는 물 기운과 불기운의 조화가 깨져서 나타나는 난관을 극복하는 것에 해당할 텐데, 아마도 그 장애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장애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단(金丹)의 술에 있어서도 감(坎)과 리(離)의 조화가 핵심이 되는 것이지요. 감이란 주역 팔괘 가운데 감괘를 말합니다. 두 음 사이에 양이 있는 괘지요. 리는 바로 리괘이지요. 양 사이에 음이 있는 괘입니다.

이 두 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요. 각각 물과 불을 상징하고요. 해와 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음과 양이 만나서 각각 하나씩을 주고받은 결과이지요. 그것도 정 중앙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음의 중앙에 양이, 양의 중앙에 음이, 치우쳐 있지 않고 바르게 자리 잡은 것이지요. 우주자연과 생명의 순환을 음양의 순환으로 설명한다면, 바로 음과 양이 가장 바르게 서로에게 영향을 준 것이겠지요. 도교의 수행에서도 그렇게 음과 양이 가장 바르게 작용을 주고받은 감과 리를 바르게 다루는 것이 중시되었고, 그것을 바로 불기운과 물 기운을 조화시키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양의 작용이 바르게 되고 나면, 다음 과정은 비교적 순조롭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좀 쉬운 예를 드느라 상기병 이야기를 했지만, 쉽게만 생각지 마십시오. 수승화강(水昇火降), 즉 물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불기운은 아래로 내려오는 일만 잘되어, 머릿속은 명경지수처럼 맑고 시원하게 되고 아랫배는 따뜻하게 불기운이 자리 잡게 되어 보세요. 그 뒤의 공부과정, 일사천리로 나갑니다요. 꼭 도교수행, 즉 금단술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예요. 참선공부도 마찬가지라구요.

이런 바탕 위에서, 공(空)이란 불교의 핵심적인 진리에 대한 잘못된 집착을 깨뜨리고 공(空)을 올바르게 이해했다고 해보세요. 앞으로 죽죽 나가는 일밖에 더 남겠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경계! 무언가 알았다고 날뛸 때, 잘 된다고 방심하고 태만할 때 그 틈을 타고 수없는 마군이가 날뛰게 된다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좀 여유 있게 살피면서 가기로 할까요?



# 불교 東進과 발전의 역사를 되짚다

## 중국 선종사찰 순례
### ③ 백마사·용문석굴


중국 낙양의 용문석굴의 봉선사. 용문석굴에는 2000여 석굴과 감실이 있는 데 봉선사는 이를 대표하는 석굴이다. 당 고종의 발원으로 세워졌으며, 측천무후가 많은 지원을 했다.

낙양으로 이동하던 중 가이드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예로부터 중원을 평정한 자가 천하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가이드가 말한 중원이 바로 허난성을 말한다. 허난성은 중국 역사에서 적지 않은 호걸들이 패권을 놓고 각축을 벌인 장소다. 허난성에서도 낙양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실제, 허난성 낙양은 후한과 후당의 수도였으며, 북송 때까지는 서경(西京)이라고 불리었다. 또한 수·당대에 장안이 정치 수도였다면, 낙양은 경제도시로서 운하를 따라 물품이 한데 모이는 물자 집산지 역할을 했다.

양현지의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에 따르면 낙양은 후한 당시에 11만 호(戶)가 살았으며, 사찰은 1378곳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송대까지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던 낙양은 불교에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다.

**인도 고승들 흰말 타고 와**
**최초의 사찰 백마사 세워**
**중국 제1 古刹로 면모 '일신'**

**낙양 남쪽 위치한 용문석굴**
**운강·돈황과 함께 中 대표해**
**측천무후 모델로 만들었다는**
**17m 봉선사 대불에 '감탄'**


용문석굴의 빙중앙동. 당시 불교조각의 우수성을 알 수 있다.



백마사 전경. 중국에서 처음 세워진 사찰이다.


백마사 현황을 설명 듣고 있는 조계종 교육원 순례단들.

#### 백마 타고 온 고승들이 전한 것

중국 낙양을 대표하는 사찰은 바로 백마사(白馬寺)다. 백마사는 중국에서 최초로 지어진 사찰로 잘 알려져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황제의 명으로 지어진 최초의 사찰이다.

황명으로 건립된 사찰인 만큼 창건에 대한 이야기도 남다르다. 후한 명제(明帝)는 어느 날 꿈을 꾸게 된다. 꿈에서는 머리에 광채가 나는 금인(金人)이 날아와 자신이 사는 궁궐 위를 몇 바퀴 돌더니 서쪽하늘로 유유히 사라지는 것이다. 다음날 신하들에게 금빛 사람의 정체를 물으니 신하들은 '부처'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명제는 서역으로 사신을 파견해 '불법을 구해오라'고 명령한다.

이듬해 사신으로 발탁된 채음과 진경 등은 서역으로 떠난다. 이들은 도중에 인도의 고승 섭마등과 축법란을 만나고, 이내 후한으로 함께 가줄 것을 간청한다. 섭마등과 축법란은 사신들의 간청에 따라 낙양으로 오게 된다. 당시 이들은 흰 말에 불경을 실어 낙양에 당도했다. 그리고 영평 11년(서기 68년)에 낙양에는 '백마사'라는 이름의 사찰이 세워진다.

백마사는 '중국 제1 고찰'로 불리우며, 국내외 참배객들이 찾는 성지가 됐다. 남향으로 배치된 백마사는 총면적만 4만㎡에 달할 정도로 크다.

#### 이제는 국제화 사찰로 발전

백마사는 중국 불교의 발원지라는 의미에서 '석원(釋源)' 혹은 '조정(祖庭)'이라고 불린다. 사찰은 남북 중심선으로 천왕전·대불전·대웅전·접인전·비로전 등이 배치돼 세계에서 온 참배객들을 맞이한다. 사찰 입구 앞에는 송대에 제작된 백마상 2개가 있으며, 정문은 3개의 아치형 대문으로 이뤄져 한나라 시기의 건축 기교를 보여준다.

백마사에는 창건의 주역인 섭마등과 축법란의 활동상이 담긴 곳이 2곳 있다. 바로 '청량대(淸凉臺)'와 '등란묘(騰蘭墓)'이다.

접인전을 지나면 벽돌을 쌓아 만든 높은 대가 보이는 데 바로 이것이 청량대다. 본래는 명제가 피서와 독서를 하며 지내던 곳인데, 섭마등과 축법란이 낙양에 오고나서는 이곳에 거주하면서 불경을 번역했다고 한다. 최초 한역 경전인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이 탄생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등란묘(騰蘭墓)'는 섭마등과 축법란을 기리는 묘역이다. 두 스님은 백마사에서 경전을 번역했고, 이후 백마사에서 입적했다. 어떻게 보면, 역경불사의 기원지도 백마사인 셈이다.

불교 동진(東進)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백마사는 이제는 국제화 사찰로 변모하고 있다. 태국, 인도 등의 불교사원이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1년 태국 내무부 장관 와타나 아싸와헴이 백마사를 방문했을 때, 중국과 태국 불교계의 우의를 증진하고자 백마사에 태국 사원을 건립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1997년 낙성됐다. 이후 2010년에는 여러 부속 건물들이 세워지면서 규모가 커졌다.

인도도 백마사에 불교 사원을 세웠다. 2004년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 前 인도 총리가 백마사를 방문해 자신의 선조인 섭마등과 축법란의 묘역을 참배한 것을 계기로 설립이 추진됐다. 2005년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인도 방문 당시 조인식을 맺고, 2010년에 완공됐다.

현재 가장 눈에 띄는 사원은 미얀마다. 만달레이 왕궁을 모델로 지어진 백마사의 미얀마 사원은 2014년 낙성했다. 쉐다곤 파고다를 3:1로 축소한 탑도 참배객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하다. 이 탑을 장식한 재료는 모두 미얀마 정부에서 보내온 것이라고 한다.

불교 동진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백마사는 이제는 중국불교의 굴기(屈起)를 보여주는 사찰 중 하나로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

#### 오로지 아름다울 뿐

후한 명제가 중국 최초 사찰인 '백마사'를 건립한 이래, 불교는 중국에 성공적으로 도래하게 된다. 낙양에만 1천여 곳의 사찰이 있었다고 전해질 정도였으니.

경전이 전해지고, 수행법이 알려지면서 이제 사람들은 숭앙해 마지않던 부처님과 보살, 그의 제자, 고승들의 존상을 세우고 싶어졌다. 낙양에 불교미술의 집약체인 용문석굴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용문석굴은 한국에도 잘 알려진 산서성의 운강석굴과 돈황 막고굴과 더불어 중국 3대 석굴로 불리운다. 특히 용문석굴은 정교하고 아름다운 조각으로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큰 굴은 서산에 28개, 동쪽 산에 7개가 있으며, 그 외에도 2000여 개의 작은 굴과 감실들이 있다. 이렇게 규모가 크다보니 주차장에서 몇 시간을 꼬박 걸어야 용문석굴의 일견을 볼 수 있다.

용문석굴은 동위, 서위, 북위, 북제, 북주, 수, 당, 북송 등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성됐다. 그중에서도 북위와 당대 석굴이 가장 많다. 비율로 보면 당대 석굴이 60%로 가장 많고, 북위는 30%정도다.

용문석굴에서 순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봉선사(奉先寺)'라고 불리우는 석굴이다. 봉선사에는 높이 17m에 달하는 노사나불이 있다. 불두(佛頭)의 크기만 5m이다. 당 고종이 발원한 노사나불은 함형 3년(672)부터 상원 2년(675)까지 만들어졌다. 또한 가섭과 아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두 명의 천왕과 두 명의 역사로 이루어진 봉선사의 조각은 중국 석각예술의 최고봉으로 손꼽힌다.

적지 않는 사람들은 용문석굴을 상징하는 노사나불이 막대한 공사 대금을 지원했던 측천무후를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제왕을 모델로 불상을 조성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많았지만, 최고 권력자가 아닌 그녀를 대불로 형상화했다는 것은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 그녀가 전무후무한 여황제가 된 시기도 봉선사 대불이 완성된 것보다 15년 뒤인 690년이다.

측천무후와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곳은 '마애삼불감(摩崖三佛龕)'이다. 마애삼불감의 조성이 시작된 시기는 그녀가 제위에 오르면서다. 측천무후는 스스로 '자씨(慈氏)'라 칭했는데, '자씨'는 미륵을 의미한다. 미륵의 화신이라는 것이다. 구세를 바라는 미륵신앙을 측천무후는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았고, 이를 이용해 황제에 즉위한다. 하지만, 약 15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권력을 누렸으며, 마애삼불감도 미완성으로 끝난다.

흰 말과 함께 온 서역의 고승들은 경전을 전하고, 사찰을 건립해 불교를 안착시켰다. 이후 문화수도였던 낙양은 500여 년이 넘는 시간동안 불교가 융성했던 성도(聖都)였다.

**중국 낙양=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내재된 불성 보라”… ‘眞娥 찾기’를 그리다

‘불교로 읽는 古典’ 시즌 2

## ⑧ 토마스 만의 소설 〈마의 산〉

토마스 만은 1875년 태어나 1955년에 세상을 떠났다. 세계 1, 2차 대전을 다 겪은 전쟁 세대이기도 하다. 독일의 뤼베크 출신인 토마스 만은 어려서부터 작가를 꿈꾸었다.

문학의 길에 세 분의 스승을 만났는데 쇼펜하우어, 니체, 바그너이다. 특히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를 읽었던 독서 체험은 일생에 두 번 오지 않는 영적체험으로 꼽고 있다.

첫 장편 소설인 〈부덴브로크 가의 사람들〉을 출간했는데 성공적이었다. 삶에 대해 염세주의적이었던 토마스 만은 삶을 긍정하는 괴테를 존경하고 좋아했다. 토마스 만은 괴테의 작품을 차용하여 〈바이마르의 로데〉, 〈파우스트 박사〉 등을 출간했다.

1933년 1월에 히틀러가 총리로 임명되자 체포되지 않으려고 여행을 떠났다. 그 후 망명자가 되어 스위스, 체코, 미국을 떠돌았다.

### 지옥세계를 그린 ‘마의 산’

장편소설 〈마의 산〉은 12년이나 걸려 완성한 작품으로 20세기 유럽의 철학, 문학, 사상을 집대성한 대작으로 꼽히고 있다. 〈마의 산〉을 출간하고 나서 5년 후 1929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마의 산’이란, 스위스 다보스에 있는 폐결핵 요양원 베르크호프를 일컫는 것으로 죽음의 세계요 지옥세계를 나타낸다. 요양원장인 베렌스 고문관은 환자들의 눈을 속여 요양기간을 늘려가는 염라대왕이다. 이 소설의 중심 주제는 삶과 죽음, 존재와 시간이다. 주인공인 23세의 청년 한스 카스토르프가 사촌 요아힘을 문병하러 다보스 요양원에 왔다가 7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 이 소설의 줄거리이다.

요양원에서 완치되어 마을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인문학자이자 문필가인 세템브리니는 죽음에 매혹된 한스 카스토르프의 스승으로, 이곳 지옥세계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면서 그에게 생의 철학을 가르쳐 준다. 세템브리니는 한스에게 “망자들이 취생몽사(醉生夢死)하는 이곳 심연으로 내려오시다니요. 우리는 깊은 심연에 빠진 존재들입니다”라고 말한다.

### 현재는 영원한 지금이며 찰나

주인공 한스는 별다른 변화 없이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요양원의 일상을 접하면서 시간에 대해 많은 사색을 하게 된다. 한스는 시간에 대해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

“시간이라는 것은 지켜보고 있으면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 거야. 시간에는 결코 사실이라는 말을 쓸 수 없어. 시간이란 길다고 생각하면 긴 거고, 짧다고 생각하면 짧은 거야.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길고 짧은지는 아무도 몰라. 우리의 시간 단위는 단지 약속에 불과한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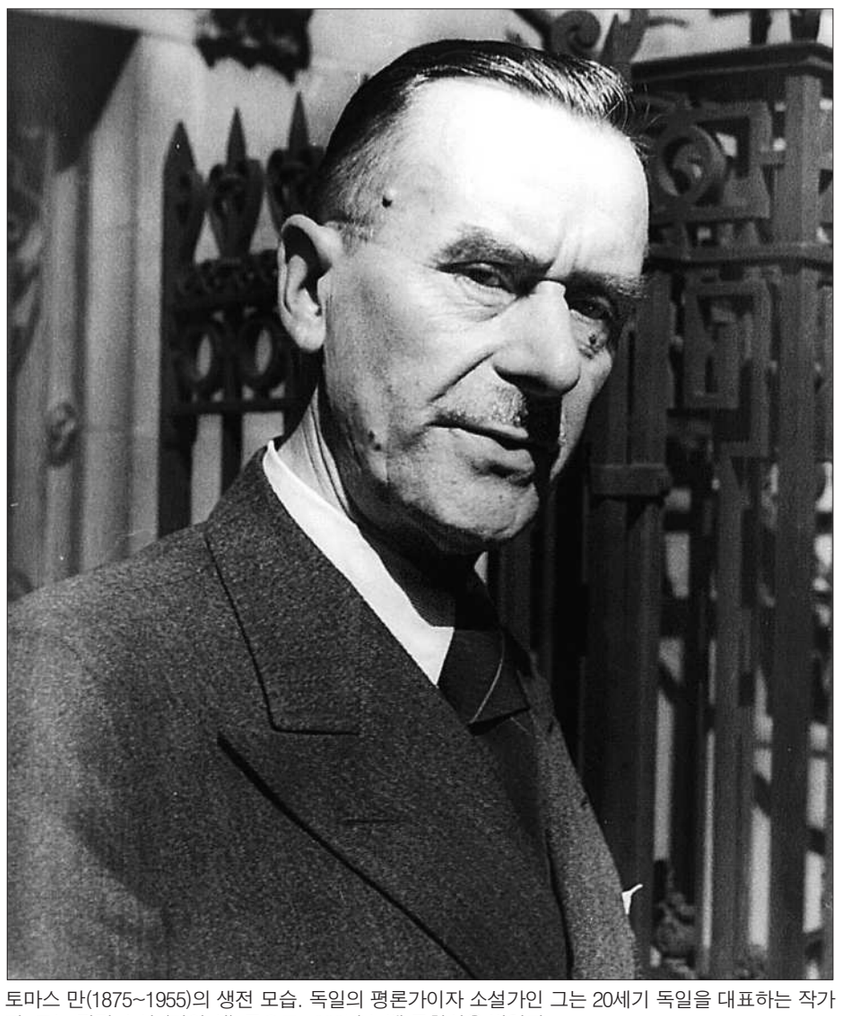
시간을 인식하는 식(識)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시간은 기분에 따라 변한다. 에너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식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대상과 사물을 지어내고, 대상과 그 경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한스 도스카르프는 바로 토마스 만 자신이다. 토마스만은 한스 도스카르프의 입을 빌려 시간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답한다. 한스는 “시간은 불가사의한 것이며, 실체가 없으면서 전능한 것이며 공간 속에 존재하는 물체와 그것의 운동과 결부되고 혼합된 하나의 운동이다. 시간은 활동적이고 동사적인 속성을 갖고 있으며, 시간은 변화를 낳는다”라고 말한다.

시간은 사물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모든 것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니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없다. 삼법인 중 하나인 제행무상(諸行無常),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다.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것이 변화요, 운동이다.

한스는 “시간이란 하나의 망상에 불과하고 인과관계 속에서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시간의 경과는 우리의 감각 기관의 산물에 지나지 않으며, 사물의 진정한 본질은 영원한 현재”

**12년 집필한 大作… 노벨상 수상도**
**스위스 요양원서 겪는 이야기 그려**
**소설 內 시간관·인식론 불교 맞닿아**
**“지금 현실에서 나를 보나” 메시지**



토마스 만(1875~1955)의 생전 모습. 독일의 평론가이자 소설가인 그는 20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다. 그는 장편 소설 〈마의 산〉 등으로 1929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서 토마스만의 불교적인 시간관념을 알 수 있다.

사물뿐만 아니라 시간의 본질 또한 영원한 현재이다. 시간은 과거로 인하여 현재가 생기고 현재는 미래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니 현재는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다. 시간은 존재 혹은 법이 흐르는 길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시간은 바로 지금 존재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

시간의 사색에 빠져 있는 한스에게 세템브리니는 “오늘을 즐겨라! 시간이란 이용하도록 인간에게 빌려준 신들의 선물”이라고 경쾌한 답을 내려준다.

### 극단을 피하고 조화를 이루다

토마스 만은 역설적인 표현 방법인 아이러니(irony)를 소설적 기법에 도입하였다. 선과 악의 대립, 삶과 정신의 대립 등 이원적 대립을 아이러니를 통해 조화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토마스 만의 문학기법이기도 하다. 양 극단을 피하여 어디에도 치우침 없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불교의 중도와 맞닿아 있다.

소설의 후반부에는 일원론자인 세템브리니와 이원론자이자 예수교의 사제였던 나프타가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세템브리니는 토마스 만의 또 다른 분신으로 “인간의 인격은 두 개의 적대적인 원칙이 대립하는 싸움터가 아니라 조화롭고 통일을 이루는 그런 곳”이라고 말한다.

세템브리니는 “육체는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정신을 건강하고도 온전하게 유지한다. 인체는 신이 머무는 참된 신전”이라고 표현한다. 죽음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나프타를 향해 세템브리니는 타인의 죽음체험은 결국 삶의 체험이 되어야만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죽음은 두렵거나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 명백하고 이성적이며 생리적으로 필연적인 환영할 만한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필요이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에 몰두하는 것은 삶을 침해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모범적인 화장터나 납골당인 죽음의 전당 말고도 삶의 전당도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건축, 회화, 음악 및 문학이 서로 힘을 합쳐 유족의 마음을 죽음의 체험이나 무익한 비애며 무기력한 탄식으로부터 이 세상의 삶의 환희로 돌리려는 겁니다.”

세템브리니는 불이(不二)사상을 말하고 있다. 불교는 상대적인 이원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둘이 아닌 법을 가르친다. 삶과 죽음이 둘 아니며,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며, 번뇌와 지혜가 둘이 아님을 아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죽음에 매혹된 한스가 뜻밖에도 아름다운 여인 클라브디아 쇼사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다. 한스는 육체, 사랑, 죽음 이 셋은 서로 다르지 않다면서 육체에 대해 탁견을 쏟아낸다.

“육체는 스스로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며 피부를 붉게 물들이기도 해. 하지만 또한 육체는 숭배할만한 위대한 영화(榮華)이고 유기 생명의 기적과도 같은 형상이며 형태와 아름다움의 불가사의한 신성함이야. 이 매혹적인 유기체의 아름다움은 화구(畵具)나 돌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패성 물질로 되어 있고 생명과 부패라는 열을 내는 비밀로 가득 차 있어.”

불이법을 말한 유마거사는 “육신이 무상하다고 설하여 육신에 대한 탐착을 없애는 것은 좋지만 미워하거나 버리라고는 말하지 말라. 육신에 괴로움이 있다고 설할지라도 열반을 즐기라고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 육신이 무상하지만 육신이 있어야 생사를 여의고 해탈의 길로 갈 수 있으니 미워할 것도 버릴 것도 아니다.

### 죽음은 성스러운 조건

요양원에서는 환자가 죽으면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지만 식탁의 빈자리가 그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다. 요양원 생활에 적응할수록 한스는 ‘죽음의 모험은 삶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모험이 없으면 삶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죽음을 삶의 모험쯤으로 생각하는 한스에게 세템브리니는 “죽음을 바라보는 유일하게 건강하고 고귀한 방식은 죽음을 삶의 일부분이자 부속물, 성스러운 조건으로 파악하고 느끼는 것”이라고 말해준다.

죽음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도 흥분시키는 것도 아니며, 또 죽음에 도취해서도 안 된다. 그냥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고귀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또 세템브리니는 “죽음은 삶의 요람이자 갱신의 모태로서 존경할만한 것이다. 삶과 떼어놓고 보면 죽음은 유령이자 역겨운 몰골, 그리고 더욱 고약한 것이 되고 만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을 보면 토마스 만은 죽음은 또 다른 삶을 준비하는 한 형태라는 불교의 생사관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 현재는 찰나생 찰나멸이기에 시간은 곧 과거로 흘러가버린다. 우리에게 허용된 시간은 영원한 현재 뿐이다. 우리는 현재에만 살아있는 것이고, 과거에 살 수도 미래에 살 수도 없다. 현재에만 머무는 삶에 죽음이 찾아올 수는 없는 것이다.

죽음은 시간의 바깥 세계로 사라지는 것이라는 한스의 생각에 세템브리니는 “내세는 현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세에 미래세와 과거세가 포함되어 있는 시간의 순환고리처럼 현세는 과거세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내세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

〈마의 산〉에서는 숫자 ‘7’이 일관된 흐름으로 소설을 관통하고 있다. 소설은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환자들이 체온계를 무는 시간도 7분이며, 요양원의 식당에는 일곱 개의 식탁이 있다. 그리고 주인공 한스는 7년간 요양원에 머문다. 불교에서는 숫자 7은 생명의 변화와 성장을 나타내는 시간 리듬이고, 숫자 7을 거듭한 49일은 생명의 변화가 완성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 전까지 중유(中有)에 머무는 기간을 숫자 7에 7을 곱하여 49일로 보았다.

### 내면적 광명과 행복을 향하여

세템브리니는 “죽음에 매혹되는 것은 삶에 배치되는 음란한 욕망에 불과하다”면서 한스에게 생의 철학 그리고 삶의 환희를 가르쳐 준다.

“인간은 죽음에 종속시키기에는 참으로 고귀한 두뇌의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죽음보다 고귀한 존재야. 마찬가지로 인간은 삶에 종속시키기에는 참으로 고귀한 정신의 경건함을 가졌기 때문에 삶보다도 고귀하다.”

세템브리니는 탄생과 죽음은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불성을 보라고 한다. 그 누구라도 불성을 훼손할 수는 없으며, 불성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다.

토마스 만은 “인류는 암흑, 공포, 증오에서 출발했지만 내면적 광명과 선과 행복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빛나는 도정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 또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



문윤정(수필가, 여행작가)

특히 한스는 친한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결코 죽음이 삶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산을 내려가기로 결심하고 나서야 마법의 저주에서 풀려나 구원되고 해방된 것을 알았다.


#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건강에 좋은 신비의 효능

# 마 가 목(원탕)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한방무헌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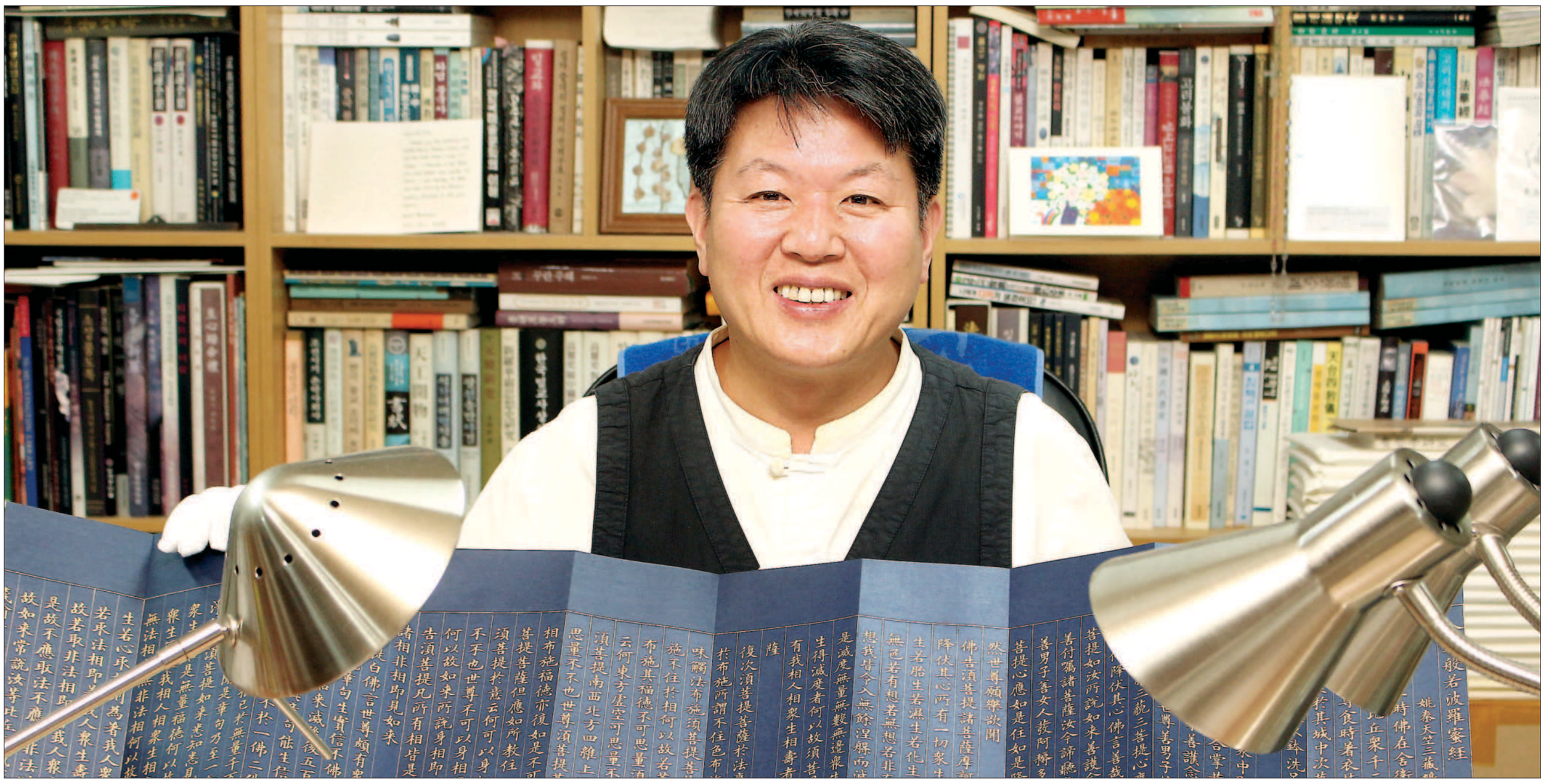
상담문의 031-773-7838/011-9049-2848 야간전화사절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227027-51-090791(예금주:남궁성균) • 제조원:구암식품 • 식품제조업:대구 북 제00619호

산문 밖의 禪

# 마음으로 한 획씩 써내려간 경구들…

김경호 전통사경 기능전승자
(53 · 한국전통사경연구원 원장)



**김경호 원장**은…1963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났다.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동국대학교 대학원미술사학과(사경 전공, 문학 석사)를 졸업했다. 2010년 전통사경 기능전승자(고용노동부지정 제2010-5호)로 지정됐다. 2000년 서울 동국대문화관에서 첫 번째 개인전(외길 김경호 사경전)을 시작으로 20여 회의 개인전 및 초대개인전을 열었다.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과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사경지도자과정 강사를 지냈다. 제1회 불교사경대회 대상 등 다수 수상했으며, 시집 〈학의 울음〉과 한국 최초의 사경 개론서 〈한국의 사경〉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섭씨 40도의 방, 푸른빛 감지(紺紙), 그 위로 금니(金泥)를 머금은 0.1mm의 붓이 머무는 듯 지나간다. 붓이 지나간 자리엔 〈법화경 약찬게〉, 〈화엄경 보현행원품〉 변상도 등 부처님의 법신사리가 장엄된다. '금니사경'이다. 붓의 주인은 고려전통 금니사경의 맥을 잇고 있는 전통사경 기능전승자(고용노동부지정 제2010-5호) 김경호 한국전통사경연구원 원장이다. 40여 년 사경을 해온 그는 20여 년 전부터 40℃의 방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옮겨 적고 있다. 그의 사경은 단순히 감지 위의 금니가 아닌 예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수행과 신행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는 오늘도 40℃의 방에서 금빛 붓을 든다.

### 40년 금강의 세계를 그리다

2016년 10월 5일, 서울 아라아트센터. 전시장 벽면엔 금빛과 먹빛이 빚어낸 글씨와 그림이 가득 걸려 있다. 백 원짜리 동전만한 무궁화 꽃잎엔 금빛 실선 2만 5천 개가 지나가고, 5cm가 조금 넘는 7층 보탑들의 한 층 한 층에는 7만 자의 묘법연화경 한 자 한 자가 들어있다. 전시장을 채우고 있는 그의 글과 그림은 부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형상화 한 변상도이다. 한국전통 사경의 맥을 잇는 외길 김경호 원장의 40년 사경 인생과 작품을 총망라하는 회고전, '잉불잡란격별성'이 열렸다.

회고전에는 감지금니일불일자 '화엄경약찬게', 감지금니7층보탑 '묘법연화경 견보탑품', 감지금니 '아미타경 · 아미타불48대원'과 1996년 제작되어 21년 만에 공개되는 역작 '백지묵서 금강반야바라밀경(15m×3m)' 등 김경호 원장이 가려 뽑은 최고의 작품 30 점이 전시됐다. 금빛의 그의 글씨(불경)와 그림(변상도)은 고려전통 금니사경의 맥을 잇는 것으로서, 작가가 매일 8시간 이상 작업하여 길게는 9개월에 걸쳐 완성한 작품들도 있다. 그 규모와 정성은 가히 감동적이다.

한국 유일의 전통사경 기능전승자인 김경호 원장은 지난 20여 년간 신라와 고려시대 등 우리나라 1700년 불교 역사에서 이어져 온 '사경'을 연구해 왔다. 그는 1997년 조계종총무원과 동방연서회가 공동주최한 제1회 불교사경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사경가로서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00년 서울 동국대문화관에서 가진 첫 번째 개인전 '외길 김경호 사경전'을 시작으로 미주한인이민 100주년 기념 초대전(로스엔젤레스), 한국문화원 초대전(뉴욕),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 특별초대전, 한국과 세계의 불경전 특별초대전,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 금사경 특별초대전 등 국내외에서 갖은 20여 차례의 개인전과 초대개인전을 통해 사경이 단순히 경전을 옮겨 적는 일이 아닌 창조적 예술의 세계이고, 여법한 수행의 세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 불심으로 잡은 사경붓

### 선사 게송 적으며 사경 시작

### 고교 때 룸비니불교학생회 활동

### 세 번의 출가 시도, 부친의 만류

### 붓글씨 쓰는 아이

전통사경 기능전승자 김경호, 그는 어떻게 사경을 시작한 것일까. 그 인연은 '붓글씨', 즉 서예였다. 전북 김제에서 태어난 그는 다섯 살 때부터 붓을 잡았다. 그에겐 먹을 갈아 글을 쓰는 부친이 있었다. 그의 부친은 농부였으나 학문에도 밝았다. 부여받은 삶은 들판에 있었지만, 지역 향교의 전교를 지낼 만큼 부친의 선택적 삶은 학문과 풍류에 닿아 있었다.

다섯 살배기 김경호는 부친의 붓글씨 한글 교본으로 글을 떼고, 어깨 너머로 보이는 뜻 모를 글자(한자)들을 바라보면서 컸다. 어린 김경호는 그때부터 글씨와 가까웠다. 붓과 가까웠다. 일찍이 붓과 글씨에 가까웠던 어린 김경호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서예를 시작한다. 서예반 선생님이 김경호를 알아본 것이다. 김경호는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 친구와 함께 매일 두 시간 씩 붓글씨를 썼다. 한글은 물론 이미 한문까지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역 대회는 물론 서울의 큰 서예대회에 참가하여 여러 차례 수상을 한다. 중학교에 진학한 김경호는 미술반에서 미술과 함께 서예공부를 계속 이어간다. 그렇게 그의 글씨는 날로 깊어 갔다. 김경호는 이제 글자가 아닌 '글'을 찾기 시작했다. 자신의 붓 끝에 담고 싶은 글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집안에 있던 몇 권의 책에서 선사의 게송을 보게 된다. 일구 일구가 김경호의 가슴을 뚫고 지나갔다. 책이 귀한 시절이었다. 불경과 불서 역시 귀한 시절이었지만 그의 부친과 모친이 모두 불자인 덕분에 그는 선사의 게송을 볼 수 있었다. 그날부터 김경호는 게송을 쓰기 시작한다. 김경호의 사경은 그렇게 시작됐다.

### 좌절된 출가의 꿈, 그리고 또 다른 출가

"선사가 되고 싶었어요."

김경호는 매일 선사들의 게송을 읽고 쓰면서 걸림 없는 선(禪)의 세계를 보게 된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그 게송들은 종이가 아닌 그의 삶 깊숙한 곳에 들어와 쌓였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그는 익산룸비니불교학생회를 찾아 불교 공부를 시작한다.

"불교가 궁금해졌어요. 그저 어머니 따라 절에 다니는 일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알고 싶어졌던 거죠. 그때 불교공부 많이 했어요. 학교 공부보다 불교 공부가 더 좋았어요. 〈벽암록〉이 좋았고, 〈법




제2초강대왕 탱화
나한존상
귀환 친견법회
성보환수를 위한 기금 모연 천일기도

증명법사 : 쌍계총림 방장 고산 대종사
일 시 : 불기 2560년 11월 5일 (토) 오전 10시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말사 옥천사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본.말사(암)연합회

시방삼세의 거룩하신 삼보님께 일심으로 귀의하옵니다.

불교의 사상체계를 살펴보면 명부세계의 10대 대왕은 우리 인생이 살아 생전에 지은 선(善), 악(惡)의 가볍고 무거움을 판별하는 열분의 대왕입니다. 그 10대왕 가운데 저승에서 14일째 되는 날에 제2의 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 제2초강대왕은 석가모니부처님의 화신이라고 합니다. 생전에 죄업 결과에 따라 죄업이 가벼우면 좋은 길로, 죄업이 무거우면 나쁜길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한님은 아라한으로 무적, 불생, 응공이라, 번역하니 무적이라 함은 번뇌의 도적이 아주 없어졌다는 뜻이며, 불생이라 함은 다시는 인간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요, 응공이라 함은 인간세계와 하늘나라에서 어떠한 공양이라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옥천사에서는 이와 같은 계위에 있는 명부의 제2초강대왕, 그리고 나한님 귀환 친견법회를 조석으로 아직 미환수중인 옥천사 성보문화재의 조속한 환수를 기원하는 기금조성 천일관음기도를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이 뜻 깊은 천일관음기도에 동공발심으로 동수정업하시어 공덕으로 세세생생 복덕과 지혜가 구족하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하나이다.

■ 천일기도 입재일 : 2016년 11월 5일 오전 10시
■ 천일기도 회향일 : 2019년 8월 1일 오전 10시
■ 천일기도 동참금 : 설판(100만원 이상), 가족축원(30만원 이상)
※ 기도동참금은 분할납부 가능하며 우편, 전화, 팩스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 : 농협 301-0198-4684-21 옥천사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1로 471-9 / 전화 055)672-0100 / 팩스 055)672-0481
대한불교조계종 옥 천 사 www.okcheonsa.or.kr

수제 햄머 Hammer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특징 100%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세상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동 제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장인이 손수 망치로 두들겨 만든 햄머 제품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다른 제품들과 달리 우아하고 기품이 넘칩니다. 햄머는 코팅을 하지 않은 제품으로 자연적인 색깔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항균력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진 동, 햄머 제품은 대를 이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제조과정에서 오는 스크래치나 접합부의 땜자국 등 마감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햄머의 동 제품은 수작업으로 광택 정도나 수구의 모양, 크기 모두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만들 때마다 같은 빛깔을 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하오니 주문시 참고 바랍니다.


S800 유광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S800 유광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수제동 주전자 – NY900 유광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드립퍼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스푼

스푼 –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입금계좌 :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寫經은 수행이자 예술"

성게〉가 좋았어요. 〈법성게〉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불교가 좋아진 김경호는 마침내 출가를 결심한다. 그리고 실천에 옮긴다. 그는 '행자 김경호'를 그리며 야간열차를 타고 대흥사로 향했다. 고2 때의 일이다. 하지만 '행자 김경호' 그 이름은 오래 가지 못했다. 행자 김경호는 부친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그의 출가에 대한 생각은 가벼운 결심이 아니었다. 간절히 불가의 가계에 들고 싶었다. 그는 두 차례 더 출가를 단행하지만 번번이 부친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나도 부처님이 좋고 부처님 말씀이 좋고 절이 좋다. 네가 불교 공부하고 불교 좋아하는 것은 괜찮지만 출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는 부친의 간곡한 만류로 출가에 대한 원을 이루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루지 못한 원은 훗날 더 큰 원을 낳았다. '사경'이 그것이다.

### '글씨'는 운명

출가의 원을 접고 학교로 돌아온 그는 한 동안 마음을 잡을 수 없었다. 그때 그의 마음을 잡아준 것은 '시(詩)'였다. 국어 선생님으로부터 시를 배우게 된다.

"제가 처음 출가하기 위해 집을 떠날 때, 국어 선생님께 시를 한 편 지어 올리고 기차에 올랐는데, 돌아온 저에게 선생님께서 계속 써보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은 인연법이었다. 김경호에게 시인의 피가 있음을 알아본 국어 선생님은 당시 금서였던 시집과 관련 노트를 구해다 주는 등 그에게 깊은 정성을 쏟았다. 그 인연으로 김경호는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게 되는데, 시를 공부한 것 역시 훗날 그가 게송을 번역할 때 많은 도움이 되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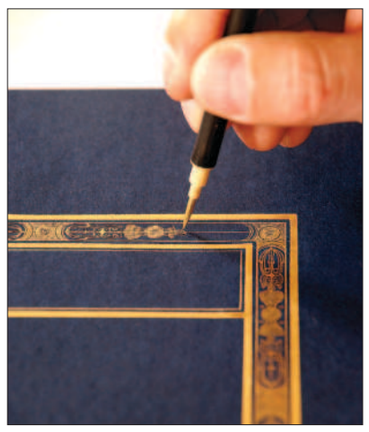
대학을 마치고 군복무를 시작한 김경호는 다시 글씨를 쓰기 시작한다. 필체가 좋았던 그였기에 그는 군에 필요한 온갖 글씨를 써야했다. 그 시절만 해도 손수 써야 하는 글씨들이 많았다. 상장을 비롯해서 보고용 차트, 문서, 간판, 하다못해 문패까지 써야 했다.

"군 복무하는 동안 한 200만 자는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 역시 훗날 제가 사경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흔한 말로 '글씨'는 김경호의 '팔자'였다.

### 다시 붓을 잡다

전역한 후 김경호는 서예학원을 열었다. 그는 시인으로서의 삶보다는 서예가로서의 삶에 기울어있었다. "서예를 하면서도 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꾸준히 썼죠. 시집도 냈으니까요."

김경호 원장은 낮엔 학원생에게 서예를 가르쳤고, 나머지 시간엔 사경을 했다. 좋아하는 법성게를 쓰고, 경전들의 경구들을 옮겨 적었다. 붓으로 한 자 한 자 부처님 말씀을 옮기며, 이루지 못한 출가의 서원을 대신했다. 그리고 좀 더 깊은 사경을 생각했다.



**고려전통 금니사경 연구 복원**

**20여 차례 개인전 열어**

**40℃에서 하루 8시간 씩 작업**

**9개월 이상 걸린 작품도 다수**

**회고전 열고 현대화 작업 모색**

**2006년 〈한국의 사경〉 출간**

**2010년 전통사경기능전승자 지정**

**남은 원력은 사경문화 확산**

단순히 글씨를 옮겨오는 것이 아닌 밀도 있는 신행과 예술로서의 사경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각지의 박물관을 돌며 선조들의 사경을 더듬어 가던 김경호 원장은 고려전통기법인 금니사경을 보게 된다. 사경 없이는 불교가 전래, 전파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경이 없는 불교란 생각할 수 없다. 사경이 부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일이므로 옮겨진 글은 법신사리가 되는 것이고, 그 일련의 일들은 불사가 되는 것이다. 곧 신앙의 한 가지인 것이다. 이러한 법신사리에 대한 신앙이 금·은사경이라는 '장엄경'의 연원이 된 것이다.

김경호 원장은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금니사경을 연구하기 시작한다. 금분과 종이(감지)를 연구하고 각 시대별 사경을 연구해 나갔다. 하지만 연구는 쉽지 않았다. 이름 없는 사경가에게 선조들의 사경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으며, 그와 관련된 문헌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발로 찾아가 옛날 것을 보고, 돌아와 붓을 드는 방법밖엔 없었다. 그렇게 발로 걸어 지도를 그리듯 그는 1700년 사경 역사를 그렇게 더듬어 갔다.

"최소한 섭씨 35도는 넘어야 하고, 40도는 되어야 금니가 마르지 않고 붓을 제대로 따라가요. 더 높으면 더 좋은데 42도 이상은 힘들더라고요."

섭씨 40도의 방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야말로 금니사경은 고행이었다. 40도라는 온도도 넘어서야 하고, 한 자 한 자 글을 놓아야 하는 길고 긴 시간도 넘어서야 한다. 또한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촘촘한 붓과 붓의 간격을 견뎌내야 한다. 한 순간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그랬다간 긴 시간의 고행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2006년 마침내 그는 한국 최초의 사경 개론서인 〈한국의 사경〉을 출간하며 잊혔던 우리 사경의 맥을 찾아낸다. 그는 2010년 전통사경 기능전승자(고용노동부지정 제2010-5호)로 지정된다.

### "사경은 단순히 베끼는 것 아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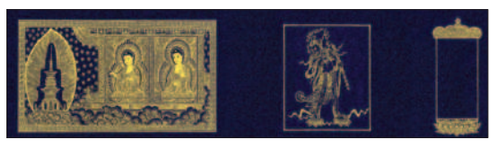
"사경을 하는 것은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밀도 높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 글자 한 글자 붓 끝에 머물다보면 시간은 일 구 일 구 법으로 변하고 법으로 변한 시간은 이내 지혜로 다가오죠."

그랬다. 사경은 단순히 경전의 글자를 베끼는 것이 아니다. 창조적인 예술의 세계이며, 불법을 구하는 불제자들에겐 깊은 수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김경호 원장은 사경을 하기 전, 먼저 몸과 주변을 정돈하고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참선과 간경을 한다. 그리고 붓을 들면 한 자 한 자 붓 끝의 글자와 하나가 되기 위해 모든 망상을 걷어낸다. 한 순간이라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 순간 사경의 의미는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사경은 개인적인 수행의 방편이면서, 나아가 법당을 세우고, 불상을 모시는 일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 가꾸는 '불사'인 것이다. 김경호 원장은 사경이 다른 불사와 수행처럼 그 저변이 넓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원이라고 했다. 김경호 원장의 40년 사경 인생은 어려운 길이었다. 그의 호가 '외길'인 것처럼 외길을 걸었다. 그의 남은 원이 또 다른 외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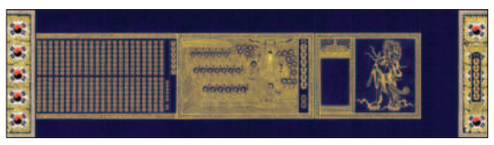
그는 지난 10월 5일에 있었던 회고전의 의미를 '회향과 모색'이라고 했다. 전통의 기법을 넘어선 현대화 작업을 선언하기 위함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전통작업을 '의미'로 남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 모색의 하나로 그는 자신의 모든 작품을 전 세계 유명 박물관에 유치하려고 한다. 한국 사경의 세계화를 위함이다. 그와 인터뷰를 하던 날, 그는 며칠 후에 예정된 뉴욕 출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서실 한 쪽 작은 방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작은 서실과 멀고 먼 이국땅에서 위대한 인연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박도일 수필가 doil3012@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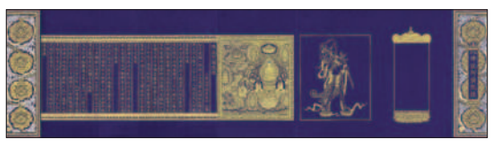
**김경호 작가의 사경 작품들**



감지금니 7층 보탑 법화경 견보탑품



감지금니 일불일자 화엄경 약찬게



감지금니 아미타경

전법일기

## "네 얘기를 들어줄게!"

11살,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 대인기피증과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아이를 만난 건 6월 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였다.

"선생님은 몇 살이에요?"

침울한 얼굴로 만나자마자 당돌한 질문을 한다.

"내 나이가 궁금하니? 한번 맞혀볼래?"

그러자 아이는 나의 말은 아랑곳 않고,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가족의 나이를 무심히 흘리듯 외었다. 자기가 11살, 엄마는 몇 살, 아빠는 몇 살, 동생은 몇 살, 할머니는 63살….

'대인기피증이라더니 뭐가 문제지?'

순간 어리둥절했지만 침착하게 손을 내밀며 인사했다.



그림 · 박구원

"만나서 반갑다. 앞으로 잘해보자."

아이는 갑자기 손을 움츠려 뒤로 감추며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아, 미안! 손잡기가 싫은가보네."

이렇게 시작된 아이와의 만남은 횟수를 거듭하면서 알 수 없는 아이의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난처할 때가 많았다. 어느 날은 책상 밑으로 들어가선 나오지 않아 나도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 손녀 달래듯 '까꿍'하며 재롱을 떨면 나왔다. 화장실 간다고 나가선 문 뒤에 숨어 나를 지켜보고, 찾아내는 시늉을 하면 신이 나서 낄낄거리기도 했다. 걷잡을 수 없는 행동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다잡았다.

"어제 우리 반 친구랑 놀았는데…."

"어머! 친구랑 놀아서 재밌었구나. 친구 이름이 뭐야?"

기회다 싶어 이야기를 하면 더욱 입을 굳게 닫곤 "비밀!"이라며 딴청을 부렸다.

"선생님은 남편하고 몇 살 차이에요?"

느닷없는 질문에 무어라 대답해야할지 망설이다 말했다.

"두 살 차이야. 그게 궁금하니?"

"우리 외할머니랑 할아버지도 두 살 차인데 왜 엄마아빤 열 살 넘게 차이나요?"

어린 나이인 중국동포 엄마와 한국 노총각이었던 아빠가 재혼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나보다. 모처럼 가족얘기를 하는데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 한 말인지 알 수 없어 머뭇거렸다.

"아마 엄마 아빠가 너무 먼 곳에 있다가 만나서 그런 것 같은데?"

대답이 시원치 않았는지 물어본 게 후회된 건지 아이는 시큰둥했다. 다문화 아이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상처를 입은 것은 아닌지 돌아오는 내내 아이의 침울한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렸을 때 좋았던 일을 얘기해보자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더니, 엄마 아빠 동생과 놀이공원에 갔을 때를 얘기했다. 그러다 갑자기 울먹이며 "이혼한 게 뭐 우리 잘못인가?"라고 말했다.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아이를 보며 부모의 이혼으로 동생과 헤어져 상처받은 걸 알게 됐다.

"선생님, 오늘은 뭐 할 거예요?"

"그림 보고 이야기 꾸미기 할 거야."

"엄마곰과 아빠곰이 줄다리기를 해요. 엄마곰 뒤에 아기곰이 숨어서 엄마를 도와 이겼어요. 아빠곰은 엄마곰이 좋아하는 꿀을 사다 줬어요. 사실 아빠곰도 아기곰이 엄마를 도운 걸 알았지만 엄마곰 생일이라 일부러 져준 거래요."

"이야기를 재밌게 잘 꾸몄네. 잘했어! 우리 서로 칭찬하며 안아봐도 될까?"

아이는 서슴없이 두 팔을 벌려 나를 꼭 안아주며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돌아오는 길에 나도 모르게 부처님께 감사의 합장을 올렸다. '그동안 무더위도, 아이의 엉뚱한 행동도 참아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가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조용남(자비의전화 상담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뜨시고 따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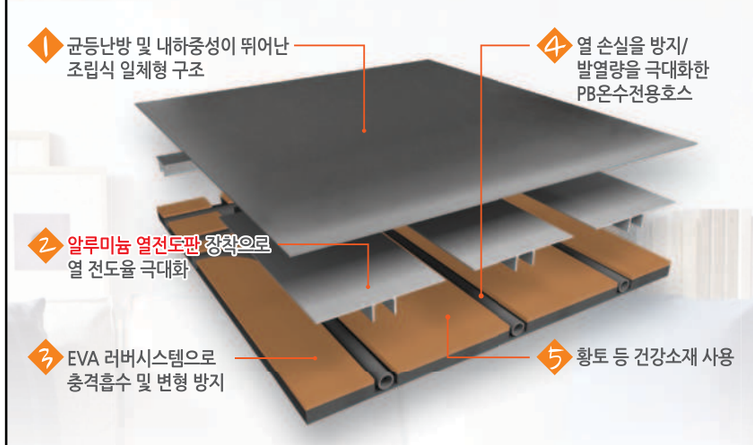
스님, 불자님
이제 연료비 걱정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난방비 50% 이상 절감 / 반영구적 수명
내하중성 최고 / 전자파 ZERO

조달청등록기업
MBC, KBS 방송광고제품



태경에너지 홍보이사 / 배우 이동준



1 균등난방 및 내하중성이 뛰어난 조립식 일체형 구조
2 알루미늄 열전도판 장착으로 열 전도율 극대화
3 EVA 러버시스템으로 충격흡수 및 변형 방지
4 열 손실을 방지/발열량을 극대화한 PB온수전용호스
5 황토 등 건강소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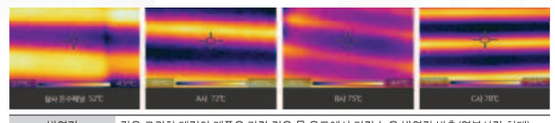
01 황토발포단열 EVA 사용
02 업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 (56%,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03 알루미늄을 이용한 방열식 온수난방패널 (특허 10-1386923호)
04 본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제품
05 난방비 50% 이상 절감 (45℃ 이하의 저온수 난방 제품)

열과 하중에 강한 태경에너지 온수난방패널 핵심기술

열을 넓게 퍼트리는 3면 알루미늄

발열량을 높이는 PB온수전용호스

원적외선 방출 및 항균효과가 있는 황토EVA



| | |
|---|---|
| 발열량 | 같은 조건하 태경의 제품은 가장 적은 물 온도에서 가장 높은 발열량 방출(열복사량 최대) |
| 열전도율 | 알루미늄이 장착된 태경의 제품이 가장 낮은 온도에서도 가장 높은 열 전도율을 보여줌 |

금새 따뜻해지는 놀라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 제품 구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태경에너지 TAEKYUNG 온수온돌판넬 전문기업

대리점 및 제품구입문의 1833-8404 www.태경에너지.kr

가스, 전기, 기름보일러 등 어디든 사용 가능합니다

# 법장 '기신론의기'에 담긴 것들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기신론 3대소 가운데 현수법장(賢首法藏, 643~712)의 〈기신론의기〉는 본문의 글을 따라 뜻을 풀이하는 축문해석(逐文解釋)이 잘 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법장은 화엄사상의 완성자로 불후의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그가 화엄사상을 완성하기까지는 기신론 연구에서부터 시작한 대승사상을 종합·회통한 탁월한 안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 그의 소 서문에 밝힌 진심(眞心)에 대한 설명은 그대로 화엄의 법성(法性) 이야기이다.

"무릇 진심은 비워 툭 터져서 무어라 파악할 수 없는, 말이 끊어진 것이며, 고요하고 흔적이 없어 주관과 객관의 경계가 망각되고,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生)·주(住)·이(異)·멸(滅)의 네 가지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며, 오고 감이 없어 과거·현재·미래를 통하여 바뀌지는 법이 없다."

기신론은 대승의 여러 경전, 곧 능가경이나 능엄경, 해심밀경,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등 여러 경전들의 내용을 포섭해 있으면서도 법장에 있어서는 화엄사상을 세우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논서라는 점이다.

법장은 16세에 법문사 사리탑 앞에서 연비공양을 한 후 불법을 깨닫고자 맹세한 다음 해에 태백산(太白山)으로 들어갔다. 그 후 운화사(雲華寺)에서 지엄(智儼)의 화엄경 강의를 듣고 지엄 문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엄과 법장이 만난 인연에 대하여 법장의 비문에는 '물을 이 병에서 저 병으로 옮겨 붓듯 하고, 우유에 물을 섞듯이 조화를 이루는 인연'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지엄 문하에서 우리나라의 의상과 함께 동문수학을 한 인연도 있다.

이후 법장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 스승을 따라 수학한 것과는 달리 오로지 지엄, 한 사람만을 평생의 스승으로 삼았다. 법장이 스님이 된 해는 지엄이 입적하고 난 2년 뒤이다. 지엄이 도성(道成)과 박진(薄塵) 두 대덕에게 법장의 장래를 부탁한 일로 인하여 지엄이 입적한 후 측천무후가 어머니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은 태원사(太原寺)에서 스님이 되었다. 그 후 다시 구족계를 받고 측천무후로부터 현수(賢首)라는 호를 하사 받았다.

현수는 화엄 3조로 화엄사상을 완성하고 화엄경을 강론하기를 30여 회나 했다고 한다. 그가 화엄경을 강설할 때는 여러 차례 상서가 있었다 한다. 운화

**화엄 사상의 완성자로 명성**

**소 서문에도 화엄 法性 담아**

사에서 화엄경을 강의할 적에는 그의 입에서 빛이 나와 천개(天蓋)가 되어 공중에 머물렀고, 십지품을 강론할 때도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오색의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다고 한다.

실차난타가 80권 화엄경을 번역할 때에는 필수(筆受)를 맡아 참여하였고 번역이 완성된 후에는 측천무후의 요청으로 궁궐 안의 장생전(長生殿)에서 80화엄을 강론하였다. 이때 강의를 들은 무후가 심오한 화엄세가 어려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때마침 궁전 한 구석에 놓여 있던 금사자상을 예로 들어 화엄교의인 이사(理事)와 십현육상(十玄六相)의 이치를 설명하여 무후를 이해시켰다는 일화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때 금사자상을 비유해 설명한 강의는 후에 저술된 〈탐현기(探玄記)〉 안에 '금사자장(金獅子章)'으로 남아 있다.

현수는 매우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선열로 밥을 삼고 살았다 한다. 우리나라 원효와 의상을 존경했으며, 그의 〈기신론의기〉에는 원효가 쓴 해동소의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그의 기신론 의기 서문에는 대·소승의 일체 경론을 종취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한 5종 설명이 있다. ①아함경 등 소승의 재부 경론을 수상법집종(隨相法執宗)이라 하였고 ②반야경 등과 용수(龍樹), 제바(提婆) 등의 논을 진공무상종(眞空無相宗), ③해심밀경 등과 유식론 등 무착 세친이 지은 논서들을 유식법상종(唯識法相宗), ③능가경과 마명의 기신론 등을 여래장연기종(如來藏緣起宗), ⑤화엄경을 원륭구덕종(圓融具德宗)이라 하였다.

# 중생 구제의 마음이 곧 보살심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㊸ 선정을 닦는 마음이란

**菩薩入救眾生禪極樂心相應無盡寶藏自然而出。一切乞者自然而至。善丈夫者能以財物大施乞者。乞者得財物已亦行大施。菩薩能以財物施於眾生使其富足。以等悲心。聞乞者聲為之雨淚。乞者見菩薩雨淚。雖不言與當知必得。菩薩見乞者來時極生悲苦。乞者得財物時心生歡喜得滅悲苦。菩薩聞乞言時悲泣墮淚不能自止。乞者言足爾時方止。菩薩修行種種施已眾生滿足。便入山林修行禪定。云何滅除諸眾生三毒苦患。菩薩財物倍多無乞者可施。我今何為守之而住。今當捨之出家。(보살입구중생선극락심상응무진보장자연이출。일체걸자자연이지。선장부자능이재물대시걸자。걸자득재물이역행대시。보살능이재물시어중생사기부족。이등비심。문걸자성위지우루。걸자견보살우루。수불언여당지필득。보살견걸자래시극생비고。걸자득재물시심생환희득멸비고。보살문걸언시비읍타루불능자지。걸자언족이시방지。보살수행종종시이중생만족。변입산림수행선정。운하멸제제중생삼독고환。보살재물배다무걸자가시。아금하위수지이주。금당사지출가。)**

번역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려 선정의 극락에 드는 마음은 한량없는 보배의 창고와 상응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나니, 일체의 구걸하는 이가 자연스럽게 도착합니다. 선한 대장부는 능히 재물로써 구걸하는 이에게 크게 보시하나니, 구걸하는 이가 재물을 이미 얻었더라도 역시 크게 보시합니다. 보살은 능히 재물로써 중생에게 보시하되, 부유하고 만족하게 합니다. 평등한 자비심을 구걸하는 이가 들으면 비처럼 눈물을 흘리며, 구걸하는 이가 보살을 보고 비처럼 눈물을 흘립니다. 보살은 구걸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비심으로 우나니, 스스로 제어하기 어렵게 눈물을 떨구거니와 구걸하는 이가 만족했을 때에야 바야흐로 그치게 됩니다. 보살이 가지가지 보시의 수행을 마치고 중생이 만족하게 되면 문득, 산림에 들어가 선정을 닦습니다. "어찌하면 모든 중생의 삼독(三毒)과 괴로움을 제거할까" 합니다. 보살은 재물이 배나 많고 구걸하는 이가 없어도 보시를 합니다. "내가 지금 왜 지키며 안주하리오" 하며 지금 당장에 희사하고 출가를 합니다.

해설

80화엄경에서는 9회의 설법 장소가 나온다. 각각의 설법 장소에서는 세존께서 정각을 이루신후 연화장사자좌에 앉아 발광(發光)을 하게 되는데, 삼천대천의 미진수 세계를 밝히신다. 그때 세존의 곁에는 티끌 수의 보살마하살들이 부처님을 위요(圍繞)하고, 각각 선정에 드는 장관이 묘사되어 있다.

선정을 닦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마음이던가. 이에 대해 제바라보살은 〈대장부론〉을 통해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하였다. 어찌하면 중생들이 몸으로 짓는 악업과, 입으로 짓는 악업과, 뜻으로 짓는 악업을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하였다. 수행자가 자신만을 위한 선정의 열락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심으로 인한 온갖 고통을 제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고 보면, 〈화엄경〉에서 부처님도 미진수 보살마하살들도 선정에 들어 부처님을 찬탄하고, 중생을 위한 법문을 열었다. 선정은 단지 고요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 포교임을 알려주고 있다.

보살이 선정의 열락에 드는 것은 마치 보물이 가득한 곳간에 드는 것과 상응한다고 하였다. 부자가 보물이 가득한 곳간을 열어 가난한 이를 구제하듯이, 선정은 중생의 삶에 괴로움을 주는 독을 없애는 보물창고를 여는 것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보살의 원력에 어떤 이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으리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 孝經과 일기장

유가(儒家)의 주요 13경 중에 독특하게 책 이름에 경(經)을 붙힌 유일한 책이 〈효경(孝經)〉이다. 〈효경〉에 담겨있는 이야기 하나 옮겨야겠다.

아미산 자락의 외진 마을에는 덕보라는 청년이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다. 듣는 소문에 아미산에는 무제라는 산신령이 있어 지극 정성으로 마음 모아 기도하면 무제보살이 나타나 소원 성취를 돕는다는 것이었다. 하여, 가난한 청년 덕보는 아미산의 산신령을 만나기 위해 아미산 계곡을 오르게 된다.

산신령을 만나지 못하고 해질 무렵 지쳐 헤매는 덕보 앞에 웬 노인이 나타나 말을 걸어온다. "날도 저물어 가는데 젊은이는 무슨 일로 아미산의 깊은 계곡을 오르는 거요?"

덕보는 범상치 않은 노인의 용모와 점잖은 말투에 기가 죽어 기어드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아미산의 산신령인 무제보살을 만나기 위해 헤매고 있습니다."

## 아들 걱정에 짚신 뒤집고 달린 어머니
## 아미산의 무제보살은 바로 옆에 있다

"산신령을 만나면 무슨 소원을 이루고 싶은 거요?"

덕보는 당황하여 평상시의 바람을 말하였다. "홀어머니가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하시어 가정이 행복한 나날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무제보살을 만나고 싶지 않느냐고 물어온다. 덕보는 꼭 뵙고 싶다고 답변한다. 노인은 조용한 어조로 힘주어 말씀한다.

"더 이상 아미산을 헤매지 말고 곧장 오던 길로 되돌아가 고향으로 향하시오. 비록 밤길이 어두우나 신발을 거꾸로 신은 사람을 반드시 만날터니 그 사람이 곧 무제보살임을 알아차려 그분의 뜻을 따르면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요." 덕보는 노인의 말씀대로 하산을 서두르며 스쳐 지나가는 사람마다 짚신을 거꾸로 신은 자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았으나 신발을 거꾸로 신고 있는 자를 찾을 수 없었다.

깊은 밤 홀어머니가 계신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는 싸리대문을 열어 달라고 어머니를 큰소리로 불러댔다. 그때 싸리대문을 열어주는 어머니는 짚신을 거꾸로 신고 있었다. 깊은 밤까지 집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울 밖에서 부르는 어머니 찾는 소리에 너무도 기뻐 서둘러 나오느라 짚신을 거꾸로 신고 대문 쪽으로 달려왔던 것이다.

아들의 어머니 부르는 소리에 단숨에 달려와 싸리대문을 여는 짚신을 거꾸로 신은 어머니. 덕보는 순간 마음이 환히 열렸다. 그토록 뵙고 싶었던 아미산의 산신령인 무제보살이 자신의 어머니, 짚신을 거꾸로 신은 어머니였던 것이다. 아미산의 산신령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싸리울안의 가까이 계신 홀어머니였던 것이다.

마음이 열린 덕보는 진리는 멀고 높고 깊은데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생활 주변에 드러나 있고 널려 있음을 깨닫게 된다. 자유와 행복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느끼며 누리는 데 그 생명력이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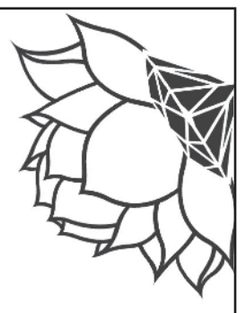
자, 이번엔 무대를 한국으로 옮겨 2013년 12월 26일의 사자암 주지 일기장에 담겨있는 산신령의 답장을 소개하겠다. 하늘과 땅의 거리감을 느낄 수 있게.

"사자암의 삼성각에는 불전함이 있는데요. 불전함에는 한 달에 두 차례 쯤 누군가 와서 1백원짜리 동전 일곱 개씩 넣고 가는데요. 5백원짜리 7개면 시골 장터에서 짜장면 한 그릇도 먹을 수 있고 황금 잉어빵이랑 떡볶이도 사 먹을 수 있는데요. 1백원짜리 7개로는 돈 보태서 사야지요. 하여, 영험 있다는 미륵산 산신령에게 부탁 말씀드렸지요. 이왕이면 1백원짜리 동전 7개 보다는 내친김에 5백원짜리 동전 7개가 불전함에 담기도록 은근 슬쩍 얼굴 두터운 바램을 담아 말씀드렸지요. 끄떡하면 라면값, 초코파이 값도 오르고 있으니 1백원짜리 동전 7개 보다는 5백원짜리 동전 7개가 불전함 속에 버티고 있길 희망한다며 능청떨며 가당찮게 속마음을 펼쳐 보였죠. 그런데 오늘 아침 삼성각의 불전함에는 1백원짜리 동전 7개와 산신령의 답장이 부처님의 회초리로 담겨 있었지요.

'저희 둘째 아이가 소아마비를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두 차례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가 용돈을 아껴 1백원짜리 동전 7개가 모아지면 아이의 뜻대로 아이의 마음을 담아 산신님, 칠성님께 올립니다. 부처님, 이 아이의 건강을 살펴주소서.'"


청견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다르마킹칼리지(절수행교육)

◎ 완벽한 : 표정, 자세, 동작, 호흡법, 동작알아차림, 감사염송법 텅빈 고요 삼매체험
◎ 순간 찰라 번뇌 망상, 잡생각 싹 끊는 비전
◎ 순간 찰라 마음이 크고 넓고 높게 큰마음 되는 비전
◎ 저절로 자동단전복식호흡의 비전
◎ 우주 태양+지구 땅의 기운 초고속 충전 비전
◎ 순수의식 참마음 참나 불성 초견성 비전

※ 상기 교육 마스터한 수행자에겐
◎ 스트레스와 부정적 맘으로 자율신경 무너져 심장 쿵쿵 뛰고 숨은 거칠고 공격홀몬 쏟아져 온몸 지배하는 병불행지옥 순간을 극복하는 지혜의 비전(10초~20초)
◎ 신명나는 인류최고의 가장 쉽고 온전한 빠른 요지부동 와선명상삼매를 체험케 함

절교육일정 :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 ~ 3시30분 (1일 3명 예약)
(깨달은 절수행이란? 책 읽고 홈페이지 참고하고 동참 요망)
절교육대상 : 상위 1% 수험생, 고시생, 명문대생, 한의사, 연구원, 벤처 CEO, IT연구원 예술인, 특별 우선 교육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신지2리 1101-1)
문 의 : 010-3487-0035 www.법왕정사.net

깨달은공동체 법왕정사 한불수행문화연구소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 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戰火서 구한 목조여래… 불교 조각사 '연결고리'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 ⑳ 사인(思忍) 스님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많은 조각승 가운데 수화승(首畵僧)이 되어 1, 2점 밖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 특이한 인상이나 대의 처리의 표현 등으로 독보적인 작품이 있는 경우가 있다. 독보적인 불상을 만든 조각승의 삶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문헌 기록의 체계적인 연구와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불상이 발견되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조각승 가운데 사인 스님이 만든 불상은 한국전쟁 중 빨치산 활동의 근거지였던 회문산(해발 830m) 만일사에 봉안돼 있던 불상으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운되어 현재 포천 동화사에 봉안되어 있다. 이 불상을 만든 사인(四印, 思忍, 思印)은 무염(無染) 스님과 계훈(戒勳) 스님의 계보를 잇는 작가로, 1640년부터 1650년대까지 많은 불상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수화승으로 참여한 작품은 1점만이 조사되었다.

아직까지 사인 스님이 언제 어디서 출생하였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다. 단지 그가 수화승으로

**조각승 무엽·계훈 계보의 조각승**

**전북 순창 만일사 여래좌상 조성**

**포천 동화사 목조석가불좌상 유일**

**지리산 내 사찰서 거주·활동 추정**



1649년에 조성된 순창 회문산 만일사 목조석가여래좌상. 포천 동화사에 있다.



1649년 포천 동화사 봉안 목조석가여래좌상 얼굴



포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발견 조성발원문(필사본)

사진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에서 일괄 제공했습니다

활동하기 이전 불상 제작에 참여한 가장 빠른 작품은 1612년에 전남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에 협시불로 봉안된 불상이다. 이 불상은 17세기 초반을 대표하는 태전(太顚) 스님이 수화승으로 만들었고, 사인 스님은 11명의 작가 가운데 마지막에 적혀 있다. 또한 스님은 2년 후인 1614년에 전남 구례 천은사 목조보살좌상 조성에 참여하였다. 이 목조보살좌상은 대화주 영원 스님이 발원하여 부휴선수(浮休善修, 1543~1615) 스님과 벽암각성(碧巖覺性, 1575~1660) 스님 등이 시주자로 참여하여 화사(畵士) 현진(玄眞) 스님, 명은(明隱) 스님, 몽능(蒙能) 스님, 언호(彦浩) 스님, 사인(思印) 스님이 제작하였다. 사인 스님은 불상 제작에 마지막에 언급되어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기록은 조각승 사인 스님이 불상 제작의 수련기를 현진의 밑에서 시작하였음 알게 한다.

그러나 사인 스님은 15년 후에 전북 남원 풍국사 목조삼세불좌상(예산 수덕사 대웅전 봉안)을 수화승 수연(守衍) 스님과 제작하였다. 그후 사인 스님은 1649년에 수화승으로 전북 순창 회문산 만일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16나한상 등을 제작하였다. 이 때 두 명 밖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1633년에 수화승 응원 스님이 제작한 전북 김제 귀신사 응진전 불상 25구를 12명의 조각승이, 1684년에 전남 강진 정수사 나한전 불상 23구를 9명의 조각승이 제작하여 언급된 인원보다 더 많이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사인은 1654년에 전북 완주 송광사 목조원패를 계훈 스님과 제작하고, 1656년에 수화승 무염과 완주 송광사 영산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오백나한상을 제작하였다. 이 불상을 만들 때 화원 무염(無染) 스님, 현준(玄准) 스님, 수화승(首畵員) 계훈(戒訓) 스님, 사인(思印) 등이 제작하였다. 또한 사인 스님은 1664년에 수화승 녹원 스님과 전남 고흥 능가사 능인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등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밝혀진 발원문과 사적기를 중심으로 사인 스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1590년을 전후하여 태어난 스님은 1612년에 태진 스님과 1614년에 현진 스님 밑에서 보조화승(補助畵僧)으로 불상 제작의 수련기를 거친 후, 1639년에 남원 풍국사 불상(예산 수덕사 봉안) 제작에 조각승 8명 가운데 4번째 언급되어 중년에 접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649년에 수화승으로 상림과 전북 순창 만일사 목조여래좌상(포천 동화사 봉안)을 제작하였다. 또한 스님은 1654년에 전북 완주 송광사 대웅전에 1m 이상의 목조원패를 수화승 계훈 스님과 만들고, 1656년에 완주 송광사 영산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500나한상 제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1664년에 수화승 녹원 스님과 전남 고흥 능가사 능인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서울 지장암 봉안)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사인 스님은 17세기 전반부터 중반까지 40여 년동안 불상 제작에 참여하였다. 스님이 불상을 제작한 지역은 전남 구례, 전북 남원, 전북 순창, 전북 완주, 전남 고흥 등으로, 지리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조각승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인 스님의 활동 시기는 1612년부터 1664년까지이다. 사인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무염(無染, -1633-1656-)→계훈(戒勳, -1654-1656-), 사인(思印, 思忍, -1612-1664-)→상림(尙林, 尙琳, -1649-1661-) 등으로 이뤄진다. 무염과 그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들은 17세기 불교 조각계를 주도하던 작가들이다.

또한 사인 스님의 후배로 추정되는 상림(尙林, 尙琳) 스님은 1649년에 사인 스님과 순창 만일사 불상을 제작한 후, 1649년에 수화승 무염 스님과 대둔사 묘련암 목조보살좌상을 조성(남양주 불암사 봉안)하고, 1661년에 회감(懷鑑) 스님과 전남 강진 무위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조성에 부화승으로 참여하였다.

사인 스님이 만든 유일한 불상은 포천시 이동면에 위치한 동화사(東和寺)에 봉안되어 있다. 이 사찰은 1957년 8월 15일에 이간대(李干大) 보살이 창건한 후, 봉선사 회주 밀운 스님이 군대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 출가한 곳이다. 현재 동화사는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末寺)로, 대웅전을 중심으로 요사와 범종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웅전 내 수미단에 봉안된 목조여래좌상은 높이가 101.5cm로, 조선 후기에 제작된 중형 불상이다. 불상의 신체는 은행나무로, 바닥면은 소나무로 제작되었다. 불상은 얼굴과 상반신을 약간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여 앉은키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신체비례는 1:0.3 정도이다.

이와 같은 신체비례는 같은 시기에 제작된 불상과 유사한데,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불상보다 신체에서 차지하는 얼굴의 비중이 커졌다. 머리에는 뾰족한 나발이 촘촘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 밑에 반원형의 중앙계주와 정수리 부위에 원통형의 정상계주가 있다. 얼굴은 작으면서도 두 귀가 옆으로 벌어지고 귓볼이 두툼하여 과장되게 보인다. 갸름한 얼굴에 반쯤 뜬 눈은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고, 코는 오뚝하게 뻗었으며, 입은 옆으로 길면서도 끝이 살짝 올라가 미소를 머금고 있다. 오른손은 무릎 밑으로 내려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왼손은 무릎 위에 수평으로 놓아 가운데 두 손가락을 구부린 전형적인 조선 후기 석가불의 수인을 취하고 있다.

바깥에 걸친 대의는 오른쪽 어깨에서 대의자락이 짧게 내려와 U자형을 이루고, 나머지 대의자락은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는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복부에서 넓게 펼쳐져 있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는 앞에 펼쳐진 5겹 주름 가운데 안쪽에서 두 번째 주름이 가장 윗부분에 놓여있고, 나머지 주름은 규칙적으로 펼쳐져 있다. 왼쪽 무릎 위에는 나뭇잎 모양의 소매 자락이 펼쳐져 늘어져 있다. 대의 안쪽에 입은 승각기(僧脚岐)를 묶은 상단의 표현은 6개의 연판이 표현된 앙련형(仰蓮形)이다. 불상 뒷면의 처리는 목 둘레에 대의 끝단을 두르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대의자락이 완전히 등을 덮고 있어 조선 후기 제작된 불상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

목조여래좌상은 2005년 3월 5일에 도둑이 들어 수미단을 훼손한 후, 불상 바닥을 뚫고 내부에 봉안되어 있던 조성발원문 등의 복장물(腹藏物)을 훔쳐가 현재 분철된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몇 장만이 봉안되어 있다. 이 불상이 동화사에 봉안된 내역(來歷)은 봉선사 회주인 밀운 스님의 증언에 의하면, 이후락 前 중앙정보부장이 소유하던 것을 자신에게 기증하였고, 이후 동화사로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이 불상은 1970년대 개금하던 중에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밀운 스님이 필사해 놓아 조성시기와 조성사찰 및 연화질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목조여래좌상은 1649년에 전북 순창 회문산 만일사에 봉안하기 위하여 화원(畵員) 사인(思忍) 스님과 상림(尙琳) 스님이 제작하였다. 발원문 내용에 석가여래, 가섭·아난존자, 좌우 제석, 십육나한, 장군, 사자를 제작한 것을 보면, 이 존상들은 나한전이나 응진전 등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특히, 불상 제작에 증명(證明)을 맡은 태호(太浩, 1564-1652) 스님은 호(號)가 호연(浩然)이고, 속성은 장(張)씨이다. 전남 나주(錦城)에서 태어나 15세에 장흥 천관산 일종(一宗) 스님에게 출가하여 30세에 보은 속리산에서 정관(靜觀) 스님의 법을 이었으며, 1652년에 나이 89세로 입적하였다. 그의 부도는 철원 보개산 심원사지에 남아 있다. 불상 제작에 화주로 참여한 덕월(德月) 스님은 이름 앞에 산인(山人)이라 적혀 있어 회문산에 거주한 큰스님으로 추정된다.

회문산 만일사는 사적비와 1760년에 간행된 〈옥천지(玉川誌)〉에 의하면 백제시대에 건립된 사찰이고, 사적비에 무학자초(無學自超) 스님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등극을 위하여 만일(萬日) 동안 이곳에서 기도하여 사명(寺名)을 얻은 것이라 한다. 1597년에 정유재란 때 소실된 것을 지홍(智弘) 스님과 원측(元測) 스님이 중건하였는데, 당시 요사는 2채, 암자는 동암(東庵), 칠성암(七聖庵), 선적암(禪寂庵)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폐사되었다가 1946년에 이르러 주지 이금담(李錦潭) 스님이 대웅전, 칠성각, 산신각을 짓고 불사를 추진하였지만, 1950년에 한국전쟁 중에 칠성각을 제외한 대웅전과 대부분 전각이 소실되었다. 사찰은 전쟁이 끝나고 1954년에 현 위치로 옮겨 법당과 삼성각 등을 건립하였다.


그동안 아껴주신 마음에 성우상사에서 국내 처음으로 거위털 두루마기와 동방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가볍고 따뜻하며 세탁시 물빨래 가능합니다. 구겨지지 않고 흡습, 발산 공기층의 형성으로 땀이 ;
체온을 유지하며 면역력을 증가시켜 줍니다.(전제품 거위솜털 800FP) (비구니, 비구스님 공용)


잔누비두루마기 88만원


반동방 68만원, 잔누비 73만원


땀이 차지 않습니다.
물수건으로 닦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바람막이겸 비옷
바람막이 상의 18만원
바람막이 하의 11만원


사폭바지
굵은누비 50만원
잔누비 55만원


보살님용
3계절용
조끼 18만원
바지 36만원
색상선택 M/L/XL

불교 박람회 참여 업체
전국 방문 상담 가능

전제품 거위털
사이즈 M,L,XL,2XL

· 누비적삼 50만원
· 실내 저고리 23만원
· 속조끼 14만원
· 속바지 38만원
· 겉조끼 18만원
· 중량점퍼 35만원
· 복대 5만원
· 버선 8만원
· 공양앞치마 2만원
· 모자 9만 5천원
· 목도리 대 5만 5천원
· 목도리 중 2만 8천원
· 목워머 1만 6천원
· 휴대용 이불 M2 (105/148) 14만원
· 휴대용 싱글이불 겸 배낭 M3 (150/200) 28만원
· 사계절 이불 600g 55만원
420g 42만원
(이불 그램수 조절 가능)

성우상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19번지 로타리상가 B1층
대표번호 : 02-2679-2848
남성우 : 010-3707-7016

단추와 옷고름(선택) 맞춤도 가능하며 맞춤시 방문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 www.namsungwoo.co.kr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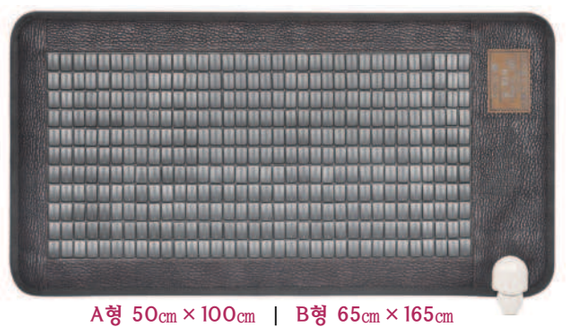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인 의료기기 입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심시에는 온열 매트로!!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 × 100㎝ | B형 65㎝ × 165㎝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완전 차단)과 함께!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 佛音포교 반세기… '소외계층 위한 또 다른 자비행'


2016년의 송춘희 씨(사진왼쪽)와 1966년 '수덕사의 여승' 당시 송춘희 씨 모습. 외양은 변했지만 불법홍포의 원력은 그대로다.

## 불자가수 1세대 송춘희 씨, 불교음악 60년 기념집 발매

'인적없는 수덕사의 밤은 깊은데~' '수덕사의 여승'으로 유명한 원로 불자가수 송춘희 씨가 가수인생 60년과 세수 80세를 기념하는 음반을 냈다. 바로 '맘짱'과 '건강이 제일'이다.

'할아버지 쌈짓돈' '노랫가락 차차차' '영산강처녀' 등 그녀의 대표곡은 당시 서민들의 애환을 어루만졌다. 여기에 그녀는 40년간 불자가수로 다양한 찬불가 음반을 발표하고 자비나눔을 실천해왔다. 그런 그녀를 10월 26일 서울 조계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 그녀는 80세의 나이에 위암과 디스크 수술 등으로 편치 않은 몸이었다. 하지만 마음만은 아직도 청춘인듯 했다.




**1976년 미국서 찬불가 보급 시작**
**1983년 귀국후 1000여 곡 발표**
**11월 2일 신촌 거구장서 기념행사**

### 미국서 세운 찬불가 포교 원력

1966년 '수덕사의 여승'으로 널리 알려진 송춘희 씨는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수덕사의 여승'을 부를 때까지만 해도 불자가 아니던 그녀는 이 노래를 계기로 불교를 공부하게 된다. 방송과 공연 등으로 쉴 새 없이 바빴지만 법당에만 오면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녀는 말한다. 이런 인연은 1976년 미국에서 광옥스님을 만나며 불법 홍포의 발원으로 꽃피웠다. 당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그녀는 찬불가 포교에 나섰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이 교회를 갑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찬송가 등을 부르며 주말 문화행사로 거듭나고 있죠. 그런데 사찰에 가니 기도만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찬불가를 보급해보자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생활이 일상화 돼서 찬불가 테이프를 만들면 차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교포들이 쉽게 부처님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찬불가노래를 취입해 배포한 그녀는 1983년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1983년 첫 번째 찬불가 앨범을 시작으로 '법화삼부경' 28품 등 1000여 곡을 내게 된다.

### 교도소 재소자 · 소년소녀가장 돕기 나서

그녀는 불자가수의 1세대로 꼽히고 있지만 포교사로서의 활동도 활발히 펼쳤다. 5개 군법당을 짓고 매주 군장병들을 만나고 있으며 40년 가까이 교도소 교정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군부대는 일요일마다 가고 있습니다. 맹호 부대 등을 방문해 노래를 부르고 장병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너무 자주가니 이젠 가족 같아서인가요? 몸이 안 좋을 때 가끔 가지 않으면 장병들이 아쉬움 섞인 말도 하곤 합니다."

이 밖에 영등포 교도소 등 교도소를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방문해 재소자들에게도 음성공양을 해왔다.

그녀는 사형수와 장기복역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새로운 발심을 했다. 바로 장기수들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사업이었다.

"사형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자녀걱정이 있더라고요. 사회에 남겨놓고 온 자식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사연에 이들의 학업만은 이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죄로 자라나는 애들까지 피해를 보게 할 순 없잖아요."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는 관음보살처럼, 그녀는 따듯한 손길을 내밀었다. 이런 원력에 다양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 1991년 백련장학회(白蓮獎學會)를 설립해 소년소녀가장과 불우학생 등 3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송 씨는 소년소녀가장 10남매의 뒷바라지를 했으며 그러다 보니 결혼도 하지 못했다.

"그래도 이들이 자라서 훌륭한 사회 일꾼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보람입니다. 노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 것도 좋지만, 사람을 키워내는 것도 인생의 큰 보람이죠."

추운 겨울 장학생 중 한명으로부터 첫 월급으로 산 것이라며 빨간 내복을 받았다는 송춘희 씨. 그녀는 이제 그동안 받은 감사패와 음반 등을 모아 작은 기념관을 하나 여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11월 2일 서강대 인근 거구장에서 조촐한 기념행사를 여는 그녀는 진정한 '맘짱'이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신작찬불가 최우수상 '우란분재' 선정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공모한 '2016 신작 찬불가 공모' 최우수상에 안승철 씨 작곡, 영심 스님 작사의 '우란분재'가 선정됐다.

조계종은 종령기관인 불교음악원이 주관한 신작 찬불가 공모에 대한 심사결과를 10월 24일 밝혔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우란분재'는 부처님의 자비로 영가를 천도하는 우란분절을 기리며 작곡한 곡으로 심사위원들은 "국악 멜로디가 조화롭게 표현됐으며, 음악적 형태가 가장 잘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우수상에는 이윤정 작곡, 우학 스님 작사의 '팔상성도 이야기'가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부처님의 일생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표현한 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려상 3곡, 노랫말 상 1곡 등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7일 오후 4시 서울 봉은사 불교음악원에서 열리며, 수상곡들은 이 자리에서 초연된다.

신성민 기자

## "불상, 외면이 아닌 내면을 보라"

### 서용선 작가의 '색과 공' 특별전, 11월 20일까지

미술과 조각을 넘나드는 행보로 한국 화단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서용선 작가의 새 작품이 눈길을 끈다.

11월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김종영미술관서 열리는 '색(色)과 공(空): 서용선' 전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이 그것이다. 부처님의 원초적인 모습을 표현한 조각상을 비롯해 서용선 작가만의 색채가 묻어나는 다양한 회화는 90여 점에 달한다.

서용선 작가(위 사진)는 단종을 비롯한 사육신과 동양신화를 소재로 했던 '역사와 신화', 도시 속 고독한 개인의 단면을 포착해낸 '도시의 군상' 등을 그림으로 그려냈다. 이번 전시에서 서 작가는 망치와 끌, 대패 등을 들고 조각가로 변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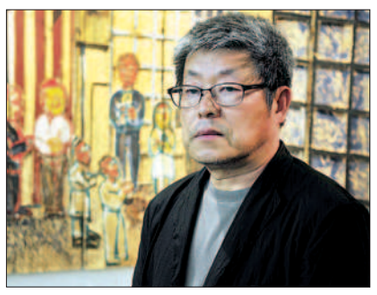
서 작가의 조각가로의 변신은 불교가 매개체가 됐다. 2015년 9월 일본 와카마야현 고야산 곤고부지(金剛峯寺)의 개산 1200주년을 기념한 '생명의 교향' 전에 참가한 서 작가는 일본 현지에서 고야산 삼나무 목재를 활용한 조각작업을 새롭게 시도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제자들을 모습을 조각으로 나타내게 됐다. 이 작품 20여 점을 비롯해 자신의 생가 모습을 담은 회화, 한글을 활용한 설치미디어 작품 등이 선보인다.

어머니의 깊은 신심에서 불교적 영향을 받은 서 작가. 그는 "인간의 내면성찰 과정에서 보이는 무아지경이 바로 행복"이라며 "번뇌에서 벗어난 순수한 모습을 조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화려하지 않고 아주 소박하고 원초적인 불상에 가까운 조각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외면을 중시하는 우리네 삶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덕현 기자




서용선 작가의 '보살'

## 추사와 선의 관계를 미술로 표현하다

### 함평군, 10월 21일 '추사와 선' 특별기획전 개최

전남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10월 21일 '2016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열리는 함평엑스포공원 내 함평군립미술관에서 '추사와 선' 특별기획전을 개막했다.

추사(秋史) 김정희는 동서 문명 전환기인 19세기에 활동한 학예거장으로, 실학자로서 추사체를 만들어 동아시아 서(書)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말까지 개최하는 이 전시회는 무량수, 백절소통 만규영롱, 백파선사에게, 천기청묘 매화동심, 유애도서겸 고기 차종문자입보리, 죽로지실 등 대자 현판과 서첩 족자의 친필 탁본 30여 점을 전시한다. 추사는 초의 선사 등 불교와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이번 특별기획전에서는 유학자인 추사의 불교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살피고, 그 사유체계를 필묵으로 표현했는지를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획전은 이러한 추사의 통유(通儒) 사상을 바탕으로 한 △사찰현판 걸작 △실사구시 선으로 통하다 △선다일미의 3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국향대전 축제 기간 중 매일 11시부터 2회, 작품설명투어가 진행되며 추사 김정희 작품 탁본 체험도 무료로 진행된다.

함평군 측은 "선(禪)은 유학자 추사의 학예세계를 결정짓는 중핵요소로 추사는 선(禪)과 교(敎)를 하나로 묶는 학문과 예술을 실천했다"며 " 추사를 화두로 호남과 우리나라, 동아시아와 세계를 학예(學藝) 역사와 교육으로 연결하고 함평을 그 중심지역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수행 정진중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

## 지혜의 보고 佛書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10.19~2016.10.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바람불면 다시오리라-소설 법정 | 백금남 | 샘앤파커스 |
| 2 | 틱낫한기도의힘 | 틱낫한 | 불광출판사 |
| 3 | 참선이란무엇인가 | 진제대선사 | 매일경제신문사 |
| 4 | 돌이키는힘(치유하는금강경읽기) | 서광 | 모과나무 |
| 5 | 날마다 새날-불교 명절에 담긴 수행이야기 | 법륜 | 정토 |
| 6 | 부처님말씀 따라쓰기 | 불교방송 | 비단길 |
| 7 | 깨달음과역사(개정증보판) | 현응 | 불광출판사 |
| 8 | 나를 생각하는 자가 누구냐(만공법어) | 만공 | 비움과소통 |
| 9 | 그녀는다시태어나지않기로 했다 | 조민기 | ㈜조계종출판사 |
| 10 | 어느수학자가본기이한 세상-조합 | 강병균 | 살림 |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 일상서 어떻게 空 실천할까?… '생의 존재'로 회귀해야

## 유식으로 읽는 반야심경

**요코야마 코이츠 지음 | 허암 김명우 옮김**
**민족사 펴냄 | 1만 8500원**



이 책의 저자 요코야마 코이츠 교수는 연구와 수행을 병행하는 일본의 저명한 유식학자이다. 그가 2000년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 2년에 걸쳐 일본 흥복사 불교문화 강좌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 책이다. 흥복사는 중국 당나라 시대 현장 스님 제자인 자은 대사 규기가 창종한 법상종의 일본 대본산이다. 법상종은 인도서 발생한 유식유가행파에 그 기원을 두는데, 이 학파는 '오직 식(識)뿐이다'라는 유심론적 사상을 창출하고, 요가 실천을 중시한다.

〈반야심경〉서 '심(心)'에 해당하는 범어 '흐리다야'는 '심장(心臟)'을 의미한다. 따라서 〈반야심경〉이란 삼장법사 현장(玄奘, 602~664)에 의해 번역된 〈대반야경(大般若經)〉 600권에 수록된 반야 사상의 핵심을 짧은 문장으로 정리한 경전이다. 유식사상은 우선 '식(識)'의 존재를 임시로 인정하고, 그 바탕서 실천을 통해 식을 변혁해 '공'에 이르고자 한다.

마음의 존재를 인정한 유식사상과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공사상은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하지만, 유식서 인정하는 마음(아뢰야식, 말나식, 의식)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유식서도 공사상처럼 마지막에는 마음마저 부정한다. 따라서 유식의 마지막 지향점은 〈반야심경〉서 주장하는 공과 다르지 않다. 서로 방법론적 차이만 있을 뿐이다. 실천적 면에서 반야경은 반야바라밀다를 닦는 것을 중심적으로 설하는 반면, 유식의 경론은 요가 수행을 강조한다. 또한 유식에서는 안식 · 이식 · 비식 · 설식 · 신식 · 의식 · 말나식 · 아뢰야식의 여덟 가지 식이나 변계소집성 · 의타기성 · 원성실성의 삼성설(三性說)을 설한다.

이 책서는 이 점을 바탕으로 삼아 요가 · 팔식 · 삼성이라는 유식사상의 새로운 용어와 '일인일우주' '생의 존재' 등과 같이 일본어 사전에도 없는 아주 독특한 용어를 사용해 〈반야심경〉을 해설한다.

유식학파서 강조하는 요가란 내용적으로는 '지관(止觀)'이다. 지(止)는 조용히 가라앉은 마음을 의미하고, 관(觀)이란 관찰하는 마음이다. 비유하자면 파도가 잠잠해진 물이 지의 마음이고, 그 위에 둥근 달을 그대로 비추는 작용이 관의 마음이다. 우리들의 평상시 마음은 산란심(散亂心), 이른바 어지러운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아도, 무엇을 말해도 전부 틀린 것이다. "지금 나는 당신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당신의 모습 그 자체를 나는 결코 볼 수 없다. 저자는 이를 '일인일우주'라 부른다. '나'를 보는 '당신'은 '나'라는 우주, 즉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 낸 영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일인일우주'를 유식 용어로 말하면 '인인유식(人人唯識)'이라 하는데, 저자는 우리가 우선 이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서, 그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유식사상으로 반야심경의 공 사상 해설**
**유식학파서 강조하는 요가는 '지관'**
**존재 전체 '공'으로의 관찰 필요**

강조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공'을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기독교에는 '신(神)'이라는 말이 있다. 불교서이에 상당하는 말이 있다면 '청정'일 것이다. 그러나 '청정하게 되자'는 것은 불교만이 아니라 이슬람교 기독교 등 모든 종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다. 우리들이 만약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청정하게 된다면 선악을 구별하는 장애가 없어지고, 선악에 구애되지 않는 대범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반야심경〉의 공은 이 대범한 마음을 설하는 것이다.

힌두교(바라문교)서는 선을 쌓아 사후에 천계로 가고자 한다. 그러나 불교는 이런 생각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선을 행해 천계에 태어나더라도 그곳은 여전히 괴로움의 세계기 때문이다. 불교는 선악을 벗어난 공의 세계에 이르러 모든 것은 공하다고, 즉 '중(中)'이라고 알고, 그 '중'을 실천해 최종적으로는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저자는 보통 사람들은 '자타' '선악' 등과 같은 차별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저 사람 싫어, 이 사람은 좋아'라 생각하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선선해서 좋아"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 범부는 이런 생각을 당연히 여기며 온갖 것들을 갖가지로 차별하고 분별한다. 그러나 이런 '분별된 존재'는 실체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언어에 의해 형성된 것일 뿐이다. 저자는 분별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선하다' '악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한다. 이것으로부터 옳고 그름, 즉 일상서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공' 사상을 알지 못하고, '변계소집성의 세계'만이 전부라 믿는 사람들은 이런 판단 속에서 우왕좌왕하기 마련이다. 저자는 특히 수많은 정보가 흘러넘치는 현대 사회서, 젊은이들은 그 정보에 의해 심어진 생각들로 인해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우왕좌왕 살면서 미혹하고 괴로워한다고 통탄한다.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야에 의해 진여를 증득해야 한다.

우왕좌왕하는 삶의 방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분별된 존재'로부터 '생의 존재'로 되돌아와야 한다. '생의 존재'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조용히 앉아 요가나 선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해 불교는 존재를 '공'이라 관찰하고, 그 지혜를 발판으로 살아가는, 즉 '실천'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자는 나와 내 주변에 펼쳐진 존재 전체는 '공'이라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 〈반야심경〉서 설하는 가르침이라고 전한다. 그런데 왜 '공'인가? 간단히 말하면 삼라만상은 연기에 의해 이뤄져 있고,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건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다'라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생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저자는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고 무아라는 모든 불교의 가르침을 관통하는 슬로건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자타불이(自他不異)의 평등한 세계와 접하자고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새로나온책



### 신라불교의 개척자들

**신종원 지음 | 글마당 펴냄 | 1만 3천원**

저자는 이 책서 56여장의 올 칼라로된 신라 유적지 관련 사진들과 도표(5종)로 집대성한 자료들까지 덧붙여 웅장한 신라불교 역사의 체취를 독자들이 한눈에 느끼게 해준다. 진정한 사회적 개혁은 이상사회의 이미지가 분명히 제시됐을 때 일어난다. 그 역할을 초기의 신라 고승들이 담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고전문화의 창조라는 진정한 문화변혁을 이끌어냈다. 그 역사적 사건들이 신라 고도의 곳곳에 남아있는 금석문 · 돌미륵 · 무덤, 때로는 지금 막 발굴되는 각종 유물들과 문헌에 살아있다. 따라서 삼국통일 이전의 신라불교사만 다룬 저서는 이 책이 처음이다. 이 초기 불교사의 해명을 위한 노력이 지금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학계가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자는 불교가 전래되기 전의 샤머니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료를 들어가면서 논하고 이미 고등종교가 요구되는 수준임을 말하고 있다.



### 부처님과 곤줄박이

**한국불교아동문학회 엮음 | 대양미디어 펴냄 | 1만원**

이 책은 한국불교아동문학회의 연간집이다. 책 속에는 동시를 비롯해 동화, 아동극본, 수필, 기행문 등 다양한 장르들이 실려 있다. 우선 신현득 前 회장의 〈날개단 교실〉 등 회원 54명의 동시 작품 92편이 수록됐다. 이어 이 영호 前 회장의 〈부처님과 곤줄박이〉 등 18인의 단편동화 각 1편씩 18편과 한국 아동문학 동극 장르에서는 유일한 작가 곽영석 회원의 동극 〈칠불암의 문수동자〉, 박춘근 회원의 수필 〈지난 그 어느 날의 이야기〉, 정명숙 회원의 기행문 〈숙이의 유람선 문화 엿보기〉 등 올해 창작한 아동문학 작품을 싣고 있다.

책 속에는 "지난 유월 첫날 부처님으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본생경으로 동화를 쓰고 있다지? 착하구나 그건 3천년 전 얘가 들려준 얘기다. 잘 써봐라. 나는 이메일로 답장을 보냈지." 등 무한 동심의 세계가 불심과 함께 녹아 있다.

이창규 회장은 "어린이를 둔 학부모가 먼저 읽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참선이 곧 염불이요 염불이 곧 참선이다

**비움과 소통 펴냄 | 주세규 편저 | 1만 4500원**

이 책은 석가모니부처님, 그리고 과위를 증득한 조사님이나 고승들께서 염불에 관한 법문 중 핵심적이면서 또 이해하기 쉬운 말씀들만 회집(會集)한 책이다. 많은 염불 수행법 중에서도 부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거나 속으로 부르는 지명염불(칭명염불)을 중심으로 법문과 수행법 등을 모아 놓은 정토서다. 성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많은 종교서 널리 권장하는 보편적 수행법이다. 그 가운데서도 인간과 천상의 스승으로 받들어지는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일은 가장 성스럽고 불가사의한 수행법이. 그럼에도 지금까지 염불은 하근기 수행법으로 치부돼 왔다. 이런 편견을 깨부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염불수행 해 극락 왕생할 수 있게 하고자 이 책을 펴내게 됐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은 저자가 2013년도에 펴낸 약 1,000쪽 분량의〈염불수행대전〉을 축약하고 새로운 부분을 보충했으며, '정토법문 요집'이란 부제를 달았다. 그리고 부록으로 세 가지를 추가해서 실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82권째 서적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신간!

법성게 3개국어판

법성게는 한마디로 화엄경의 핵심부를 훤출히 드러내놓은 게송으로 짧은 글 속에 일체 법을 고스란히 담아 놓았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통쾌한 법성게 법문이 한영중 3개국어로 출간되었다.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고 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대원선사 토끼뿔〉로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도서출판 문젠(구,바로보인) ☎ 031-534-3373

# 무료 요리수업, 할렘가에 '꿈의 씨앗' 심다

## metro, 다이켄 넬슨 스님 '만다라 키친 프로젝트' 소개

"어떤 이에게 물고기를 주면 그는 하루 동안 배부르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배불릴 수 있다."

옛 속담에 담긴 가르침에 따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요리 수업을 제공하는 미국 스님이 있다.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Iowa) 출신 사회운동가이자 스님인 다이켄 넬슨(Daiken Nelson) 씨다.

미국 생활정보지 'metro'는 10월 25일(현지시간) 넬슨 스님이 실시하는 6주 과정 '만다라 키친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만다라 키친 프로젝트는 뉴욕 할렘서 진행되는 요리수업으로, 요식업계서 일하길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실업자, 노숙자, 저소득자, 재소자, 불법 이민자, 청소년 등 그 누구라도 상관없다.

사회운동가로 활동하기 전 음식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넬슨 스님은 "내 관심사였던 음식과 서비스, 사회운동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직업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요리수업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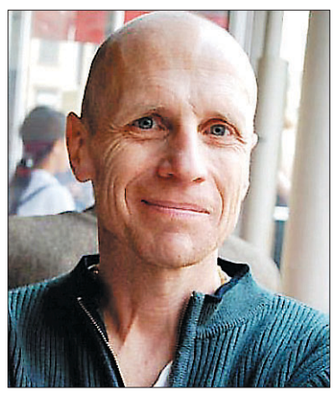
만다라 키친 프로젝트는 단순한 요리수업이 아닌 요리법과 이론을 철저히 연구, 요식업계 현장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전수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강생들은 채소 다지기, 고기 삶기 등 기본 조리법을 포함해 음식 위생 및 안전, 주방 운영법, 팀별 업무 등 숙지하게 된다.

아울러 넬슨 스님은 요리수업에 명상 및 마음챙김수행 등 불교적 수행법도 활용한다. 넬슨 스님은 "수업의 시작은 조용히 명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며 "명상은 평소에도 좋지만, 특히 스트레스가 심한 요식업계 근무자들에게 매우 좋다"고 설명했다.

요리수업을 수료한 학생은 시(市)가 주관하는 음식위생담당자 시험에 응시, 직업소개소의 구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만다라 키친 프로젝트는 비영리단체 '만다라 카페(Mandala cafe)'가 후원한다. 만다라 카페는 소규모 뷔페 사업을 실시하는데, 수강생들은 이곳서 파트타임제로 일하며 수입을 얻을 수 있다.

1기 수강생 레옹 밥티스트 씨는 "요리는 언제나 내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난 아주 어릴 적부터 셰프가 되겠단 꿈을 꿨다"며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마쳤을 때 내 실력이 일취월장해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아이오와(Iowa) 출신 사회운동가이자 스님인 다이켄 넬슨〈사진〉은 최근 할렘가서 소외 계층을 위한 무료 요리수업을 열어 주목받고 있다. 사진출처=Metro

**아이오와 출신 사회운동가로**
**과거 음식점서 일한 경력 살려**
**소외 계층 위한 무료 요리수업**
**마음챙김 등 명상법도 접목해**
**수료 후 취업 지원까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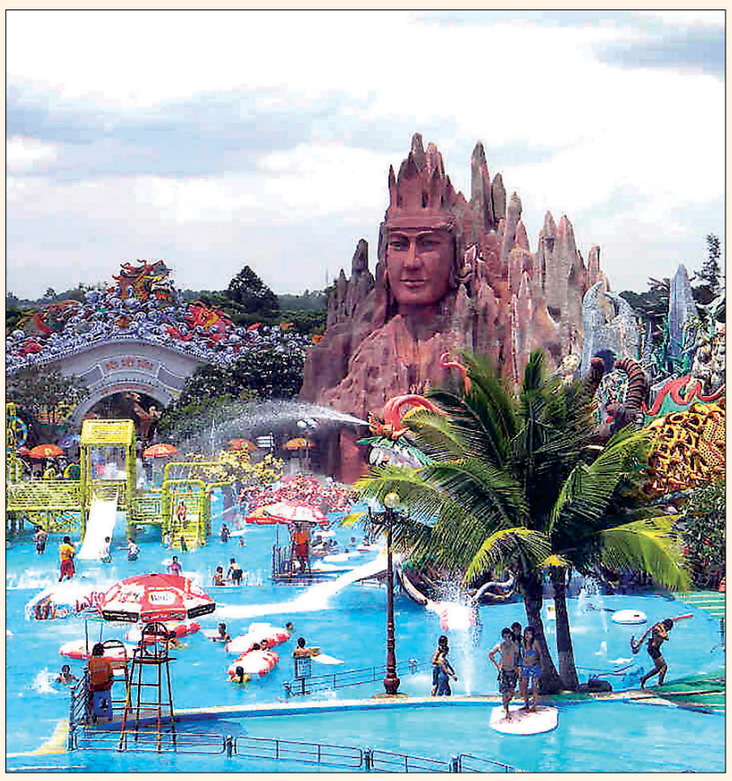
그러면서 레옹 씨는 "요식업계를 희망하는 자들에게 만다라 요리수업을 적극 추천한다. 이곳서 배운 기술들은 모두 내게 큰 도움이 됐으며, 시간을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넬슨 스님은 단순한 요리수업서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단 목표를 세웠다. 넬슨 스님은 "이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지역 기반의 '소비자 가격제' 음식점을 만들고, 이곳에 수강생들을 취업시키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만다라 카페는 지난 5월부터 할렘 지역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무료급식소'지만 이용객들은 1만 7000원~2만4000원 내서 가능한 만큼 지불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음식점서 노동을 제공하고 무료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특히 지역 무슬림 공동체 '사트야 사이 바바'도 매주 식사를 공동으로 준비하며 종교를 초월한 협력 사업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밖에도 유대교 신도들과 모르몬교 선교사들도 함께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부처님 품서 시원한 물놀이 삼매경"** 세계 최초 불교 테마파크 '쑤오이띠엔 공원' 전경. 베트남어로 '요정의 시냇물'이란 뜻으로 수도 호치민시티 남쪽에 위치한다. 1995년 9월 첫 개관한 공원은 '전통문화의 뿌리로 돌아간다'는 뜻 아래, 용, 불상 등 불교적 조형물을 곳곳에 배치했다. 16만평 150개 시설 규모로, 매년 평균 450만 명이 방문한다.
"언제나 혁신적이게-언제나 발전하라"는 공원 좌우명에 걸맞게 현재 31만 7,000평으로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며, 수영장, 놀이기구, 돌고래 쇼, 전통 캐릭터 퍼레이드, 기념일 맞이 법회 등 관람 가능하다. 사진출처=쑤오이띠엔 공원 공식 홈페이지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 호날두 불상사진 게재… 네티즌 '격분'

## 오른발 불두에 올리고 사진 찍어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1)가 불상에 발을 올리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계정에 올려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호날두는 10월 20일(현지시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좋은 아침(Bom dia)" 라는 인사말과 함께 불두(佛頭)의 받침 위에 오른발을 올리고 양손은 호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호날두가 일부러 불교를 모독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불교 신자들에게는 물론 사진을 보는 일반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주기에 충분한 포즈이다.

현재 페이스북의 해당 사진에는 6만여 개의 댓글이 있다. 대부분 댓글은 호날두가 종교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없다는 잘못을 꼬집는 내용들이다.

호날두의 게시물에 네티즌들은 "당신은 뇌가 없습니까? 매우 무례하고 안하무인에 제멋대로이군요. 부와 명예와 명성이 영원할 것이란 생각 하지 마세요. 당신은 부처님을 모독했습니다", "어떻게 부처님 위에 발을 올릴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다. 그는 깨달으신 분이지 축구공이 아니다. 당장 게시물을 지워라", "문화적 무지함으로 당신은 순식간에 수천명의 팬을 잃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불상에 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출처=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인스타그램

한편 현재 호날두의 SNS계정은 호날두의 에이전트인 호르헤 멘데스의 딸 멜리사 멘데스가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이 사진은 호날두가 SNS에 직접 올린 것이 아닌 멜리사의 실수일 수도 있다.

일주일이 지난 현재(10월 26일) 사진에 대한 잘못을 질책하는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지만 해당 사진은 계속 호날두의 페이스북 계정에 노출돼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 日불교 대표 저널리즘 〈월간주지〉 창간 42년만 '날선 취재력'으로 재조명

## 위드뉴스, 편집장 야자와 쇼도 스님 인터뷰



◀〈월간주지〉 표지.



▲〈월간주지〉 편집장 야자와 쇼도 스님.

일본에서 "〈주간문춘(週刊文春)〉을 뛰어넘는 편집구성", "날선 취재력" 등의 높은 평가로 주목받는 불교계 잡지가 있다. 인터넷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 '스님들을 위한 전문지' 〈월간주지(月刊住職)〉가 그 주인공이다.

일본 인터넷 미디어 '위드뉴스'는 10월 22일 〈월간 주지〉 편집장이자 현역 주지 스님인 야자와 쇼도(矢澤澄道 · 68) 씨를 전격 인터뷰 해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일본에서 〈주간문춘〉은 TV나 신문에서조차 다루지 못하는 일본 왕실을 비판하는 등 민감한 사안을 과감히 다루는 저명한 잡지이다. 이 〈주간문춘〉에 비교될 정도이니 〈월간주지〉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기사로 다루는 내용은 사찰과 신자들과의 마찰 문제부터 최근 인기를 끈 '포켓몬 GO' 게임을 불교계의 시각으로 다루는 등 시사문제까지 폭넓게 취급하고 있다. 특히 '어느 절의 주지가 파면 당한 것은 인권문제인가?' 라든가 '사찰이 업자를 상대로 고소해 파문' 등과 같은 제목의 기사도 과감하게 다루는 등 일본 불교계의 치부를 드러내는 면도 적지 않다. 그러다보니 자칫 일반인들이 읽으면 불교를 오해할 소지도 꽤 있어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야자와 스님은 "일반사회에 관한 내용이 아닌 스님들이 독자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일반인들이 〈월간주지〉를 읽고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매호 약 200페이지 분량의 〈월간주지〉는 모두 4명의 베테랑 기자가 취재 일선서 활동한다. 작은 사찰의 화젯거리부터 사찰 운영에 도움이 되는 여러 문제의 대처방안을 정리한 기사는 물론, 취재가 어려워 보이는 소재들도 가득하단 평가가 이어진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야자와 스님은 "특별한 취재망은 없다. 하지만 막상 취재 중 트러블이 발생하면 절에서 취재를 거부한다. 그래도 단단히 마음먹고 끈질기게 달려든다"며 "현장에 가서 사찰 근처의 쌀집이나 가게에서 정보를 얻거나 신자들을 찾아가 여러 정황과 증거를 찾아낸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취재방법"이라며 담담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사찰 안팎의 사건과 소송 문제, 과세 문제와 같은 법률상담은 물론 신흥종교에 대한 대응책까지 마련하는 등 〈월간주지〉가 취재력과 기획력에 있어서 인정받는 잡지임에는 틀림없다.

편집장이면서 동시에 잡지의 창간인인 야자와 스님에게 잡지 창간의 계기를 물었다.

"젊은 시절 주지 스님의 능력에 따라 각 사찰의 운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때 좋은 주지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됐고 이런 내용을 스님들에게 알리면 사찰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창간하게 됐습니다."

잡지는 1974년 창간 이후 지금까지 다룬 기사의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야자와 스님은 〈월간주지〉의 기사 내용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거나 일반인들이 크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 "편집부도 크게 기뻐하고 있다. 보내주신 일반인 독자들 의견이 기획에 반영되기도 한다"며 "일반인들에게 스님의 활동을 전하고, 지적받은 부분은 절차탁마(切磋琢磨)의 계기로 받아들여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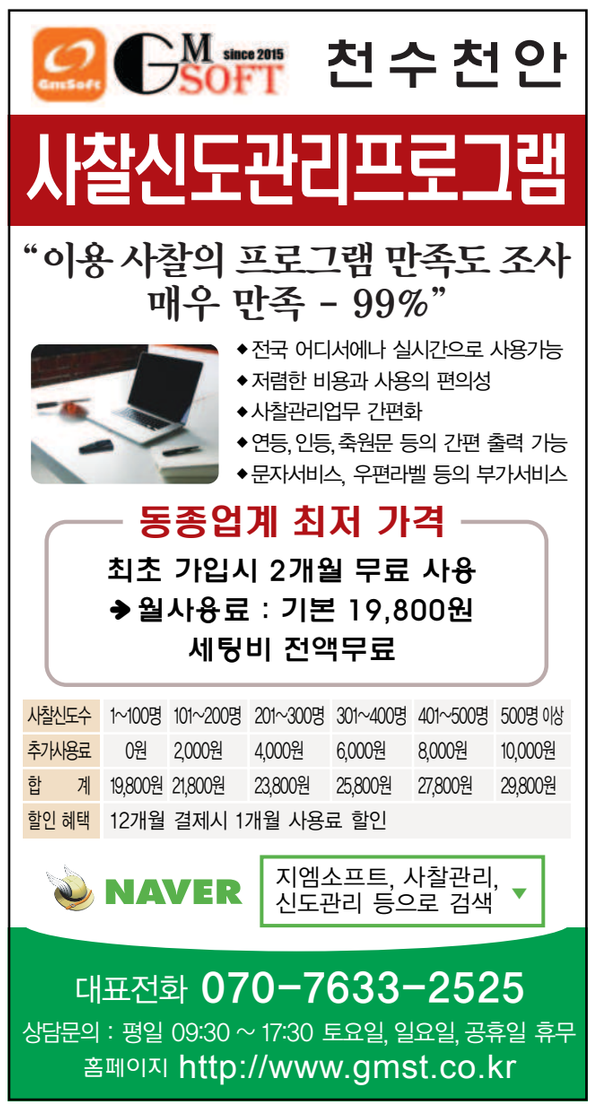
주성원 객원기자

*한국에서는 주지의 한자 표기가 住持이나 일본에서는 주지직의(住持職)의 준말인 주직(住職)으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월간주직(月刊住職)'을 '월간주지'로 번역했습니다.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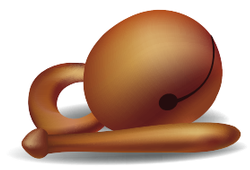
#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잘 길들인 말처럼 모든 감각이 잔잔하고 자만과 번뇌를 끊어 버린 사람은 신들까지도 그를 부러워한다.

–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정신분열,정신이상,
빙의,환청,환시,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정암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529-1076
010-9944-1075

**관상 손금**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배우자 관상을 보면 몇 살째 어디 질병이 있는지, 죽음까지 알 수 있다
– 암, 질병, 묘터, 교통사고, 이혼을 얼굴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 무속인, 철학인, 일반인 (천기누설)
– 관상과 손금, 임상비법, 관상과손금 비밀이야기(판매중)
010-4014-8822

**EST 기치료센터**
기치료 과정
최면상담사 과정
사주, 육효, 철학상담사과정
각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개업하고자하는분,공부하였으나자신이 없는분,관심은있으나배울기회가없는분)
EST 기치료최면센터
010-6666-2733

**파동명상요법**
병원에서 병명이
안 나오는 분. 빙의,
영가장애로 고통받는 분,
우울증 등 심인성 질환자
041-555-0374
주지스님 찾으세요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빙의.퇴마.전생체험 수강생 모집 (개인지도)**
3개월 과정.
교재는 무상 지급함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세종시 소정면 운당 (대승암)
010-5269-4168

**배워야 산다**
비법+명리+조상풀이법
포교당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 / 철학관 개업하실 분 / 무속제자, 신선생 / 무한 책임지도 / 사주풀이 전화 상담 중
010-5960-4984
지리산 현담

**알립니다**
법당,신당 퇴불 및 철거 전문업체
불교용품 일체 취급
법당, 신당 제작 설치
사찰 중개도 합니다
불교용품 다 사고 팝니다
010-2001-0089
010-3200-0091

**태극기문 명리**
(기문둔갑 명리비법 작명
영가작법 계의신결 팔괘법)
실전통변 완전정복
부경대학교교육원 전임
태극기문학회
051-949-1234

**사주학 제10기 모집**
• 교육과목 : 사주학, 매화역수, 성명학
• 초급반 : 사주명리 왕초보자,
• 실전반 (통변반) : 질의 / 응답식 강의
• 강사 : 정인스님
010-4047-0134
(서울 광진구 구의동)

**탱화 단청 하시는 분**
어려운 환경에 법당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산신탱화 및 단청)불사에 무량공덕 맺으실 분 인연 기다립니다
010-9085-0792
토굴 비구승 두손모음

**? 고민 해결의 지 침 서**
당신의 어떠한
고민도 해결 할 수
있는 지침서이다
010-7732-3267
농협 302-1030-1238-01 배종영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문두루 기도법?**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며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후계자를 찾습니다**
35년간 수행해온 모든 것을 다 전수 받을 수 있는 후계자를 찾습니다
(스님이나 스님이 되고 싶은 사람)
"1차 전화 상담후 면접"
063-832-0108 / 010-6513-4771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근무지역 : 부산
급여 및 근무조건 : 면접시 협의
연락처 : 051-742-7610(종무소)
조건 : 불교신도, 유경험자
나이 : 40 ~ 60대
좋은인연으로 신심있고 성실하게 임하실 수 있는 분 환영합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10-3746-8887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출가 1-2년차
**비구니 부전스님 모심**
(의식, 집전 공부하면서)
지역 : 울산, 안동 (지장정사)
울산 010-3858-0306
안동 010-6475-3439
* 출가를 원하는 비구니 행자도 모심

소승은 사주,침술,풍수지리에 대한 남다른 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 사찰이나 사찰의 모든 운영을 소승에게 맡기시고 남은 여생 편히 시봉을 받고자 하시는 스님께서는 연락 주십시오.
(세수 63, 법납 20년 비구)
010-3976-8836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 자 모 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영남 범음 범패 학인모집**
대상 : 비구 · 비구니 스님
현, 무형 문화재스님 직접지도
교육원 위치 : 부산 중구 보수동
문의처 (수시로 접수함)
김해지역 010-5687-9089
양산지역 010-9340-9674
제주지역 010-4136-8734
창원지역 010-4547-1117

대한불교조계종 본사 대웅전
**기도 스님**
모십니다
사시만 기도, 조석예불 안함
보시는 면담 후 결정
010-9043-313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 할 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과 마음 행복한 조율
상 · 중 · 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 | |
|---|---|
|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
|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br>◆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br>◆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
| 내 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br>◆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br>◆**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br>◆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br>◆**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 |
|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br>◆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br>◆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믿고 즐거워하는 마음내어 오욕락을 탐하지
않으면 곧 신심의 힘을 성취할 것이니,
이것을 견고한 믿음이라 한다.

- 광박엄정불퇴전륜경 -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탁트인 바다 전망과 전통목조 사찰◀
- 위 치 : 진해구 용원동
- 총부지 : 240여평. 1만여세대 대단지 아파트
- 건물 : 목조법당(25여평), 요사채, 목조산신각(7여평)
- 가액 : 6억 5천만원

▶ 백두대간 격조높은 사찰◀
- 위치 : 강릉
- 총부지 : 2000여평(100%가용), 버스 진입 가능
- 건물 : 목조건물 5동(대웅전 25평) 산좋고, 물좋은 고장(계곡물 철철)
- 양도가액 : 5억 3천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 동해안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단청법당 45㎡, 요사채 80㎡, 토지 1,700㎡
- 바다와 도로 인접사찰, 오래된 사찰, 위치 좋음
- 가액 : 2억 7천만원. 조정가능(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 (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경북
◎ 부지 : 80평 ◎ 부지 : 2000평
◎ 법당 : 40평 ◎ 인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요사 : 60평
◎ 양도 : 8억2천 ◎ 양도 : 2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 총부지 : 183평
- 건물 : 60평
- 법당,요사채(방4개),화장실2개
- 정원,주차장 위치 좋은 암자
- 매도액 : 몽땅 2억 2천

직통 010-2595-7752
※부산 만덕 부동산

## 안성사찰(급)안내

- 토지 1,000㎡
- 법당 60㎡, 요사채 80㎡
- 뒷편 국유지, 기도도량
- 스님 건강상 양도, 교통편리함
- 가액 : 2억 5천만(융자 6,500만)

010-7347-1010 (사찰전문)
서울연락처: 070-8154-9393
(원주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 서울 & 경기 사찰 / 포교원 중개 전문

-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전문적 / 중점적 중개
- 직접 방문을 통한 정확한 권리분석 및 상담
- 전국 매물 수백건 보유/심층상담을 통한 고객 만족 매칭서비스
- 공인중개사로서의 정확한 책임 중개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hyeonjong01)

서울.경기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70-8145-9393

## 서울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 지하철역 5분거리 버스정류장 앞
- 총 132.23㎡ (약40평)
- 가액 : 보1000만, 월100 시설비 500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70-8154-9393

## 삼보사찰안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 시설 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 청평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 3개, 욕실2개, 거실, 주방 (큰방 1개, 작은방 2개중 1개는 구들방)
- 난방 : 석유 보일러
- 실내에 패치카 있음(화목보일러 사용가)
- 가액 : 2억 4천만원

010-9411-5302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 60년된 사찰
- 종교부지 911평
- 목조 건물
- 대웅전 15평, 지장전 11평
- 요사채 23평(황토 목조건물)
- 가액 : 4억(대출 2억 2천) 대출 승계 가능함

010-6628-8271

## 아름다운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의령
- 요사채1동(25평), 법당1동(33평)
- 정자(원목), 가로 5m 세로 3m
- 총평수 300평
- 가액 : 2억 5천(은행융자 5천 포함)
-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람

010-3889-7141
주지스님

## 다용도 주택 안내

- 위치 : 경기 양평 신복리 뒤는 산, 앞은 옥천시내 아신역에서 차로 5분거리
- 정남향(대지 257평 건물 40평) 지하암반수 마당 넓음,터와 주위에 약초 많음 (용도 : 암자 포교원 사주카페 등)
- 마당에 별채 6평
- 가액 : 4억 8천(실입주금 3억) 전세도 가능

010-4234-2536

##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 IC에서 15분거리
- 부지 187평, 건물 30평, 부속건물 17평
- 도지세 년 15만원
- 가액 : 9천 5백만원

010-7765-2720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 대지 : 2,103㎡
- 법당, 요사 약 100평
- 창고, 기타 약 15평 외 20평은 기초공사 완료
- 석등 외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가액 : 7억 5천만원

010-5518-6606

##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산속 솔밭 속 사찰
- 대지 670평, 가건물 5동
- 매실나무 350그루 외 다양한 유실수 보유
- 건강 관계
- 가액 : 2억 8천만원

010-6656-8117 (주인직접)

##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 건물, 목조한옥, 원룸형 10.5평
- 부지 82평, 전 221평 (추가필지)
- 2차선 도로에서 200M
- 계곡물이 흐르고 도로 끝 지점
- 가액 : 9천만원

010-8562-4480

##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해도동
- 약40평, 삼존불, 후불탱화, 소불, 인등, 연등, 집기일체, 몸만오시면됩니다
- 명리 철학 호조건,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3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3723-0777

##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신정시장 부근
- 평수 30평, 2층독채 큰방3개, 거실, 욕실주방 시설비 금액은 1,600만원
- 편백나무 리모델링, 급한사정
- 위치 좋음, 교통도 좋음
- 삼존불, 석가모니, 약사여래, 관세음보살
- 후불탱화, 용왕, 산신, 신중
- 가액 : 전세 1,000만원에 월 50만원

010-9902-3969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대창면 한들길 85-5
- 대지 200평, 건물 2동, 아미타 지장
- 가액 : 8천 5백만원

010-7795-9856
불문스님

##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대지 45평, 건평 92평,
- 4층 건물 1층 33평(법당), 2층 24평, 3층 20평 4층 15평
- 건물 : 철근 콘트리트구조 산밑 아담하고 조용한 곳

010-5931-1071

##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2동
- 대지 41평, 건평 19평
- 방4, 단층 스라브집, 정남향집 공기 좋고 아늑함
- 가액 : 1억 1천 5백만원 융자 삼천만원 안고 팔천오백만원에 매입

051-852-1810 주인직접
010-3598-5470

## 도심 속의 아담한 암자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121-11번지
- 건물 : 단독 주택
- 가액 : 7500만원 대출 + 1억 1천 5백만원 합 가액 : 1억 8천 5백만원 (절충가능함)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010-7188-7723

##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상인동 아파트 대단지
- 약 80평중 법당 40평
- 삼존불 외 소불 200, 신중, 영가전
- 방4개, 화장실, 욕실, 창고, 옥상가능
- 가액: 보증금 무, 월세 80만원 중간세도 가능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9243-0113

##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15번길 17 (거제시장 안쪽 통닭골목)
- 3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주방, 욕실, 창고 등 보신후 결정
- 가액: 보 5백만원, 월 60만원 (60평 정도됨)
- 시설비는 보신 후 결정

010-8385-2447

## 토 굴 안 내

- 지리산 청학동, 산중턱 위치 차량주차 후 20분 산길 거리
- 완전수행도량, 약 800평
- 황토건물 4동, 법당, 삼존불, 각각 군불(재래식 난방)
- 꼭 수행하실분만 연락요망
- 가액 : 2억

011-9206-8464

## 포교원(급) 안내

- 위치: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숭인2동) 3층
- 전철 1호선, 동묘역 2번, 3번 출구 약 20m거리
- 평수 20평, 법당10평, 방2개,주방1, 화장실, 현재 살림합니다
- 법당 5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인로왕보살 글문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가격 절충, 시설비 1,600만원

010-3722-2738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 토지 : 대지 200평, 답 760평
- 건물 : 45평 (후불탱화, 지장보살 봉안)
- 방향 : 남향
- 야산에 위치한 아담하고 조용한절
- 전기, 전화, 인터넷 가능

010-2831-8573
(주인직접)

## 사찰안내 또는 전세

- 위치 : 경북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586
- 목조 법당 25평, 요사콘크리트 슬라브 50평
- 심야보일러, 전 다소
- 가액 : 3억 5천만원 전세가 6천만원

010-5780-1415
033-762-2494

## 합천 무학동굴 앞 대지 및 전원주택 매각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29-2번지
- 대지417평(1,379㎡), 건물(전원주택)44평(147.36㎡)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29-8번지
- 임야 211평(699㎡)
- 특징 : 합천무학동굴은 조선시대 왕사인 무학대사가 어린시절 수련하였던 동굴이며, 동굴에는 무학대사가 숟가락으로 팠다는 샘이 있다(경남문재재연구원의 합천무학대사 유허지 발굴 보고서 및 합천향토문화지 등에 기록)고 강숙자 보살이 무학동굴앞 부지를 매입하여 1999년부터 무학동굴을 관리하고 있었다.(건물은 2008년도 신축함)
- 가액 : 4억

010-2078-9595

## 사 찰 안 내

(시세이하 급 안내)
- 위치:경북 영천시 하북면 소재
- 임야 : 종교부지 합 15,000평 (종교부지내에 개인부지 포함) 건물 1동 (약70평)
- 터는 명당자리(좌백호, 우청룡), 토목공사 진행중
- 가격 협의 가능(현지답사후 협의 요망)

010-8014-7707
010-3832-7157

## 사 찰 안 내

- 위치:밀양IC 얼음골 방향 15분 거리
- 잣나무 숲과 계곡의 완벽한 환경
- 총면적 1,678평중, 대지 328평
- 2층 건물 1층 명상홀 및 요사 59평 2층 대웅전 24평 ● 가액 : 6억
- 대나무숲속 삼성각 4.5평 별도 요사채 28평과 창고 20평
- 원통문 수월관음, 연화탑, 포대화상 등 석물 농지에 사과나무 220주 호두나무 40주

010-4895-2050

## 멋진 2층 전원 주택 사찰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 평수 : 대지 217평 (아래층 방 5개, 법당, 주방, 해우소) (2층 방3개 거실,주방, 해우소)
- 마당 잔디 황토방 조경 좋음
- 가액 : 대출 1억 포함 2억 8천 5백만원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 대형 사찰 양도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삼동
- 2614평
- 대웅전포함 정각4동
- 전철역사 인접
- 기본계약후잔금은행대출가능
- 가액 : 65억
- 꼭 사실분만 상담가능

010-3288-1317

## 도심 공원 내 사찰(급)

- 위치 : 부산(공원내 계단 있음 10M 버스도로 옆)
- 대지 : 약 98평
- 1층건물 : 법당 40평, 기도방 5(2가구 가능) 2층 : 법당 40평, 기도방 2
- 텃밭 약 20평(과수나무)
- 가액 : (대출 7천 별도) 현금 2억 2천

010-5511-7000

## 토굴을 구합니다

- 산속이나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면 좋겠습니다
- 싼 값으로 양도하실 분이나 임대로 빌려 주실분은 연락주십시오

010-7678-5536

## 암 자 안 내

- 위치 : 공주시 계룡산 국립공원 內
- 장군봉, 임금봉, 신선봉, 천왕봉, 문필봉 동학사를 바라보며 앞쪽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좌측에는 신도안의 기운이 뻗치는 위치에 자리한 백만불의 조용한 암자
- 인연이 없으면 올 수 없는 곳
- 가액 : 18억

010-9228-6747

##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장 입구 시내버스승강장, 장소최적
- 3층건물 중 2층. 삼존불, 소불 108, 주방, 옥실, 방 1, 창고, 에어컨 1, 냉장고 1
- 즉시법회 가능, 주차 1
- 가액 : 보 1,000,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7583-1235

##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한림
- 평수 : 66평
- 건물 : 1층 24평(요사) 2층 21평(법당)
- 시설 : 삼존불, 신중, 영단
- 가액 : 9천만원(조정가능)

010-7164-7134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
- 종교부지 280평
- 법당 : 철재 경량골 23평
- 삼성각: 목조기와 7평(단청, 30년됨)
- 요사채: 철재스레트 30평,방5개, 주방1개, 화장실(실내1, 실외1)
- 임야 : 50평
- 가액 : 1억 8천(융자 6천만원)

010-3875-6305
041-759-0592

## 임법당(급)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성당시장 약 5분거리
- 평수 : 대지 약 47평, 건물 약 27평
- 가액 : 1,000만원 월 25만원 보시고 합의 후 결정

010-5387-6767

## 절 터 안 내

- 위치 :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계곡속
- 천하명당 절터 434평
- 입구에 폭포있음, 지방도 바로옆
- 전기, 관정 공사 완공 하천부지 일부사용
- 가액 : 5,800만원 (가격 절충)
- 장난전화 사절. 꼭필요하신분만, 공부하실분만 전화주세요

010-2499-3001

## 암자터 및 전원주택 부지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 자연경관 수려하고 삼면 소나무 숲
- 전기 자연우물 유 (지방국도 물고 있음) 1,300평
- 가액 : 9,500만원

부산 010-3868-7435
거창 010-4661-7734

##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 도량 총 1,420평, 목조법당, 관음전, 종각, 요사채
- 공양간 외 부속 건물, 차고, 창고,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급 2억 8천 (부득이한 사정으로)

010-4628-5699

##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
- 평수 : 법당 30평, 삼성각
- 호신불 650불, 인등 1008등
- 방 5개. 다락방, 욕실, 화장실3개, 주차 10대가능
- 신도시 형성 아파트 3만세대 고속도로 5분거리
- 가액: 5억

010-5019-5385

##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왜관읍 2번 도로길 60번지
- 2층, 40평, 법당, 삼존불
- 방, 사무실, 주방, 에어컨3대 옥상(창고로 사용가)
- 보증금 3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1,000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4813-5123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북구 시장입구
- 3층 건물 2층
- 평수 : 약 53평
- 방3, 에어컨 3대,최고시설 완비
- 보증금 900만원, 월 40만원 도시가스 시설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8770-3813

##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치악산 자락 아늑한 사찰
- 법당 30평, 산신각 6평, 노천불
- 목조건물, 전통법당
- 요사채 40평, 식당 40평, 창고 60평
- 대지 1,250평(종교부지)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6억 5천만원

010-4028-8896

## 사찰임대 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 2층 법당 50평, 욕실 1층 공양간 20평, 실외화장실 2
- 시설, 집기 일체, 시설비 없음 즉시 법회가능
- 가격: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010-8676-3423

##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173평
- 법당 25평
- 요사채 28평
- 가액 : 2억 2천만원

010-2376-5411
041-557-7786

##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욕실,주차 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010-4646-3638

중독이 나를 힘들게 할 때

토마스 비엔 · 비버리 비엔(명상 지도자)

〈5〉 명상

# 모난 성질, 명상으로 '둥글둥글' 게!



**명상은 '호흡' 부터**

한번은 틱낫한 스님이 산타바버라에서 집중 명상회를 지도하고 있었다. 참가자들이 스님에게 하루 몇 시간을 명상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스님이 대답했다. "하루 종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 종일 명상용 방석에 앉아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스님의 말은 명상이 일상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럴 때 깨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었다. 다시 말해 마음챙김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산다면 그 자체가 명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챙김이란 명상용 방석에 앉지 않은 상태에서 수련하는 명상이다. 뒤집어 말하면, 명상이란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챙김으로 깨어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와 권력, 성공과 명성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여긴다. 이런 것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다(물론 우리의 오용, 남용으로 그 본질이 변색되기는 했지만). 하지만 부와 권력, 성공과 명성만으로 우리가 바라는 평화를 실현할 수는 없다. 삶은 어려운 일과 긴장감으로 끊임없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이런 상황에서 중독은 '작은 신(lesser god)'에 대한 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중독은 (참된 치유가 아니라) 무언가가 자신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주기 바라는 염원이다. 그리고 이 염원이 알코올, 약물, 음식, 성관계, 짜릿한 흥분, 사랑의 자아도취적 황홀경 같은 '작은 사물(lesser things)'에 고착될 때 우리는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끔찍한 패턴에 갇혀버린다. 이것이 바로 중독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지옥과도 같은 경험이다.

최근 명상이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명상은 무언가 특별한 종교적 소명의 이미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예컨대 두건이 달린 수사복을 입고 수도원의 회랑을 지나가는 중세 수도사의 이미지라든지, 수염을 기른 수척한 모습으로 완벽한 고요와 지복 상태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은 요기의 이미지가 그렇다. 그러나 명상이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명상에 관한 가장 큰 오해다.

우리는 내담자들과의 상담 작업을 통해 '명상'이라는 말이 어떤 이에게는 무서움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명상을 권했을 때 내담자들이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은 "아, 나는 못해요!"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우리는 명상 대신 '호흡 연습'을 제안한다. 그러면 내담자들은 거부감을 훨씬 덜 보인다. 그러나 사실 호흡 연습도 일종의 명상이다. 그러므로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가슴을 열고 모두 받아들여라**

오늘날 우리 삶의 속도와 복잡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중독을 비롯한 파괴적 행동은 나날이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오늘날 삶의 징후다. 많은 사람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는 곳이 있으니, 바로 명상이다.

명상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오랫동안 명상을 해왔든 상관없이 명상의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결국 명상은 정해진 종착점을 기대하기보다, 매순간 끊임없이 익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禪)에서는 좌선에 적합한 마음 상태는 배움의 자세라고 가르친다. 명상 시 기본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편안하고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2. 편안하면서도 깨어 있는 자세로 앉는다. 허리를 곧추 세운 자세는 영적 에너지 중추를 정렬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고요하게 침잠하면서 내면의 중심을 잡는다. 먼저, 오감을 통해 지각되는 어떤 것이라도 느껴본다. 이제 천천히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고요하고 단순한 기쁨으로 매번의 들숨과 날숨을 경험하라.
4. 이제 주의를 기울일 대상을 정한다.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생각을 물끄러미 관찰해도 좋다.
5. 지금 하고 있는 명상의 과정을 신뢰하면서 자신을 거기에 내맡긴다. 명상은 무언가 대단한 것을 추구하는 활동이 아니다. 단지 '지금 이대로 존재하는' 시간이다.
6. 편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동안 한다. 처음 하는 경우, 10분 정도면 충분하다.

> **명상수련, 만물과 조화롭게 해**
> **경쟁 말고 편안히 호흡하면**
> **중독 충동 사라짐 볼 수 있어**
> **맞설 때 보다 더욱 효과적**

수동적 태도는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전투적인 자세로 명상에 임한다면 명상의 고유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 또 명상을 의무감으로 해서도 안 된다. '기필코 열반을 성취하겠어',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겠어' 같은 지나친 목적 지향적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명상에 있어서 목적을 가지려면 매우 단순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평온함을 좀 더 느껴보겠어', '몸과 마음이 잠시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를 맛보겠어' 하는 식이다. 자리에 앉는 것으로 당장 간디 같은 성자가 될 거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명상을 잘 할 수 있을까? 오랜 시간에 걸쳐 알아낸 비법 하나를 소개한다. 그것은 바로 명상을 즐기는 것이다. 명상에는 경쟁과 다툼이 없다. 우리 모두가 붓다이며, 누구나가 배움을 얻는 과정에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자신과 남을 상대로 분투하고 경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작은 자아(small self)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명상에 있어서만큼은 작은 자아가 개입하지 않게 하라.

누군가 달라이 라마에게 그의 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대답했다. "친절이 나의 종교입니다."

명상 수행의 목표는 자신의 모난 성질을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주의 근원적 조화, 즉 도(道)의 리듬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명상을 수행하는 이유는 꽉 닫힌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기 위해서다. 명상은 자신과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세상에 대한 비폭력의 연습이다. 경쟁심과 목적 지향적인 태도, 경직되고 강압적인 자세는 명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독, 피하지 말고 관찰하기**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현자들은 명상할 때 일어나는 산만한 생각을 어떻게 다룰까 고심했다. 위빠사나 명상(혹은 통찰 명상)은 이러한 역설의 실타래를 흥미로운 방식으로 푼다. 위빠사나 명상에서는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의 흐름에 주의를 집중한다. 요는,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과 함께하면서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도록 내버려두라는 것이다. 즐거운 생각과 감정이라고 해서 집착하지 말고, 불쾌한 생각과 감정이라고 해서 피하려고 하지 말라.

명상할 때 일어나는 산만한 생각들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괴로움과 긴장만 커진다. 중독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중독 자체보다 치유적 생활양식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중독에 맞서 그것을 없애려고만 하면 중독이 가진 힘을 오히려 키우는 꼴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을 집착하지도 회피하지도 않으면서 관찰하는 방법이다. 중독의 충동이 일어나면 그 충동을 여느 생각과 다르지 않은 또 하나의 생각으로 바라본다. 중독의 충동은 그저 오랜 기간 쌓여온 카르마(업)이자, 마음이 조건화된 상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중독 충동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과 함께할 수 있다. 충동에 힘을 싣지도 거부하지도 않으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충동을 가만히 지켜본다.

이렇게 시도하는 것만으로 습관이 우리에게 행사하는 장악력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 충동이 다시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재발 충동은 힘을 잃는다.

기도는 단지 그 현전(現前)에 임하는 행위다. 중요한 것은 신성한 공간에 머물며 초월적 존재와 접촉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느냐이다. 영혼의 움직임을 믿고 거기에 따르라. 자신의 평소 철학이 아니라 영혼의 경험을 신뢰하라. 저명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다. "성경이나 예언자, 신의 계시라 해도, 프로이트와 과학 연구라 해도 나 자신의 직접 경험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또 어느 선사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머리 위에 어떤 머리도 두지 말라." 이는 자신의 경험에 관한 '생각'을 실제 경험보다 우선시하지 말라는 의미다.

특정 수련법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반드시 그것을 수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명상의 경우에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수련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명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명상 시간이 또 하나의 '해야 할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 내면의 교사를 따르라. 미소를 띤 얼굴로 즐겁고 단순하게 수행하라. 수동과 수용에 깃든 지혜를 깨달으라.

이 글은 〈중독이 나를 힘들게 할 때〉(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당신도 명리학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를 풀어주기 위해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본 책자는 초보도 만세력에서 일주만 찾으면 성격 및 당해년 운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포교를 하다보면 제가자들이 많은 것을 물어오는데 부록편에서는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우혜안 –



慧眼求書

발행인 : 초암사 주지 혜 안 스님
주문처 : 초암사 043-215-1569
010-9405-818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초정길 156-9)
입금계좌 : 농협 317-02-322143 (우복진)

한국최초!!
내손안의 육임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순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명법(사주, 개운법 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시만 넣으면 8640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다면
육임 운명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을 만든 비술이다.

■ 시간법도 각각 年名(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와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 육임은 대운법 뿐만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를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 육임 운명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 가 액 : 600만원
(모바일 / PC 버전 : 내손 안의 육임 보는법 무료로 강좌해 드립니다.)
동영상 CD(외장하드)를 함께 드리며 화상강의도 가능합니다.
■ 육임강좌, 수강생 모집 : 수강료 300만원
■ 육임이 보인다. 공념 著 / 4×6배판 / 정가 70,000원
■ 강좌문의 : 공념학당 010-4471-6410

부처님 마음 공부

무량 청정암 열린 마음선원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부처님 마음공부를
함께하실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아 래

❶ 교육과정 및 일정

| 과 정 | 요일및시간 | 수업내용 | |
|---|---|---|---|
| 기초과정 | 매주 화요일 (요일 변경 가능) | 염불선 | 1단계 : 불교이해<br>2단계 : 경전독송 이해 |
| 중급과정 | 매주 수요일 | 참 선 | 참선이해, 법거량 |
| 고급과정 | 매주 금요일 | 간화선 | 화두참구, 깨달음 |

❷ 수업 신청 방법
– 기초과정 : 3개월 선착순 (20명 이내 한정)
– 법사와 1대 1 수업 운영
– 수 강 료 : 3개월 (30만원)

❸ 교육장소 : 무량 청정암
❹ 교 수 : 무량 청정암 최정훈 법사
❺ 문 의 : 010-2559-6886

무 량 청 정 암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176번길 23



배종훈의
명상카툰

# 山의 시간

맨살을 드러낸 산봉우리는 대부분 역암과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모래가 쌓여 굳으면 사암, 자갈이 쌓여 굳으면 역암이 된다. 아주 오래전 바다 속에서 위로 올라갈 시간을 기다리며 만들어진 산이 그렇다. 그런 산의 바위에는 가끔 조개껍질이 보이기도 했다. 오랜 시간 퇴적물이 쌓이고 단단하게 굳어진 산은 서서히 바다 위로 솟아올라 모습을 드러냈고, 다시 비바람에 깎이고 시간을 견뎌내며 수많은 봉우리를 만들어냈다.

산 앞에서 내가 아파하고 조급해하는 많은 문제들과 살아온 시간, 살아갈 시간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고 스스로 작아졌다. 조급해한다고 이뤄지지 않음을 알면서도 늘 그러고 있다는 것이 우스웠다. 이 산을 내려가면 이 순간에 느낀 시간의 사소함과 부족함을 잊고 또 마음이 바빠지겠지만, 산에 오르는 일은 잠시라도 작은 나를 큰 내가 되어 바라볼 수 있는 뿌듯한 순간이다.





윤종헌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 ① 연재를 시작하며

# 아버지도 할 말 많습니다

얼마 전 종영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넉넉지 않은 가정서 언니와 생일이 같아 한 개의 케이크에 촛불만 새로 켜서 생일축가를 부르는 가족. 그리고 그게 싫어 화를 내고 울면서 뛰쳐나간 둘째 딸을 보며, 아빠는 새로 장만한 생일케이크를 손에 들고 딸을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미안해, 아빠가 아버지 역할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 우리 딸이 이 아빠를 이해해줘."

단순히 드라마로 흘려듣기에 이 대사는 이 세상 아버지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사실 필자를 포함한 한국 아버지들은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에 대해 특별히 시간 내서 배운 적이 없다. 여자는 태교, 육아법 등을 배울 기회도 많고 또 정보를 얻을 곳도 많지만,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 모습을 기억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준 이도 거의 없다. 그리고 나의 어린 시절엔 모든 아버지들이 그러했듯이 보릿고개를 넘기며,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도리와 의무였고, 가족에게 밥을 굶기지 않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아버지라는 막연하면서도 굳센 믿음을 갖고 살았다. 또 우리 어머니들이나 자식들도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거나, 그 이상의 요구를 못하고 살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경제가 성장하며, 물질이 풍요해지고 행복의 가치관이 변해가면서 아버지들은 거센 도전에 직면한다. 경제권을 쥐고 가정서 제왕적 지위를 누린 아버지들은 가정의 민주화에 직면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것은 기본 역할이고, 그 외에도 남편으로서 자녀 양육자로서도 훌륭한 자질과 품성을 갖춰 달라는 가족과 사회의 거센 요구에 맞닥뜨린다.

이때부터 아버지들은 적잖이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밖에 나가 '어떻게 하면 직업을 갖고 사회적으로 성공해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까' 만을 고민하던 아버지들은 한 번도 요구받거나 배운 적 없는 이런 가족과 사회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갈팡질팡한다. 한편으로는 이런 요구에 대한 항변을 해보다가 그마저도 안 될 때는 회피도 불사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다 언론에서는 가정의 문제를 다루면서 심심치 않게 아버지가 가정 파탄의 주범이고, 아버지만 잘 하면 이 세상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사회에 심었다. 결국 아버지는 점점 더 설 곳이 없는 존재가 돼 가고 있다.

필자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회 초년 시절엔 일에 젊음을 불사르며 사회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직장서 승진하고, 급여가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자 아버지와 남편의 의무며 인생최고의 가치관이라 여기며 살았다. 하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따돌림 받기 일쑤였고, 어느덧 필자 스스로 가족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이 시대 문제적 아버지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고 있던 참이었다.

이와 관련해 아버지의 사회적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불교의 마음법 안에서 조망해 보고자 한 한마음선원의 연구교육기관인 '한마음과학원'에서는 '아버지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다'라는 대 전제하에 불교의 마음 법을 토대로 아버지들을 통한 가정의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수년에 걸쳐 아버지들과 인성교육전문가 집단으로 연구팀을 구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10년 제1회 '한마음아버지마당'이라는 아버지들만을 위한 마음공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한마음아버지마당'은 지금까지 5회에 걸쳐 40대에서 70대 아버지 약 1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을 통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가족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가족이 행복하려면 아버지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상당한 사례와 데이터를 축적해 오고 있는 중이다.

**'좋은 아버지 되는 법' 배운 적 없어**
**가족과 사회 요구 앞에서 '갈팡질팡'**
**점점 더 설 곳 없는 존재 되어가**
**'아버지 행복법' 연구 필요성 느껴**

솔직히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건 남자들만 아는 남자들의 속성이었다. 남자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남자들은 처음 보는 남자들과는 거의 대화를 안 한다는 사실이다. 우스갯소리로 여자들은 처음본지 10분만 지나면 남편 욕하고, 아들 자랑한다고 하지만 남자들은 여러 실험에서도 증명되었듯이 1시간이 지나도 인사 한 번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동물이다. 특히 자신의 부끄러운 가정사에 대해서는 바윗돌 같이 침묵을 지키는 속성이 있다. 오죽하면 죽마고우가 이혼한지 10년이 지나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첫 시간 팀당 5~6명 정도의 그룹을 이뤄 첫인사를 나누는 순간부터 순식간에 소란스러운 수다의 장이 펼쳐지기 시작했고, 이를 보고 놀란 것은 진행팀뿐 아니라 참가한 아버지 자신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그동안 아버지들이 얼마나 억눌려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첫 회, 어느 팀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저 사실 재혼가정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이가 있었고, 이 아버지는 교육활동 발표를 하면서 "제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재혼한 사실을 이야기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고백을 해 듣는 이들의 놀라움과 공감을 산 일도 있었다. 이렇게 '한마음아버지 마당'은 아버지들의 수다와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수많은 에피소드를 낳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아버지들의 뜻밖의 모습은 평생을 마음속에 누르고 담아왔던 이야기들을 어디선가 털어 놓고 하소연 하고 싶었던 인간으로서의 욕망이었고, 이 시대 아버지들은 자신의 이야기조차 맘대로 할 수 없는 마음의 감옥 속에서 살아온 것이 아니겠느냐는, 탄식을 금할 길 없는 아버지의 슬픈 자화상이기도 하다. 아무튼 이때부터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숨조차 제대로 못 쉬고 살아온 남자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훌훌 벗어버리고, 실컷 이야기하고, 마음껏 소리 낼 수 있는 시간이 됐다.

필자는 다음 회부터 이 한마음아버지 마당을 진행하며 많은 아버지들과 같이 울고 웃으며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자녀와의 관계, 남자로서의 아버지, 아들로서의 아버지, 가족 대화법, 아버지 이전의 나를 찾아서 등의 관점별로 써나갈 예정이다.

**윤종헌 팀장은** … 한국외대 스페인어과를 졸업, 동대학원 경영정보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現 한마음과학원 '한마음아버지마당' 교육팀장 및 선수행실천연구회 정회원이다. 이밖에 비영리민간단체 '사람과 사회적경제' 이사, 불교여성개발원 웰다잉운동본부 회원 등 맡고 있다.





대행 스님



# 각자 자기가 자기를 진짜로 믿고 실험하고 체험해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여)** 스님, 이렇게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이번에 설악산 꼭대기에 있는 봉정암이라는 절에 갔었습니다. 가서 눕지도 않고 순전히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데, 조그마한 시루에다 시루떡을 쪄 가지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것을 들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고, 또 조그마한 그릇에다 맑은 물에 고기 한 마리 띄워 가지고 들고 들어오는 것도 보였고요, 또 조금 있다가 기도드릴 때는 새카만 엽전 두 개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주어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스님께 한번 여쭈어 보려고 왔습니다.

**큰스님** 보살님, 잘 들으세요. 세 가지의 꿈이라고 그러셨죠?

**질문자1(여)** 예. 꿈인지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서 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큰스님** 한 시루의 떡은 우주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고기 한 마리가 물에 담겼다고 그랬죠?

**질문자1(여)** 예, 띄워서 들고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큰스님** 우리가 지금 물속에 고기 한 마리 떠 있는 거와 같습니다. 그렇죠? 흘러 도는 물에 고기 한 마리! 그 한 마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그렇게 놀고 있다는 표현이죠. 또 돈은, 여러분이 지금 찰나 생활을 하는 것이 돈입니다. 돌고 돌죠. 돈이라는 거는 어느 개인 한 사람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한테 돌아가고 있죠. 우리 인간도 고정되게 묶여 있거나 머물러져 있지 않고 찰나찰나 맥박 뛰듯 돌아가죠, 시공이 없이.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행선을 하면서 생활이 그냥 참선이라고 하면서 돌아갈 땐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용도대로 놔 버려야 합니다. 꿈도 아니요 생시도 아닙니다. '생시도 꿈이고 꿈도 생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되게 알기 위해서고 깨닫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니 그 꿈에 착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거는 공부하는 과정을 표현해서 여러분한테 꿈으로 보여 준 겁니다. 그것은 내가 모르니까 이 도리를 공부하는 데 깨달음을 주기 위한 과정이고 환상일 뿐입니다. 환상입니다. 그러니 그런 환상이 나타나걸랑 '아하, 나를 깨닫게 해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게 해 주시느라고 이런 꿈을 꾸게 해 주셨구나!' 그러고선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놓는 겁니다, 그것도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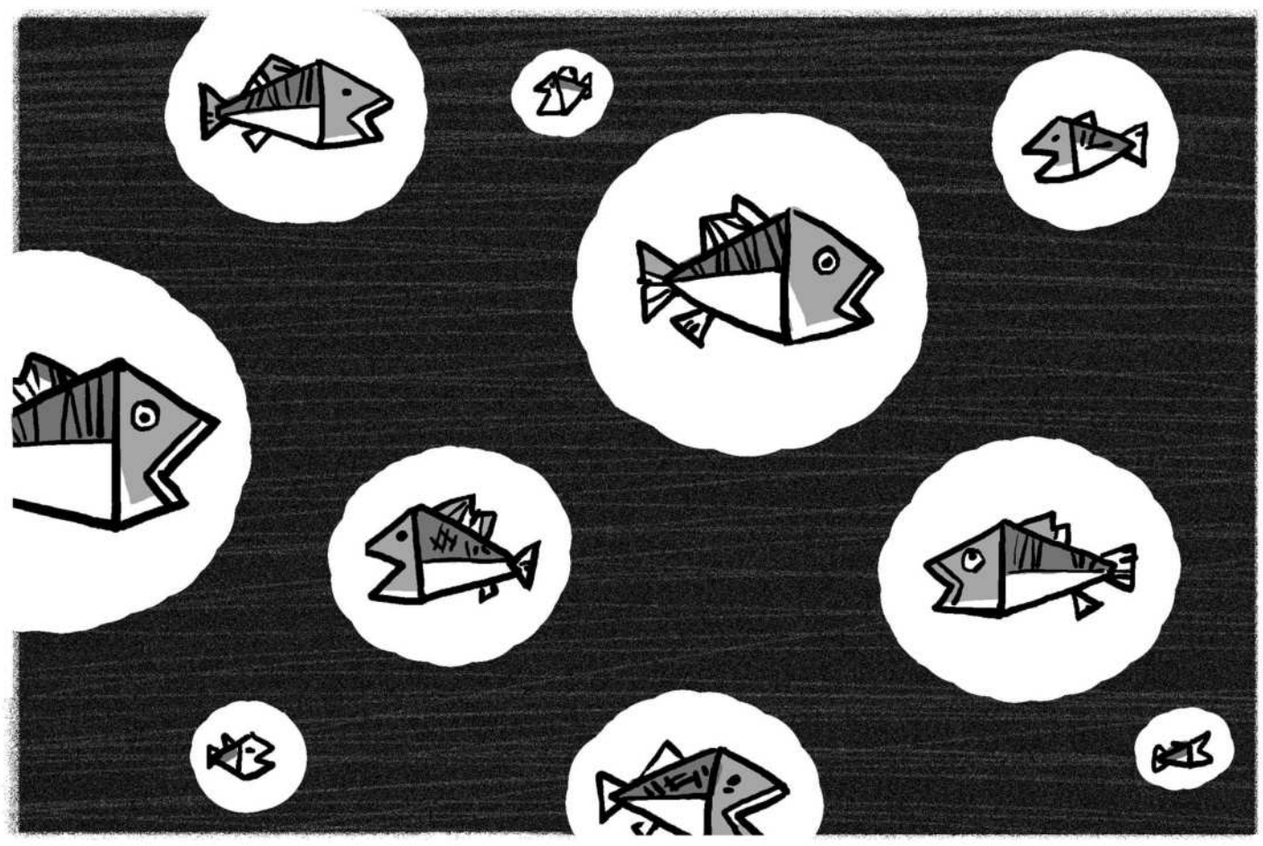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렇기 때문에 타의에서 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무엇이 보인다, 생시에 뭐가 안 된다, 누가 잘 보는 사람이 "당신 한 달 후에 뭐가 생길 거야.", "병고가 생길 거야.", "잘될 거야." 하더라도 여기에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도 거기다가 모두 놔야 됩니다. 잘될 것이라고 해서 좋아하지도 말고 언짢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언짢긴 뭐가 언짢습니까?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달린 거지 그 사람이 언짢다고 그래서 언짢은 게 아니고 좋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꿈에 그렇게 보였다, 또 꿈을 나쁘게 꾸었다 이런 때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시다가 엎어지셨으면 자기가 일어나야죠? 그렇죠? 그와 같이 거기서 언짢다고 생각하는 건 내 소견이니 언짢은 거를 언짢다고 생각 마세요. 그리고 언짢다는 생각이 들면 '아하, 언짢은 것도 좋게 할 수 있는 건 주인공밖엔 없지.' 하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놓는 겁니다.

**질문자1(여)** 그런 게 있어서 '어이구, 높은 산에 이렇게 내가 힘들게 올라왔으니 내가 성불을 하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큰스님** 뭐라고요? 허허, 이거 보세요. 성불이라는 것이 가깝고도 멀고 멀고도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처를 이룬다는 생각도 말고 '아이고, 나는 부처가 안 돼.'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중생이다 부처다 이런 생각도 마시고 자기가 성불하기를 집착하고 그러질 마세요. 그래야만이 부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가 없죠? 부처님이 진짜 되신다면 한 발 내려딛고 보살행을 하면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보살행을 한다 이 소립니다.

**질문자1(여)** 예, 감사합니다.

**큰스님** 예. 질문하실 분 없어요?

**질문자2(여)** 영가 천도에 대해서요. 저는 법을 잘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얘기로는 해마다 조상 천도를 해야 되고, 그런 행사를 각 사찰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백중 때에 여기 와서 보니까 '아무개 성씨의 일체 조상' 그러고 그 기도를 접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일체 조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많은 성씨들이 거기 다 같이 결합해서 오늘의 내가 있다고 생각했을 적에 어느 조상이든지 내 조상이 아님이 없다 하는 데 공감을 가졌습니다.

**큰스님** 아유 참! 도인이 나셨네요, 또.

**질문자2(여)** 죄송합니다.

**큰스님** 아니에요. 정말 그런 생각 하시기가 어렵죠.

**질문자2(여)** 그래서 저는 천도를 부탁하고 제가 다니던 사찰 도반에게 "나는 이번에 큰스님한테 조상 천도를 부탁드렸는데 틀림없이 천도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그런 믿음을 갖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는 바로는 법력이 크신 분은 그 근원을 찾아서 천도를 하시기 때문에, 스님이시라면 완전히 천도를 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그럼 당신은 다음 해부터는 조상 천도를 안 할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천도된 영혼이라면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부터는 일체의 유주 무주 고혼을 위한 천도의 방법은 택하겠지만 내 조상을 위해서 하기보다 부모나 형제, 친척이 죽기 전에는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길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 보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제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큰스님** 그거는 보살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참 생각 잘하셨습니다. 틀렸다는 사람은 자기 소견이지 보살의 소견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생각도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러니 전부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데도, 부처님이 다 건져 놓으셨는데도, 여러분이 벌써 인간이 됐으니까 99% 부처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 때문에 모두 중생인 것입니다. 아까 '일체 유주 무주'라고 그랬죠? 그러면 일체 조상과 부처의 조상, 자기 전생의 조상도 전부 일체입니다. 유주 무주를 말할 건덕지도 없죠.

그러니 만약에 떡 한 그릇,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놓고 내가 밥을 먹다가 천도를 시켜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분들은 그렇게 호탕하게 "얼씨구절씨구 좋을씨구!" 하하하…, 이러는 겁니다. 이 말을 해도 함이 없이 하게 되고 그냥 그대로 말을 하면 법이 되고 그대로 움죽거리면 행이 되니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요 알뜰살뜰한 말, 내가 끝으로 한마디 해 드리겠는데, 지금 보살님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 26면으로 계속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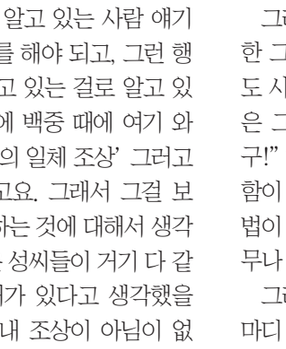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지국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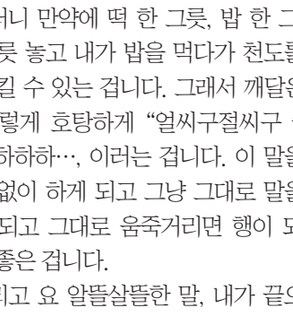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그냥 움죽거릴 뿐이고 그냥 말할 뿐이고 그냥 살 뿐이다

☞ 25면에서 계속

이렇습니다. 절에서 상을 크게 차려 놨습니다. 차려 놨는데 고여서 놨죠? 그런데 먼저 스님네들이 음식들을 그렇게 고여 놓고 크고 작은 거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아! 이만큼 차렸으면 영가도 마음이 풍족하겠지.' 요렇게 생각합니다. 허허허…. 그러니까 그 상에 차린 것밖에는 영가가 모릅니다. 만약에 영가를 천도시킬 분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일체를 그 한 손에 쥐고선 이걸 한 떡이라 생각할 때 그 영가도 '아, 그 떡이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가 천도는 그냥 스스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님이 그렇게 물질로만 생각을 하니까 영가들도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밖에는 못 받고 그거밖에는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모두 넓어져서 항상 그저 이리로 가도 둘이 아니요 저리로 가도 둘이 아니요, 이렇게 주고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도 천체물리학으로도 보세요. 얼음 속에 생명을 넣었다가 다시 살리는 실험이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겨울에 물고기들이 얼음 속에 있다가 봄이 와서 물이 녹으면 그냥 살아납니다. 그러한 걸로 봐서도 그렇지만 이 부처님 법이란 깨달으면 다 알게 되는 이유가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누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못 잊어서 참 애쓰길래 그 가족 과거를 이렇게 보니까 아, 그분이 참 착하더란 말이죠. 산 자식들도 착하고 그분도 착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착한 것만 아는 게 아니죠. 그분을 만 명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또 천 명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세 명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한 명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을 그 집에다가 세워 놓고 그 집을 위해서 심부름하게끔 하기 위해서죠. 살아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심부름을 했는데 죽어서도 모습 없는 모습으로서의 그 마음을 심부름하게끔 할 수 있는 거죠. 요걸 잘 들으세요. 그 아버지가 착하니까 내 마음과 둘이 아니게 내 주장자를 그쪽으로 주니까 그분이 고만 나하고 똑같이 알게 됐더라 이거죠. 또 그분이 모른다면 그분 주장자를 내가 뺏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도리를 모른다면 항상 세균에 끄달리지, 영계에 끄달리지, 업보에 끄달리지, 윤회에 끄달리지. 여러분이 그런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냥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없이 들어오고 나가거든요. 영계가 들어와도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거든요. 가정을 온통 그냥 막 뒤집어 놔도 그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중생이라 하지요. 그러니 그것을 다 해결하고 녹이고 막고, 둘이 아니게 모든 것을 법바퀴로 둥글리고 불바퀴로 굴려서 새로 생산해서 보살로 화해서 나가도록 해야만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여러분은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서 뭐냐? 아까 고거 얘기했죠. 네가 그 마음을 알면 내가 주장자를 줄 것이로되…. 예전에 임제 스님도 그랬어요. "만약에 네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네 주장자를 빼앗을 것이고…. 네 주장자가 없다면 일체 모든 세균이나 영계가 털구멍을 통해서 너의 집을 드나들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도 너는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느니라. 네가 네 주장자가 있다면 내가 네게 주장자를 줄 것이니라." 이랬거든요. 그게 뭔 소리냐. 그 마음이 통하니까, 힘을 저기다가 줘도 저 사람은 그 힘을 악의로써 쓰지 않고 선의로써 만법을 들이고 내면서 보살행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가 행하는 거를 알려면 여러분도 나와 같이 알아야 내 속을 바로 꿰뚫어 볼 거 아닙니까? 내가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는지, 구름도 안 타고 가고 옴이 없이 돌아다니는지, 무엇 때문에 다니는지 그것도 알 거 아닙니까? 왜 저이가 저렇게 못났는지 그것도 알 거고요. "아니, 그렇다면 저이는 잘 그려 가지고 나오지 왜 저렇게 못나게 그려 가지고 나왔어?" 한다면 내 속을 알아야 왜 이렇게 그려 가지고 나왔는지 알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잘 그려 가지고 나왔다면 난 이러지 못하거든요. 안 그래요? 미인으로 아주 잘생기게 태어났다면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차라리 못 그려 가지고 나오는 게 좋겠지요?

못 그려 가지고 나왔는데도 젊어서 한때는 남이 더러워서 피하게끔 얼굴에 진흙을 발랐거든요. 어때요? 그 방편도 좋죠? 그래서 볕에 말리니까 진흙과 같이 말라서 피부가 쩍쩍 갈라져서 피가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모두 "미쳤다. 미쳤다." 하고 또 그냥 싱글벙글 싱글벙글 하니까 "아, 미친 사람인데 갓 미쳤나 봐. 그런데 왜 산에까지 올라왔지?" 이러거든요. 만약에 그럭하지 않았더라면, 키도 크고 미인이었더라면 날 그냥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고도 또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의도대로 마음대로 못했을 거다 이겁니다.

나는 잠깐 동안이라도 안 해 본 게 없어요. 하다못해 맷돌질, 키질, 모심는 것까지도 조금씩 안 해 본 게 없어요. 어떻게 하나만 가지고 잔뜩 붙들고 몇 해씩 나가겠어요? 잠깐잠깐이지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해 본 바,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더 당차지고 믿음이 옵디다. 그러니 여러분도 각자 자기가 자기를 진짜로 믿고 실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믿어야 해요. 왜?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있었던 거지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너부터 알라." 이랬더니 죽였다지 않습니까? 허허허…. 잘못이라고 말입니다. 아까 천도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천도를 꼭 상을 차려 놓고 해 줘야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잘 잡숫고 가시게 해 드렸으니까 잘됐겠지.' 요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런 분들은 차려 놓고 해 주고, 어떤 분들은 "스님, 제 성심으로 부모를 위해서 마음을 냈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해 드린 것도 없고, 또 그렇게 고생만 하셨는데 살 만하니까 돌아가셨으니 이렇게 해 드리는 겁니다, 부모를 위해서. 그러니 천도 좀 시켜 주십시오." 그러고는 가거든요. "그러면 주소하고 이름도 써 놓고 가고 뭐, 물건을 해 와야지."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이름도 성도 없어도 부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라. '야, 참! 저이가 부처구나, 하하.' 이러고선 말입니다, 얼마나 껄껄대고 웃었는지…. 그래 그 돈을 받아서 두 군데 세 군데로 나눠서 누구를 줘 버렸어요. 그냥 줘 버렸죠. 난 그렇게 쓰는 돈이 한 달이면 아마 꽤 될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그냥 그런 거죠, 뭐. 그냥 돌아갈 뿐이에요. 그냥 움죽거릴 뿐이고 그냥 말할 뿐이고 그냥 살 뿐이에요. 모두가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위로는 내 부모 아님이 없으니, 우리가 잠시 잠깐 살다 가는 것이 저 뜬구름 한쪽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와 같죠. 그처럼 흘러내리는 물과 같고 스쳐 가는 바람과 같고 가을에 나뭇잎 떨어지는 거와 같고 꽃이 피었다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거와 같은 것이 인생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가 '모른다 안다' 그걸 떠나서, '저 스님은 도인이야, 도인이 아니야' 이런 거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좀 더 진실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을 할 수 있다면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유(有)의 법으로써 남을 돕는다고 자기 먹을 것도 다 갖다가 주라는 게 아니라 나와 그와 둘이 아니게 생각한다면 바로 내가 줄 수 있는, 콩 한 쪼가리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마음을 내되 남에게 해롭게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이겁니다. 행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행이 없이 무(無), 공(空)에 빠지거나 유(有)에 끄달리거나 이래도 안 되죠. 유의 법으로 물질세계로 끄달리거나 그래도 안 되고 무의 세계, 공에 빠져도 아니 되고, 나만 참선을 한답시고 안주해도 아니 됩니다. 이거는 천체가, 변소간에 가도 부처는 거기 있으니 참선이요, 어디든 내가 가는 족족 부처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바로 그것이 참선이라. 그것이 행선입니다. 일체 만법이 다 행선이며 참선이에요. 여러분 생활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도를 이루지 못하고 환상천을 넘지도 못하고, 바로 불사천을 넘지도 못하는 것이고 무명천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복으로 끄달린다면 달마대사가 양 무제더러 한 말과 같은 겁니다. "나는 절도 짓고 또 물건도 많이 장만해서 스님네들한테 보시했고 옷도 해 드리고 쌀도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 공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고 달마 대사한테 양 무제가 물어보니까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님은 아실 것이니까 우리 아버지 천도시켜 주세요." 하고 갖다 준 돈이 바로 그분이 다시 태어날 때 통장을 해 가지고 나오는 그 돈이 돼 버렸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마음이 둘이 아니게 되어서 그분도 그냥 한 찰나에 부처의 도리를 알게 됐으니 부처님이 됐고 보살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돈은 그렇게 공덕이 됐으니 그냥 그분의 무의 통장이 돼 버렸어요. 유(有)의 통장이 아니고 무(無)의 통장 말입니다. 그 무의 통장이 미래의 유의 통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 도를 깨쳐서 나올 사람을, 즉 말하자면 미륵보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재림하신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지금 그냥 생활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도 마음이 그만큼 그렇게 됐으면 벌써 그건 보살이요 부처입니다.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내가 보시를 했으니까….' 이러면서 아무개는 얼마 했고 아무개는 얼마 했고 이렇게 주렁주렁 써 붙인다면 어떻게 자기 미래의 통장을 갖겠습니까? 그러니 공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러 가서 "이 돈은 내가 줬으니까 내 돈이요." 하고 돈을 쥐고 있으면 물건을 주지 않습니다. 돈을 가져와서도 '요 돈을 내가 갖다 줬으니까….' 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면 돈을 못 받았으니까 가게에서 물건 주는 사람이 물건을 안 주죠. 돈을 만져 보기만 했지 그게 준 돈입니까, 어디? 이거는 "아주 너 써라." 이러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이 시주를 하면서 함이 없이 하지를 않고 '시주를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겠지.' 요렇게 하고 보시한단 말입니다. 요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걸 주고 끝끝내 줬다는 거거든요. 줬다고 아주 써 붙여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물건을 가져갈 수가 있어야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 놓고도 "나는 이렇게 주인공을 믿고 이랬는데도 안 됩니다. 믿었는데도 그렇거든요." 이래요. 믿긴 뭘 믿었습니까? 세상에 죽고 사는 것도 다 거기에 놓고 믿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진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진짜 믿는다면 내일 죽으면 어떻고 오늘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 자식이 금방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해도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어떤 사람이 묘지를 쓰고 나서 무척 앓았습니다. 그 집안의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자식들이 그냥 내리내리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소 묘지가 잘못됐다고 갖다 옮기려니까 돈이 없어서 산을 사지 못하는 거예요. 화장을 시켜 버린다니까 또 가족들이 야단들이고요. 그래서 "산을 사서 이쪽으로 묻자니 돈이 없고, 그냥 놓아두자니 자꾸 집안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쩌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더러 그런 소리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거기에 산소 잘못 썼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의식 자체만 딱 들어내면 그거는 그냥 고깃덩어리고 흙덩어리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탁 오는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주인공에 그냥 놔 버리면 될 것을…. 스님, 죄송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러곤 울면서 가더니 그 뒤에 그 집안이 다시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질문하실 분 없으면 그만 일어날까요?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해서 새달이나 또 훗달에도 그렇고, 같은 도반으로서 항상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우리 자유권을 얻읍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선을 하면서**
**생활이 그냥 참선이라고 하면서 돌아갈 땐**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용도대로 놔 버려야 합니다**

※위 법문은 1989년 10월 1일 부산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 붓다의 자비와 착한 사마리아인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한국 사회의 도덕적 위기에 대한 개탄의 소리는 귀에 면역이 될 정도로 요란하다. 너나 할 것 없이 도덕성 회복의 목청을 돋우고 있으나 찢어진 거미줄을 손가락으로 수리하려는 짓이 아닌가 하는 절망감이 들 때도 있다. 그러나 긴 가뭄에 소나기처럼 이 절망감을 녹여 주는 아름다운 의인(義人)들의 이야기,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착한 사마리아인은 기독교 복음서에서 유래됐다. 강도를 만난 한 유대인이 부상을 당한 채 길 위에 쓰러져 있었지만, 유대교 제사장 등은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이때 유대인이 천시하는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주었다는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의인,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큰 관심은 우리 사회의 비도덕성에 대한 아픔에서 나온 것이리라. 얼마 전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참사 당시, 부상자 4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긴 동해 묵호고 A교사가 화제가 되었다.

또한 어느 대기업 계열 공익재단이 그를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지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수상과 상금 5000만원을 한사코 거절했다. 가슴이 뭉클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A교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지 않는 우리 사회에 대해 큰 화두를 던지는 것이리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바르고 행복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가 바로 윤리 도덕이다. 이러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

첫째는 개인의 도덕성에 기초한 개인 윤리적 차원이고, 둘째는 사회 구조와 제도에 관심을 두는 사회 윤리적 차원이다. 근래 '의인에 대한 처우'나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논의들은 사회 윤리적 차원의 논의들이다. 이러한 접근은 현대사회가 지닌 구조와 기능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회의 도덕성을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서교동 아파트 화재 당시 초인종으로 주민을 깨우고 자신은 숨을 거둔 故 안치범의 고귀한 행동은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 현대사회에서 의인이 되기가 쉽지 않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위험과 피해를 감수해야 할 용기와 정의감을 필요로 한다. 이에 의인들이 입은 각종 피해와 손실을 보상하여 줄 수 있는 효율성과 수월성을 갖춘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의인 선정에 대한 절차의 까다로움,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의 비체계화 등으로 인해 많은 혼선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초인종 의인 고 안치범 씨의 경우도 의인 선정을 하기 위해 가족이 그 증거자료를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그 가족들은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참으로 민망스럽다.

의인에 대한 처우 문제와 함께 '착한 사마리안 법'에 논쟁도 일어나고 있다. 이 법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해 주지 않은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법이다. 60대 운전사가 운전 중 심장마비로 졸도했는데 승객은 신고도 안 해주고 공항으로 떠나 결국 그 운전사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물론 '착한 사마리아인 법'과 유사한 내용의 조항을 가진 법은 형법을 비롯해 산재해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독립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덕적 의무와 행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개인의 인권을 훼손하고 남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비판도 높다. 의인과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틀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이기적이면서 착한 존재이고, 착하면서 이기적인 매우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의인과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불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붓다의 연기론과 자비 정신을 윤리이론으로 정립한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Emmauel Levinas)의 '타자 윤리'가 생각난다. 그는 다른 존재 덕분에 '나'라는 존재가 성립한다고 보면서 타자의 존재 자체를 '윤리'라고 주장한다. 그의 타자 개념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현대인에게 자아 중심이 아닌 타자 중심으로 보는 시선을 강조한다.

연기와 자비의 강물로 이 메마른 땅에 생기가 가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붓다의 길일 것이다.

특별기고

# "본래 진면목 있는 그대로 바로 보자"



법진 스님
보타락가사 회주

중국 당나라 때 도림선사라는 스님이 있었다. 그는 날만 쾌청하면 큰 나무 가지에 올라앉아 선정에 들곤 했다. 어느날 학식 높은 백낙천(白居易)이 도가 높다는 도림스님을 찾아뵙고 시험하고자 했다. 백낙천이 도림선사를 찾아오니 때마침 도림선사가 나무 가지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스님 거기서 조시면 위험합니다. 어서 내려오십시오." 하고 외쳤다. 도림선사는 백낙천 을 넌지시 바라보다가 "자네가 서 있는 땅위보다 내가 앉아있는 이 나무 가지가 더 안전하네." 라고 하였다. 백낙천은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는 것 같았다. 자신도 모르게 도림선사에게 삼배를 올렸다. "어찌 이 어려운 걸음을 하였는고?"하고 선사가 물으니 "도의 대의를 물으려 왔습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라고 답했다.

"불사선불사악하라(不思善不思惡)이라. 착한 것도 생각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지 말라."고 선사는 답했다. 백낙천이 "그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소리 아닙니까?"하고 재차 질문하니, "삼척동자도 알지만 구십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려우니라."라고 선사는 답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착한 것도 생각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지 말라는 것이다. 악한 것도 생각지 말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선도 생각지 말라는 것은 얼핏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불사선불사악'이란 의미는 일념이 미처 생기지 않을 때 본래의 면목을 보라는 것이다. 즉 일체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다.

얼마 전에 내가 주지로 있는 보타락가사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 적이 있다. 사찰 입구에 보니 붉은 꽃이 만발해야 할 백일홍 나무 들이 칡넝쿨에 덮여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살아 있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이 들 정도로 가지 몇 개는 이미 고사 상태였다. 내일 새벽에 예불을 마치고 백일홍 나무에 뒤덮인 칡을 거둬 주어야 겠다고 생각했다.

목과 가지를 감아 조이며 엉켜있는 칡넝쿨을 다 끊어버릴 생각과 백일홍이 얼마나 시원할까 생각하니 별 것 아닌 일에 잠을 설쳤다. 이윽고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낫으로 사정없이 칡넝쿨을 걷어냈다. 그런데 잠시 쉬고 있을때 거두어낸 칡넝쿨을 가만히 응시하니 슬프게 이야기 하는 듯 느껴졌다.

"스님, 어찌 백일홍 고운 줄은 아시고 칡이 있어 쑥대가 자라지 못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또한 칡이 갈근이라 해서 만병통치약이며 꽃도 백일홍 꽃보다도 보라색으로 더 아름답고 향기는 주변의 불순한 향기를 정화합니다. 제악막작 중선봉행은 백일홍에만 국한 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백일홍한테 베푸시는 감정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이다. 칡을 걷어내니 바닥에는 쑥들이 칡의 말처럼 엉겨 붙어서 나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으나 칡넝쿨에 눌려 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쑥도 한마디 하는 것 같았다. "스님, 어찌 백일홍 고운 줄은 아시고 쑥이 있어 잡초가 자라지 못하는 것을 모르시나요? 또한 쑥이 떡과 음식을 해 먹는 데는 최고 이며, 인간들의 수종 냉증을 다스리는 줄은 왜 모르십니까?" 라고 말이다. 평등한 자비심에는 나와 남이 없고 큰 거울은 차별을 두지 않고 그대로 비춘다. 하지만 중생의 마음은 차별이 본성이 돼 버렸기 때문에 자타의 집착서 벗어나기 어렵다. 모두 다 자신들의 입장이 있다. 또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 명이 있으면 암이 있듯이 우리 사회에 백일홍만 중히 여기지 말고 칡도 쑥같은 이들도 자비중생으로 껴안자. 그러다 보면 나의 마음도 맑아지고 깨끗해 진다. 칡도 쑥도 잡초도 모두 유정물이다. 백일홍도 칡도 쑥도 그냥 본래 면목 그대로 바라보자.

社說

# 불교호스피스, 사회선도 기대한다

불교호스피스협회와 병원전법단 교육이 조계종 포교원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통해 인증될 예정이다. 2017년 8월 연명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불교계 내부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세간의 지적에 따른 성과다. 의료포교 주도권을 두고 알력이 있던 두 단체가 서로를 존중하며 발전적인 합의를 한 데 박수를 보낸다.

연명의료법은 기존 의료진만이 가능했던 의료영역을 넘어 전인적인 접근이 이뤄져 사회복지사와 성직자 등 폭 넓은 분야서 전문인력이 참여한다. 하지만 성직자들의 영적돌봄에 대한 교육안은 마련되지 않아 불교·개신교·가톨릭 3대 종교가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다. 보건복지부 연명의료법 민관추진단 위원들에 따르면 정부도 이런 종교계 목소리를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에 종교계가 각각 실시하는 호스피스교육체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불교계는 가톨릭과 같이 중앙주도하에 호스피스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단체 등이 조직되며 세를 키웠다. 호스피스에 대한 불교계 관심이 그간 높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다행히 조계종 포교원이 호스피스분야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관리하고,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나섰다. 종법령 제정을 통해 자격증을 배부하고, 정부 측에 단일된 입장을 정리해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오랫동안 산중불교를 지향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불교는 노동·인권·보건 등 사회문제를 대하는 데 이웃종교보다 늘 한 발 늦었다. 이제는 사회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지혜를 모아 대처할 때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불교호스피스가 사회를 선도하는 선례로 남아 갈 길 바쁜 한국불교계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

# 청소년교화協 50주년에 부쳐

'50'이라는 숫자를 인생에 놓고 본다면, 완숙해진 중년이자 이제는 천명을 아는(知天命)의 나이다. 하물며 한 단체가 꾸준한 활동을 통해 반백년의 시간을 맞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사)청소년교화연합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고 한다. 청소년교화연합회는 불교계 청소년포교의 산실로 1966년 4월 어린이·청소년 교화를 위해 석주 스님, 운문 스님, 안병호 거사, 황해진 변호사 등이 뜻을 모아 세운 '소년교화연합회'로 출발했다.

1970년대에는 일반학교 불교학생회와 전국연합회 조직을 활성화하는 등 명실상부한 불교청소년단체로 자리매김했다.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은 현 총재인 현성 스님의 역할이 크다. 스님은 연합회를 1989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는 등 체계를 완비했다.

현성 스님은 연합회가 50년의 활동을 이어올 수 있는 것은 '선지식들의 원력'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前 총재 석주 스님과 은사 청담 스님이 "청소년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바르게 클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항상 당부하셨다는 것이다. 현재 불교계의 어린이·청소년 포교 상황을 보면 선지식의 원력에 대한 죄송한 마음만 들게 된다. 10~20대 불자는 더 이상 사찰을 찾지 않고, 불교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영·유아-어린이·청소년-대학생-청년으로 이어지는 계층 포교 벨트는 사실상 붕괴됐다. 종교적으로 미래 신도 확장성은 불교가 가장 예후가 나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전법과 포교의 원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불교의 미래가 보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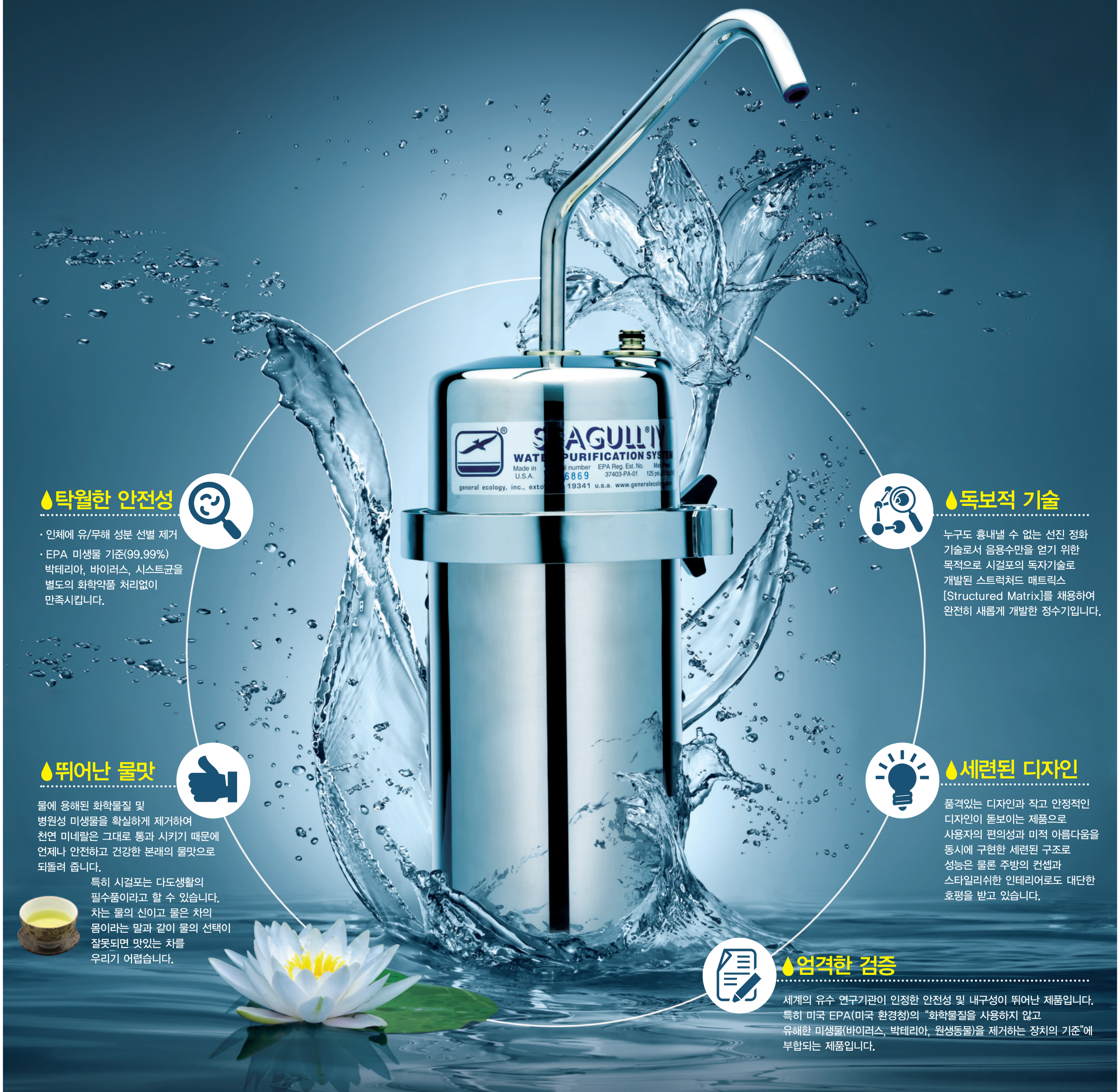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 사찰의 감로수를 시걸포에서도 느끼세요!

시걸포는 인공적으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아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천연수로서
대자연에서 정화된 암반수와 같은 건강한 감로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 탁월한 안전성

- 인체에 유/무해 성분 선별 제거
- EPA 미생물 기준(99.99%) 박테리아, 바이러스, 시스트균을 별도의 화학약품 처리없이 만족시킵니다.

## 독보적 기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선진 정화 기술로서 음용수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걸포의 독자기술로 개발된 스트럭처드 매트릭스 [Structured Matrix]를 채용하여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정수기입니다.

## 뛰어난 물맛

물에 용해된 화학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을 확실하게 제거하여 천연 미네랄은 그대로 통과 시키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한 본래의 물맛으로 되돌려 줍니다.

특히 시걸포는 다도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는 물의 신이고 물은 차의 몸이라는 말과 같이 물의 선택이 잘못되면 맛있는 차를 우리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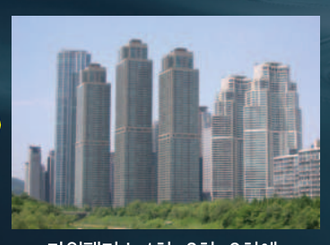
## 세련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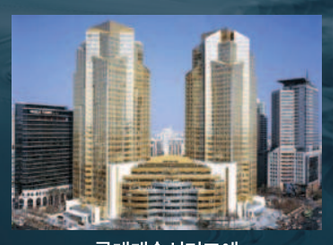
품격있는 디자인과 작고 안정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사용자의 편의성과 미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구현한 세련된 구조로 성능은 물론 주방의 컨셉과 스타일리쉬한 인테리어로도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 엄격한 검증

세계의 유수 연구기관이 인정한 안전성 및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특히 미국 EPA(미국 환경청)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해한 미생물(바이러스, 박테리아, 원생동물)을 제거하는 장치의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입니다.

**대한민국과 세계 67개국에서 사용되는 시걸포 정수기**


타워팰리스 1차, 2차, 3차에 설치된 시걸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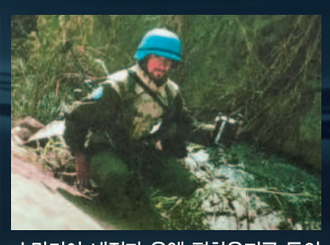

롯데캐슬시리즈에 설치된 시걸포


건대 시니어타운 외 다수에 설치된 시걸포


일류 요리사 및 특급 호텔을 매료시킨 시걸포



보잉사, 대한항공, 일본항공 등 수 많은 항공사가 선택한 시걸포


소말리아 내전과 유엔 평화유지군 등의 구호 활동에 사용된 시걸포

판매원 현대불교현불샵 | 제조원 General Ecology, Inc. USA | 한국총판 (주)이앤알인터내셔널

제 품 문 의 상담 후 카다록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080-866-1080